

## 1 강 시의 표현과 형식

본문 009~010쪽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④      02 ③      3 그 길(에), 천연히

####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해제** 이 작품은 봄의 느낌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봄의 느낌을 하나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양이라는 대상에 종합적으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분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하나의 대상에 투영해 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제** 고양이로 형상화되는 봄의 다양한 느낌

#### 구성

- 1연: 부드러운 고양이 털과 봄의 향기
- 2연: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과 봄의 기운
- 3연: 고요한 고양이의 입술과 봄의 나른함
- 4연: 날카로운 고양이의 수염과 봄의 생기

#### ㉡ 박용래, 「울타리 밖」

**해제** 이 작품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넘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이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자연 그대로의 성격을 보이며, 이후 묘사되는 마을의 공동체적 모습이 전혀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과 본래성

#### 구성

- 1연: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을 담은 들길
- 2연: 들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섭리
- 3연: 강조되는 대상의 특성
- 4연: 자연스러운 섭리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01 [A]의 1연과 2연에서 봄은 고운 ‘향기’에서 미친 ‘불길’로, [B]의 3연과 4연에서 봄은 포근한 ‘졸음’에서 뛰노는 ‘생기’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고양이의 특징들에 대한 직유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B]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직유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B]는 고양이의 또 다른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A]에 나타난 특징들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가)의 모든 연은 봄의 정경과 고양이의 외양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A]와 [B]의 각 연들은 고양이와 봄의 유사성과 통합적인 성격에

더 주목하고 있다. 2연의 경우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통합을 이루고 있지만, 나머지 연들은 서로 유사한 이미지들을 통합시키고 있다. ⑤ [A]와 [B]는 서로 다른 종결 어미로 각 연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모두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화자의 인식이 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나)에서 ‘마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화자가 주목하는 마을의 속성들을 나열하기 위해서이지, 마을의 속성이 변화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각 연은 ‘~한 고양이의 ~에 ~이 ~도다(아라)’의 구조를 가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의 구조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표현들의 변화를 통해 고양이와 봄의 다양한 이미지를 나열하고 있다.
- ② (가)의 다른 연은 ‘고흔 봄의 향기’, ‘밋친 봄의 불길’, ‘푸른 봄의 생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3연은 ‘폭은한 봄졸음’으로 처리하여 형식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 ④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소년과 같이’가 한 행으로 될 수 있으나, (나)의 1연에서는 ‘같이’를 다른 행으로 구분함으로써 ‘소녀’와 ‘소년’이 각 시행의 마지막에 올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각 행의 시상이 ‘소녀’와 ‘소년’에서 마무리되게 하여 두 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2연에서는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이 직유 표현의 보조 관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보조 관념들이 보여 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운동의 성격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행위와 이어져 화자가 바라는 삶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임을 보여 준다.

03 (나)는 지시어의 적절한 사용과 전체 통사 구조의 배분을 통해 전반적인 구성의 유기성을 높이고 있다. 1연의 ‘들길’은 2연에서 ‘그 길(에)’로 연결되고, 2연에서 시작된 새로운 문장은 4연까지 이어지는데, 2연과 4연의 중간인 3연에 쓰인 ‘천연히’는 2연과 4연에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동등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성의 유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 강 시의 내용

본문 012~013쪽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④      02 ④  
03 ㉠: 답답 ㉡: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03 [B]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색채의 뒤섞임, 즉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의 푸른색, 메밀밭의 흰색, 대궁의 붉은색이 뒤섞이면서 밤길의 풍경을 한 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 4강

##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본문 019~021쪽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④ 02 L → ㄱ → ㄹ → ㄷ

03 우의정 집 후원

## ■ 작자 미상, 「박씨전」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이 시백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박 씨라는 가공인물을 여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설정했고, 인물도 남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하여 인조 대왕, 원두표, 임경업, 김자점, 그리고 호왕, 호장 용골대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특이하다.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한 가정 내의 갈등을,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제**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전체 줄거리**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무를 겸전하여 명망이 높았던 이시백은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박 처사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 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 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거처한다. 박 씨는 여러 가지 신이한 일을 드러내 보이지만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한다. 때가 되어 박 씨가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되자, 시백은 크게 기뻐하여 박 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이때 중국의 호왕이 용골대 형제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박 씨는 신이한 능력으로 호왕을 막아 낸다.

01 이 글에서 박 씨는 호장의 공격을 물리친 후 목숨을 구걸하는 호장에게 왕비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박 씨가 호장에게 부득이 세자를 모셔 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어서 거역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고 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계화의 공격을 받은 호장의 말 중,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해 십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으니 대왕과 왕비에게 면목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박 씨는 계화에게 호국 군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계화는 도술을 부려 호국 군사들을 공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임 장군은 호국 군사를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어쩔 수 없으니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는 임금의 전교를 받은 후 호국 군사들을 살려 보내기로 하였다.

02 용골대의 말과 <중략> 이후에 제시된 임금의 전교를 통해 호국 군대 십만 대병이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호장이 조선의 왕으로부터 항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호장과 호국 군대가 ‘우의정 집 후원’을 침범하자 계화의 공격으로 호국 군사들 상당수가 죽었으며, 이로 인해 호장이 박 씨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 씨가 호장과 호국 군사들을 임 장군에게 보내자, 임 장군이 이들을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의 전교가 도착해 그들을 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용골대는, 호국의 왕비가 조선에 나가 ‘우의정 집 후원’을 침범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으나 자신이 이 같은 분부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군사와 동생을 죽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난 박 씨와 계화의 영웅적 활약상은 우의정 집 후원에 대한 침범 이후에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강

##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

본문 023~025쪽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④ 02 ②

03 순진무구하고 정직한 청년이 가족 사기단으로 인해 사기(사기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모순되게 표현한 것이다.

## ■ 오영진, 「정직한 사기단」

**해제**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혼란하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배금주의 풍조, 타락한 양심의 일단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주제**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전체 줄거리** 가난을 면해 보려고 지폐 위조단이 된 한 가족은 빌딩에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사원 모집 광고를 낸다. 능력을 쓰고 전과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정직하고 순박한 청년이 유령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된다. 사기단 가족은 청년에게 달러를 월급으로 미리 주며 달러 사용을 권한다. 이후 청년이 사용한 달러가 가짜임이 밝

허지자 가족은 청년을 채용한 사실조차 부인한 후, 사기극을 중단하고 도망치게 된다. 사기단 가족 대부분은 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이들로 인해 청년은 결국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던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로 연행된다. 이후 일가족은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건물 관리인 몰래 도망친다.

**01** 청년의 수행은 사기단 가족이 건네준 위조지폐를 들지 않고 진짜처럼 쓰는 것이다. 사원 병은 사원 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청년의 수행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㉔와 같이 말한 이유는 청년의 수행이 성공해야 위조지폐를 만든 자신들도 사기에 성공하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㉔를 청년의 수행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원 병은 청년의 수행, 즉 위조지폐 유통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을 속여 가짜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사원 병은 위조지폐의 유통이라는 청년의 수행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부각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사원 병은 청년의 위조지폐 유통이 성공해야만 자신들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사원 병을 포함한 사기단 가족들은 어수룩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를 월급으로 건네주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조지폐를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상황이 사기단 가족 자신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 사원 병의 무력감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02** ㉠에서 '이렇게 많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준 '백 팔라'가 자신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예상보다 큰돈인 '백 팔라'로 양복과 구두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냉큼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맘에 들지 않는다는 어투로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경우, 전과자인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청년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호의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으므로, 고마움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감격에 겨운 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의 경우, 사장은 청년과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와 청년의 방문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찾아온 형사의 방문에 대해 의아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의 경우, 형사는 청년을 보고 생면부지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청년의 말이 거짓임을 확신하며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로 청년의 머리를 세차게 때리는 동작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의 경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사기범으로 몰려 형사에게 끌려 나가는 상황이므로, 청년의 억울해하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출하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03** 제목의 '정직한'은 청년의 순진무구하고 정직한 점을, '사기한(사기꾼)'은 청년이 지폐 위조단 일당들에게 속아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된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은 이전에도 옛 애인에게 속아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을 제목에 활용하여 정직한 청년이 사기한(사기꾼)으로 몰리게 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강

**고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본문 027~029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 세
- 02** ㉡: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 ㉢: 등잔 아래서
- 03** ㉣

■ **유씨 부인, 「조침문」**

**해제** 이 작품은 글쓰기가 오랜 세월 동안 애용하다가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기록한 글이다. 바늘을 의인화하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데 대한 애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유려한 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주제**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도

**구성**

- 1단락: 글을 쓰게 된 동기
- 2단락: 바늘과의 인연과 안타까움
- 3단락: 바늘의 재주와 가치
- 4단락: 바늘이 부러진 사건에 대한 심회
- 5단락: 바늘에 대한 추도와 기원

**01** 바늘의 공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은 품질과 재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이다. 여기에서 바늘을 자식과 비복에 비교하여 그 공덕을 기리고 있다. 한편 명복을 비는 마



8강

작품의 문학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본문 034~03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③  
 02 ㉠-을까나, ㉡ 춘향의 마음 (또는 감정)  
 03 ②

㉠ 작자 미상, 「춘향전」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조선 시대에 중시했던 유교 이념 중 하나인 열(烈)이 주인공인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당대 민중들이 지녔던 사회적 염원이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대한 징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고 현재까지도 현대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재창작되고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숙종 대왕 즉위 초, 전라도 남원에 퇴기 월매와 성 참판은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한 선녀가 청학을 타고 오는 꿈을 꾸 뒤, 춘향을 낳게 된다. 효행이 지극하고 예의와 정절을 일삼던 춘향은 어느 봄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여 한양으로 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몽룡을 그리워하던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 한편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그리고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사출포하여 부사를 파직한 뒤 춘향을 구해 낸다. 남원의 공무를 다한 이몽룡은 춘향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백년해로한다.

㉡ 박재삼, 「수정가」

**해제** 이 시는 박재삼의 첫 시집인 『춘향이 마음』에 실린 연작시 중 하나이다. 전통 문학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특히 춘향의 ‘서방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의 길이가 긴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올레’, ‘-을까나’와 같은 종결형의 반복을 통해 춘향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춘향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

**구성**

- 1연: 순수한 춘향의 마음
- 2연: 임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

01 춘향이 남원을 떠나며 한 말 중 인용된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자신을 두고 한 것이다. 또한 ‘너 부디 잘 있거라’, ‘다시 보기 기약 없네’라고 말한 데서 춘향이 쉽사리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향을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형리는 어사또에게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를 말할 뿐, 춘향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춘향 어머니는 춘향이 어사또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춘향과 어사또가 만난 장소에 들어왔다.
- ④ 임금은 보고서를 살핀 후 어사또를 크게 칭찬하며 이조 참의 대사성으로 봉하였다. 그러므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임금이 의문을 나타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어사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의 행위에 대해 ‘관장에게 포악하였’다고 말하며 ‘죽어 마땅하되’ 자신의 수청도 거역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는 어사또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2 ㉠: 2연에서는 ‘-을까나’가 반복되고 있다.

㉡: 1, 2연에서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서방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다.

03 (가)에서 춘향은 ‘한양 계신 우리 낭군 / 나와 같이 그리는가 / 무정하여 이주 있고 / 나의 사랑 옮겨다가 / 다른 남을 사랑하는가’와 같이 ‘낭군’의 마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춘향은 소원을 들어줄 ‘산신령’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굳은 마음으로 ‘바람’ 같은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힘에 기대어 낭군의 절개를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춘향은 한양으로 떠난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 (나)의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는 춘향이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흐느끼는 상황을 흔들리는 ‘물살’에 빗대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와 (나)의 상황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춘향 집’은 춘향이 거주하는 ‘남원’에 있다. (나)에서 ‘집’은 ‘서방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④ (가)에서 춘향은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늑죽 푸른 나무’를 언급하며 서방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

하고 있다. (나)에서는 ‘춘향이 마음’을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에 빗대는 방식을 통해 춘향의 성품이 물같이 순결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서술자는 춘향에 대해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절개를 지키는 것을 중시했던 당대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춘향’의 ‘서방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수정빛’에 빗대고 있다. 이를 통해 춘향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9

##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본문 039~041쪽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③

02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에서의 해방 상태(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 등도 가능)

03 ④

## ■ 박태순, 「무너진 극장」

**해제** 이 작품은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4월 26일과 그 전날인 25일을 배경으로 4·19 혁명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아울러 혁명의 중심에 있던 데모 군중의 창조적인 힘과 공동 무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4·19 혁명의 의미를 날카롭게 찾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4·19 혁명의 진정한 의미 모색

**전체 줄거리** 4·19 혁명의 혼란한 상황에서 ‘나’는 친구들과 그날의 데모로 희생당한 친구의 무덤과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누워 있는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서 나온 그들은 술을 마시며 시국을 통탄하다가 거리로 나와 부정을 규탄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원홍(元兇)이 경영하는 극장에 들어간다. 시위대는 점점 흥분 상태가 되어 극장을 파괴하고, 결국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인들을 피해 극장을 빠져나간다. ‘나’는 시위대가 빠져나간 극장에서 혁명에 대해 생각한다.

01 ㉠은 4·19 혁명이 일어난 공간으로,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과 같이 황폐화된 풍경과 여전히 대치 중인 군인과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은 데모로 희생된 친구의 무덤이 있는 공간이지만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죽음은 다만 광물성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고,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 오는 바람 소리’를 듣는 등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긴장감

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시위대와 군인들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맞지만, ㉡에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을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② ㉠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흥분과 호기심, 분노의 감정을 보면 ㉠을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에서는 ‘종달새 소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움이 트는 잡초’, ‘뜨거운 태양의 냄새’ 등에서 삶의 생동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광물성(礦物性)의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음의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을 삶에 대한 열정과 생동감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④ ㉠의 시위대들은 불의한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 인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은 ‘불타 버린 건물들’, ‘탄흔이 남아 있는 포도’와 같이 파괴된 풍경을 제시하여 황폐함을 드러내는 공간이지만, ㉡은 죽은 친구의 무덤이 있는 공간이므로, ㉡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02 ‘공동 무의식’은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데, [A] 부분에는 이를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에서의 해방 상태’, 혹은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03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는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 주는 광기 어린 난동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 군경의 무력 진압에 맞서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리케이드’, ‘계엄사의 포고문’, ‘집총한 군인들’은 데모를 저지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 존재이므로 이를 통해 당시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②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우울하게’는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는 감정과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민중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③ ‘탄흔이 남아 있는 포도’와 ‘스물한 살짜리 청년의 시체’는 모두 민중들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 진압의 결과물로서, 이를 통해 4·19 혁명의 비극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⑤ ‘오류에 빠진 질서’와 ‘부정부패’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로 인해 나타난 사회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전 시가 01

본문 044~045쪽

01 ④

02 ③

03 ④

㉠ 총담사, 「찬기파랑가」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총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달, 물가, 수풀, 잣나무 등의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품을 형상화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광명과 염원을 상징하는 달을 통해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잣나무는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련, 역경 등을 상징하는 눈과의 대비를 통해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구성**

- 1~5구: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 6~8구: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 9, 10구: 기파랑의 강직한 인품 예찬

㉡ 월명사, 「제랑매가」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재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지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한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누이의 죽음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며 사상을 종결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유발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재회에 대한 염원

**구성**

- 1~4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 5~8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삶의 무상감
- 9, 10구: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염원

01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마음의 갓’은 ‘나이가 지니시던’ 것으로서 화자가 ‘쫓고 있’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볼 만한 시적 상황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화자는 ‘마음의 갓’을 ‘쫓고 있’다고 했으므로 ‘기랑’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화자가 대상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깝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흐느끼며’ ‘달이’ ‘떠간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흐느끼며’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의 부재로 인해 유발된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나)의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죽음에 대해 대상이 느끼는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심정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머뭇거리고’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머뭇거리고’에 이별로 인한 망설임의 정서가 담겨 있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머뭇거리고’와 관련하여 화자가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시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머뭇거리고’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화자의 극복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시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잎’이 떨어졌음을 부각하여 대상의 죽음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를 느낄 만한 시적 상황은 없으므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를 정적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모래 가른 물가’에서 ‘수풀’을 바라보며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수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자연물로서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잣나무 가지’를 높다고 하면서 고결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잣나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눈’은 ‘고깔’을 덮고자 하지만 덮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눈’은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이겨 내는 대상의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은 가지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나)의 ‘잎’이 ‘이에 저에 떨어’지는 상황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고전 시가 02

본문 046~048쪽

01 ②

02 ④

03 ⑤

### ■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제** 이 작품은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삶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2연에서는 천 년을 혼자 살아도 변치 않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끈’에 빚대어 노래하고 있다. 3연에서는 대동강 건너편으로 임을 보내는 데 일조한 사공을 원망하는 마음과, 이별 후에 임이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가사가 세 마디로 나누는 율격과 동일한 후렴구를 통해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이어 가려는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 구성

- 1연: 이별을 거부하는 마음과 연모의 정
- 2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믿음
- 3연: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의 변심에 대한 염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울면서 좇겠나이다’와 같이 임과 헤어지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B]에는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야 끊어지리까’와 같이 천 년을 외로이 지내도 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이는 실제로 이별을 한다고 해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별 상황을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이별을 거부하며 울면서라도 임을 좇아가겠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B]에는 어떠한 계기로 이별을 참

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계기를 제시한 부분도 없다.

③ [A]에는 화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서경’과 ‘길쌈베’가 언급되고 있다. [B]의 경우, 임에 대한 믿음을 영원히 지켜 나갈 것이라는 다짐이 드러나 있을 뿐, 임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열거의 방식도 사용되지 않았다.

④ [A]에는 임과의 사랑을 이어 나가기 위한 화자의 선택이 드러나 있을 뿐, 임의 이별 통보 이후 임을 따라갈 수 없게 된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B]의 경우,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화자가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

⑤ [A]에 떠나려는 임이 화자에게 제안을 하거나 화자가 이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B]에 제시된 ‘구슬’과 ‘끈’의 대비는 비유적 표현일 뿐,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드러내거나 그것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괴시란대’는 대개 ‘(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임이나 ‘길쌈베’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구절을 통해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게 된 시연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울이지마는’과 ‘소성경’은 ‘서경’이 당시 수도였던 송도 못지않은 큰 도시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서경’이 변화하면서도 중요한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자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② ‘닭은 곳’은 대개 ‘(도시의 생활 기반이) 잘 닦여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를 통해 ‘서경’이라는 공간이 지닌 특징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외마른’의 대상이 ‘서경’임을 확인함으로써 화자가 서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적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는 통상 ‘임과 헤어지기보다는 길쌈과 베 모두 버리고서라도’ 또는 ‘버리게 하시고’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화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길쌈베’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태도가 확인되고 있다.

⑤ 화자는 ‘서경’과 ‘길쌈베’를 버리고 임을 따라갈 때 ‘울면서 좇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다 버리고 임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이 변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자는 임을 불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의 변심을 예측한다고 해서 임과의 이별이 계속되는 괴로운 상황을 화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한 것이 '전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임이 떠나는 과정에 '사공'이 '배 내어 놓은'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별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의 행위에서 찾아내 자신의 상처를 줄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눈앞의 상황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임이 '건너편 꽃'을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임과의 이별이 계속되는 책임이 임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두렵고 불쾌한 정황이 이어지는 원인과 책임이 임에게 있음을 밝혀 자신의 문제나 잘못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와 같이 사공의 각시를 비난하는 것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인 임이 아닌 사공의 아내, 즉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위'라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고 배에 타는 것을 사공이 일부러 '가는 배에 없'은 것처럼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강을 건너는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사공'이 도강을 주도한 것처럼 초점을 바꾸어 임과의 이별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 즉 '전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 왜적에 맞서 백성을 보살피고, 전란 후에는 초야에 은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제 벗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구성

- 제1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 제4수: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에 대한 예찬
- 제5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 제7수: 고인이 된 벗에 대한 그리움
- 제9수: 벗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싶은 마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중장의 '가읍시다'와 종장의 '마읍시다'라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초장과 중장, 종장에서 '옛 사람'이라는 시어를 반복하며 '옛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청송'과 '백운', '초옥 삼간'은 세상을 멀리하며 은거하고 지내는 '내 벗님'의 모습을 나타낼 뿐,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③ 벗이 '용추동 밖'의 구름 다리 위에 있어 꿈에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니', '다녀오노라'와 같은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뫼는 첩첩하고 구름은 잿았으니'라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을 뿐, 대상과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백운)은 '초옥 삼간'에서 지내는 '벗'이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 두른 '장'이라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라 볼 수 있다. ㉡(구름)으로 인해 화자가 '고인의 집터'가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벗'에 대해 진념이 없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벗'이 화자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라 볼 수 없다.

고전 시가 03

본문 049~050쪽

01 ⑤

02 ④

03 ④

정훈, 「월곡답가」

**해제**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로,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하며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은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1569~1621)'이라는 설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월곡은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당대 지배층과 달

② <제4수>와 <제7수>는 각각 화자의 입장에서 ‘벗’을 사랑하는 이유와 ‘고인’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 ㉡은 각각 ‘벗’이나 ‘고인’의 시선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장을 두르고’를 통해 ㉠은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 ‘벗’이 선택한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현실과 소통하기 위한 자연물과는 관련이 없다. ㉡은 ‘고인의 집터’를 가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인’과 화자, 그리고 ‘고인’과 현실과의 거리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을 ‘고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⑤ ㉠은 진념 없이 살아가는 ‘벗’이 속세와 멀어지기 위해 선택한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한 ‘벗’의 노력을 환기하는 자연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고인’의 집터’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좌절하는 ‘고인’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월곡의 집이 산과 구름에 가려 있다고 말하며 월곡의 부재를 인식한 후, 마음으로밖에 그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월곡의 집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목구비는 같지만 자신 혼자 ‘옛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옛 사람’이 있으니 ‘벗’이라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벗’이 ‘월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옛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월곡이라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벗’이라는 말을 통해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초옥 삼간’은 세상을 멀리한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벗’이 흉중에 진념이 없기 때문에 그 ‘벗’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화자는 벗이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공간에 있기에 꿈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단 둘이서만 ‘상산의 채지’를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세상의 어지러운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 한호, 「짐방석 내지 마라 ~」

**해제** 이 시조는 다양한 자연물을 동원하여 자연 친화의 정서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대표적인 한정가(閑情歌)이다. 달빛 아래 낙엽을 방석 삼고 앉아 한 잔의 술에 만족하는 화자의 소박한 모습에는 자연과 하나 되어 탈속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안빈낙도를 표방하는 옛 선비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풍류

#### 구성

- 초장: 낙엽 위에 앉아도 좋다는 마음
- 중장: 달빛 비치는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
- 종장: 술 한 잔으로 누리는 안빈낙도

####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해제** 이 시조는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풍류객이었던 작가가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황진이에게 묻는 말로 시작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삼고 청, 홍, 백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소재들을 통해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과 비감, 애도의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과 애도의 마음

#### 구성

- 초장: 대상의 부재에 대한 인식
- 중장: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 종장: 대상의 부재로 인한 허무감

#### ㉢ 오경화, 「곡구롱 우는 소리에 ~」

**해제** 이 시조는 삼대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잔잔한 행복을 담담하게 읊은 작품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한가롭고 정겨운 풍경들이 잘 나타나 한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한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시조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시조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과 일상의 여유

#### 구성

- 초장: 피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낮잠에서 깨어남.
- 중장: 평화롭고 여유로운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
- 종장: 아내가 잘 빚어진 술을 권함.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는 ‘앉으라’, (나)에는 ‘자느냐’, ‘누웠느냐’와 같은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가)에서는 낙엽을 방석으로 삼으면 죽하다는 화자의 정서를, (나)에서는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안타까움, 허무감 등과 같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아이야’라는 특정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상 전개에 흐름을 전환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는 색채 이미지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청초’, ‘홍안’, ‘백골’ 등에서 색채 이미지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에는 청자인 아이에게 ‘박주산채’를 달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는 부재하는 대상에게 묻는 방식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는 ‘짚방석’, ‘솔불’ 등의 인공적인 소재와 ‘낙엽’, ‘달’과 같은 자연적인 소재가 대조되고 있으며, 후자에 선호를 보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나)에는 화자의 자연에 대한 선호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린 손자’의 꽃놀이하는 아들, 며느리, 아내의 행위와 조화를 이루어 단란한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분주한 모습과 대비를 이루어 화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꼭구렁 우는 소리’로 인해 화자는 낮잠을 깨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응시하게 된다.
- ② 화자는 ‘낮잠’을 자다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이를 통해 화자는 육체나 정신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작은아들’, ‘어린 손자’가 언급되는 것에서 화자를 포함하여 삼대가 함께 영위하는 가족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며늘아가기’의 베 짜기는 가정 안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노동 행위를, ‘작은아들’의 글 읽기는 양반가 남성의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둘은 나란히 배치되어 성별에 따른 행위의 전형성을 보여 주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 ‘박주산채’는 맛이 좋지 못한 술과, 산나물을 뜻한다. 이는 ‘-일망정’으로부터 구하기 어렵지 않은 대상임을 쉽게 추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화자가 추구하는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화자가 이루기 어려운 이상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달’은 매일 지고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하루의 주기를 두고 반복된다는 시간적 인식을 갖게 하며 동시에 자연의 순환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뜻하는 ‘홍안’이 사라지고 ‘백골’만 묻힌 상황은 시간의 흐름과 대상이 죽은 후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④ (나)에서 화자는 ‘잔’을 잡아도 ‘권할 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대상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서 공허감, 인생의 허무감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⑤ (다)에서 ‘술’은 화자의 아내가 걸려서 남편인 화자에게 ‘맛보라고’ 권하고 있다. 아내가 술을 권하게 된 동기에는 남편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그 행위와 관련된 정황 속에서 술은 부부 사이의 돈독한 정을 연상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고전 시가 05

본문 053~055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⑤

㉠ 김상용, 「사랑이 거짓말이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용이 지은 평시조이다.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입을 탓하고 있다. 특히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욱 거짓말인데, 그 이유는 자신처럼 그리움에 뒤척이노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므로 꿈에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임의 부재(不在)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작가인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왕족을 모시고 강화로 피란했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던 인물임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임금에 대한 충성의 노래로 보기도 한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구성**

- 초장: 화자를 사랑한다는 임의 거짓말
- 중장: 꿈에 와서 본다는 임의 거짓말
- 종장: 임이 그리워 잠 못 드는 화자

㉡ 송시열, 「임이 헤오시매 ~」

**해제** 이 작품은 노론의 영수이자 성리학의 대가였던 송시열이 지은 평시조이다. 표면상 남녀 간의 사랑과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시기에 임금의 지지를 잃은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주제** 임의 변심으로 인한 슬픔과 서러움

**구성**

- 초장: 임의 사랑과 화자의 신뢰
- 중장: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임
- 종장: 임의 변심으로 인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서러움

**㉠ 송이, 「남은 다 자는 밤에 ~」**

**해제** 이 작품은 「가람본 청구영언」에 기녀 송이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시조이다. 화자는 남들 다 자는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정은 그 임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서 임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주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

**구성**

- 초장: 홀로 잠 못 들고 있는 깊은 밤
- 중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 종장: 먼저 죽어서라도 임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더냐 ~」**

**해제** 이 작품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강렬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사실시조이다. 반복, 연쇄, 열거, 설의 등의 표현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특히 장형화된 중장에서 일상적 제재들을 연속적으로 열거하며 과장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되 비탄에 빠지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구성**

- 초장: 못 오는 이유에 관해 임에게 던지는 물음
- 중장: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 제약 때문에 못 오느냐는 물음
- 종장: 자신을 보러 올 여유가 정말로 없겠느냐는 원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는 임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나)에는 믿고 있던 임의 변심으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상처가, (다)에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화자의 외로움이, (라)에는 자신을 보러 와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라)의 공통점으로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홀로 있는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윤리적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 (다), (라)에는 화자의 과거 행적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행적으로 인하여 갖게 된 회한을 드러낸

다는 것은 (가)~(라)의 공통점이 될 수 없다.

④ 이 작품들에서 대상, 즉 사랑하는 임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경외감(敬畏感)이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말한다.

⑤ ‘당혹감’은 무슨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라)는 임과의 만남이나 사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이므로, 여기에 화자가 당혹감을 느꼈던 경험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와 (나)는 각각 중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이 강조되었다. (가)의 중장에서는 그리움 때문에 잠 자체가 안 오는 상황에서 꿈에 만나자는 약속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나)의 중장에서는 임이 처음부터 자신을 미워하시던 게 아니라 더욱 서럽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라)의 중장에서는 ‘성’, ‘담’, ‘집’, ‘뒤주’, ‘궤’ 등의 소재를 엮어 가는 연쇄법으로 시상이 전개되었지만, (가)에서는 연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④ (라)에서는 ‘못 오더냐’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나)에서는 시구의 반복을 찾을 수 없다.

⑤ (라)의 중장에 사용된 열거는 점층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에서는 점층법을 통해 고조되는 정서를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설우랴’는 처음부터 임이 자기를 미워하시던 것이라면 이토록 서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임의 사랑을 굳게 믿은 자신을 버리고 임이 다른 이에 게로 사랑의 마음을 옮겼기에 더욱 서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보면, 임금이 처음에 노론 세력을 억누르거나 홀대하던 것이 아닌데 이제 와서 다른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시니 서러움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미시던’은 ‘애초부터 임금이 노론 세력을 억압했다면’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임’을 임금으로 해석하면 ‘사랑’을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

움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마음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절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작가의 태도와 연관 지을 수 있게 된다.

② (나)의 '누구에게 읊기시고'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노론에 대한 임금의 지지가 다른 세력에게 옮겨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작가와 노론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상황에서 이 작품이 지어졌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④ (다)가 사랑의 정한을 노래한 기녀의 시조라고 할 때 <보기>에서 설명한,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은 '입 둔 입'이라는 상황, 즉 자신이 사랑하는 임에게 다른 입이 이미 있다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⑤ (다)의 '차라리 내 먼저 먹어서'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극한의 상황인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애절한 사랑의 정한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종장은 '한 달이 서른 날이어나'와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라는 두 개의 구(句)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설명한 평시조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초장은 '어이 못 오더냐'와 '무슨 일로 못 오더냐'라는 두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구는 '어이'와 '못 오더냐'라는 두 개의 마디로, 둘째 구는 '무슨 일로'와 '못 오더냐'라는 두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초장은 평시조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중장이 길어져서 두 개의 구로 한정되지 않음으로써 작품 전체가 3장 6구라는 형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장은 '너'가 안 오는 이유에 대한 과장을 통해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를 <보기>의 설명과 연관 지어 보자면 평시조의 규칙을 깨며 상황을 장황하게 열거한 형식상의 과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종장 첫째 마디인 '한 달이'는 3음절로 되어 있으며,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사실시조의 형식적 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시가 06

본문 056~058쪽

01 ⑤

02 ③

03 ②

■ 박인로, 「누항사」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고향에 내려와 살던 작가가 그의 친구인 이덕형이 시골에서의 생활상을 물은 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 쓴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가난한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안빈낙도하며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대부의 어려운 처지와 가난한 생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조선 전기의 가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곤궁한 현실과 안빈낙도의 삶 추구

구성

- 서사: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낙도하고자 함.
- 본사 1: 전쟁에 참여했던 지난 일을 떠올림.
- 본사 2: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난처해함.
- 본사 3: 소를 빌리려다 수모를 당함.
- 본사 4: 매정한 세태를 탄탄하며 농사를 포기함.
- 본사 5: 자연을 벗 삼아 살며 늙기를 바램.
- 결사: 안빈낙도하며 사대부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함.

01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원현'은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의 인물이고, '석승'은 부호였던 과거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㉞은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이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 살라'라는 자신의 생각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가 자신보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② ㉜은 대구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각한 것일 뿐, 부정적인 상황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영'했다는 것은 식량을 쥐에게 빼앗기고 난 후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므로,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㉝은 화자가 자연에서 달과 바람을 벗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몰아일체를 실현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했다고 볼 수는 없다.

##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화자는 '강호 한 꿈을 꾸'었다고 했으므로, ㉔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고 했으므로, ㉖는 화자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먹고살 걱정으로' '강호 한 꿈'을 잊었다고 했으므로, ㉔는 화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고 했으므로, ㉖는 화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화자는 '먹고살 걱정으로' '강호 한 꿈'을 잊었다고는 했으나,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㉔를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충효', '화형제', '신봉우' 등을 추구하고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㉖를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강호 한 꿈을 꾸언 지 오래'라고 했으므로, ㉔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고 했으므로, ㉖를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화자가 '강호 한 꿈'을 계기로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고 했으므로, ㉖를 운명을 거부하게 된 계기로 볼 수는 없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로다'에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는 오랜만에 먹게 된 밥을 자식들에게 나눠 주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초막'에서 '씩은 짚'을 땀감으로 삼아 살고 있는 것은 궁핍하게 살아가는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두고'와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땀감 삼아'에 드러나는 궁핍한 모습은 전란 후 피폐해진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장부 뜻'이 바뀌지 않고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에는

화자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애 이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에는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선비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안빈일념', '충효' 등의 표현에서 유교적 도의를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와 '충효를 일삼아'에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감내하며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쥐구멍'이나 '악귀'는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와 '이 중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에 드러나는 비참한 현실은 전란으로 인해 궁핍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전 시가 07

본문 059~062쪽

01 ④

02 ⑤

03 ①

## ■ 조우인, 「자도사」

**해제** 이 작품은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사회(詩禍)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 ■ 구성

- 서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본사 1: 임과 이별한 슬픔
- 본사 2: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함.
- 결사: 임에 대한 원망의 표출

##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과 같은 자신의 상황이 모두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하면서 이를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현실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눈 위의 서리'가 녹고 '뜰가의 매화'가 피는 것은 겨울이 지나

고 봄이 왔음을 의미하지만, 입을 볼 수 없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② ‘반벽청등’과 ‘창에 비친 매화 달’은 모두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 계절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황금이 많으면’은 가정적 상황이 맞지만,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소나’라는 구절을 통해 현실의 상황은 뒤집힌 동이에 해가 비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을 찾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아쟁을 꺼내어’ 노래로 불러 보지만 ‘거문고 줄’이 끊어져 노래마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할 뿐,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자신이 기운 옷을 하늘(㉠)에 있는 입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입에게 가기 위해 침실(㉡)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입 계신 데 바라보’며 입을 그리워하던 화자는 ㉡에서 입을 만나게 된다.

② ㉡에서 입을 만난 화자는 ‘이렇게 뵈고 다시 뵈 일 생각’하며 입과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입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으로 내려오게 된다.

③ ㉢에 온 화자는 ‘쓸쓸한 십 년 세월’ 동안 입을 그리워하며 입의 옷을 기우려 하지만, ‘갈 길이 아득’하다며 ㉡에서 입과 재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④ ㉢에서 화자는 입의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물쇠를 굳게 잠근 ㉡에서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광한궁’에 올라간 화자는 그리워하던 입을 잠깐 본 후 다시 입을 보게 되기를 바라지만, ‘삼천 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고운 여인’들에 비해 자신의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가 보잘 것없음을 느낀 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으며,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도’를 자랑하는 것이 작가가 불경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모함을 받은 이유에 해당한다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청조사’는 입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삼천 리 약속’을 건너온 자연물로, <보기>의 ‘입금의 소식을 알게’ 하는 자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옥돌 위 쉬파리’는 화자의 허물을 지어낸 대상이라는 점에서 작가를 포함한 이들에 해당한다. 또한 화자는 입이 ‘사랑의 첫 말쑤’를 버려두고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입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후 오랫동안 입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입의 옷을 입고 싶지만 입이 자신의 마음을 언제 알아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하늘에서 적강한 선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작가가 자신을 선녀에 빗대어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은 입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⑤ 화자는 죽어서 두견새의 뉘이 된 후 밤마다 피눈물로 울며 입의 잠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입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는 작가의 바람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고전 시가 08

본문 063~065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④

■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자」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민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노래한 규방 가사로,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의 감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경상북도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덴동 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덴동 어미가 거둬진 재가와 상부(남편의 죽음)로 인한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청상과부들에게 개가를 하지 말기를 권유하는 대목이다. 작품에는 대화의 전개 방식, ‘두견새’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의 상징적 활용, 살기 어려운 운명과 그 현실에 대한 덴동 어미의 대응 및 극복 방식 등이 주요 특징으로 잘 나타나 있다.

**주제** 덴동 어미의 비극적인 삶의 노정과 신세 한탄

**구성**

- 1~5행: 덴동이를 업고 본고향에 돌아옴.
- 6~28행: 덴동 어미가 자신에게로 날아온 두견새를 죽은 남편의 현신으로 여김.

- 22~32행: 뎡동 어머니가 자신의 기구한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후회함.
- 33~46행: 뎡동 어머니가 자신의 서러웠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안노인과 나눔. (43행: 종략)
- 47~마지막 행: 청상과부들의 개가를 만류함.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는 ‘은행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은행나무는 ‘나’에게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귀향의 지표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전 강산 의구하나’에서 본고향의 자연 경치는 옛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는 거의 ‘오십 년’ 만에 본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척 대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안노인’은 ‘나’가 울고 있으므로 ‘사정이나 들어 보세’라고 말한다. 이에 ‘나’는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운다고 말하므로 침묵하고 울기만 한 것은 아니다.
- ⑤ 화자가 ‘간 곳마다 그러리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을 겪어 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화자는 청춘과부들이 개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것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는 ‘화령댁’, ‘장림댁’이 개가한 후 불행해졌다며 개가의 부정적 사례를 나열하여 청춘과부들의 개가를 막기 위한 설득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화자는 ‘이팔청춘 청상’들을 청자로 삼아 대화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령댁’, ‘장림댁’과 같은 인물과 함께 ‘단양’, ‘영천’과 같은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사례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두견새’는 죽은 남편의 현신이며 화자가 개가한 것을 후회하

는 계기로 작용할 뿐, 새로운 입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매개체로 볼 수는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방님 죽은 낮이로다’에서 화자가 두견새를 사별한 임의 현신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두견새’가 ‘슬피 우니’에서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③ 화자는 ‘두견새’를 보고 죽은 남편의 현신이라 여기고 반가워하면서도 자신이 지나온 거둬진 개가의 삶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 ④ 화자는 ‘두견새’로 인해 자신이 여러 번 개가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되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는 화자가 다시 시집간 것에 대한 후회에서 나온 말일 뿐, <보기>에 언급된 기존 사회로 돌아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룬 모습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기>에 언급된 통과 의례 중 ‘통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여러 번 개가하였다. 하지만 ‘첫째’ 남편에서 ‘넷째’ 남편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부하였다. 반복되는 개가는 수절이 미덕이던 기존 가부장제의 사회 질서나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통과 의례 중 ‘분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화자의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개가했다는 말에서 개가의 결심과 이행은 <보기>에 언급된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난을 피해 가려는 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가 개가한 후 이어진 고통스러운 인생 역정은 ‘영송이 밤송이 다 썩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개가를 선택한 후 온갖 시련을 겪는 상황을 말하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통과 의례 중 ‘전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화자가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고난이 ‘팔자’로서 삶의 본질이자 운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여 달관하는 화자의 변화된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전 시가 09

본문 066~067쪽

01 ④

02 ③

03 ⑤

■ 작자 미상, 「유산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널리 가창되며 유행했던 12잡가의 하나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네 마디 율격의 연속을 기반으로 한 점으로 보아 가사 갈래에서 영향을 받은 잡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으로 생동감을 더한 점, 대구나 열거, 비유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인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즐거움

**구성**

- 서사: 봄을 맞은 산천 경치의 구경 권유
- 본사 1: 봄날의 화려한 경치가 지닌 아름다움
- 본사 2: 봄날 산의 장관과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 결사: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작품의 화자가 애상적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러기에 관해 ‘어이 갈고 슬피 운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작품의 지배적 정서는 아름다운 봄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해당 구절은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 것 정도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럼 드리운 듯’이라는 구절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 ② ‘만산홍록들은 일년일도 다시 피어 /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 창송취죽은 창창울울한데’는 꽃과 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숲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흐르는 물을 묘사하면서 ‘팔팔’, ‘주루룩’, ‘살살’, ‘으르렁’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였다.
- ⑤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는 널리 알려진 이상적인 공간을 언급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성장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작품 전체로는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이 중심을 이루지만, ㉠에 대한 묘사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원산’, ‘태산’, ‘기암’ 등과 함께 열거되며 리듬감을 형성하는 대상이다.

② ㉠의 가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광풍에 흥을 겨워 / 우쭐 활활 춤을 춘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지닌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원산’이나 층층이 쌓인 ‘기암’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 없으므로 정적인 대상인 반면, ㉠은 춤을 추고 있다고 했으므로 동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움직임을 드러내어 정적인 대상과의 대비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은 ‘원산’, ‘태산’, ‘기암’과 함께 풍경을 묘사하는 데에 활용된 대상이며, ‘흥을 겨워’ 춤을 추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흥겨운 이 작품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라는 구절은 화자가 주위 풍경을 보며 그곳이 마치 옛날에 소부와 허유가 은거하던 공간 같다고 느끼는 만족감의 표현일 뿐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머물던 도시의 유흥 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작품에서 자연은 도학자들의 노래에서 그러지듯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이 아니라, ‘산천경개 구경’을 하는 대상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잡가가 지닌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잡가의 가창은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작품에서 소재로 선택한 상황은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처럼 깊은 산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는 것이어서 도시라는 공간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상이하다. 이는 도시에서 이 작품을 향유할 대중의 흥미에 부합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 ③ 작품의 율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잡가의 형식이 어떤 갈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에서 드러나는 네 마디 율격이 전체적으로 연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갈래인 가사에 뿌리를 둔 잡가임을 알 수 있다.
- ④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더니’는 중국 한시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므로, 신분이 낮은 가객들보다는 상류 양반층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과 더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㉑ 작자 미상, 「본조 아리랑」

**해제**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근간으로 형성된 신민요로,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불린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가사에 반영되어 있어 적층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이 겪는 불우한 상황을 풍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해지고 있는 민중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풍자 정신이 돋보이며,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개화기, 일제 강점기의 변화에 대한 풍자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 구성

- 1연: 외척의 권력에 대한 풍자
- 2연: 신식 군대에 대한 비판
- 5연: 개화만을 중시하다 삶의 타전을 잃어버림.
- 6연: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
- 10연: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 11연: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구

#### ㉒ 작자 미상, 「신고산 타령」

**해제** 이 작품은 함경도 지역의 노래로 '어랑 타령'으로도 불린다. 가사의 내용으로 볼 때, 기차역이 세워지는 20세기 초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 제목 중 '신고산'은 경원선 기차역의 이름이다.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달라지고 시골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버린 상황을 꾸밈하는 내용이 많다.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이 있으며 선후창 형태로 가창되었다. 애절하면서도 씩씩한 곡조를 지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고 한다.

**주제** 함흥 차 지나가는 신고산 지역의 변화와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구성

- 1연: 함흥 차 소리에 반딧집을 싸는 구고산 큰애기
- 3연: 생계는 챙기지 않고 양산도에만 빠진 영감님
- 5연: 봉천 차를 타고 떠난 우리 오빠
- 9연: 걱정 면할 일이 없는 이내 몸
- 10연: 임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개굴 큰애기
- 11연: 기차를 타고 떠나 버린 '우리 님'
- 12연: 돈 벌러 떠난 임, 죽어서 묻힌 임에 대한 그리움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경우 풍년이 찾아온 '삼천리강산'에 대한 희구가 나타나지만, 그러한 바람이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현실적 공간에서의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

며,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20세기 초 시대적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진 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경우, '밭'과 '집'이 헐리고 '신작로', '정거장'이 생긴 상황, '말깨나 하는 놈', '일깨나 하는 놈'이 고통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나)의 경우, '함흥 차(기차)'가 다니게 된 뒤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가)에는 '남산'이라는 구체적 공간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언급되고 있으며, (나)에는 '신고산'과 '구고산'을 중심으로 함흥 지역 사람들이 겪는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③ (가)에는 부드러운 허락이나 명령을 뜻하는 '-려무나',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의미인 '-세', 현재의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나다'와 같은 종결 어미가, (나)에는 '-나다' 외에도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크까', 감탄의 뜻이 수반되는 '-(로)구나', 물음을 나타내는 '-나'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다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가)와 (나)에 제시된 각 연은 서로 다른 상황이나 별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병렬적 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겪는 사건이나 저마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와 1연을 통해 '이씨의 사촌'이 임금의 친척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충성을 바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아니다. 또한 그렇게 떠난 간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1연의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를 통해 왕의 외척인 '민씨' 집안이 왕족인 '이씨' 집안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며 평평거리고 지내는 시대적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③ 2연의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는 <보기>에 제시된 사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1900년 이후에 해당 부분의 가사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2연의 '군악대 장단'은 장춘단에서 울려 퍼진 것으로, <보기>를 참고할 때, 이 부대가 신식 군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악대 장단'은 이 시기에 새로 만든 '신식 군대'를 환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2연의 '받들어 총만 한다'에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는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개혁을 한다며 ‘신식 군대’를 만들어도 결국 국권 상실을 막지 못한 당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해당 표현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에는 ‘어린아해’와 ‘영감님’이라는 두 대상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린아해는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다.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드러낸 것은 맞지만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낸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맑은 혈려서 신작로’가 되는 상황이나 ‘집은 혈려서 정거장’이 되는 상황은 과거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하여 변화하는 현실을 부각한 것이다.

② [B]는 ‘풍년이 와요’ 사이에 ‘삼천리강산에’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반복과 파격의 구조에 해당한다. ‘풍년이 와요’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염원하는 희망적 미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D]에는 ‘정든 님을 다리고 산나물을 가’는 선택과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타’는 선택이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고향에 남을지 고향을 떠날지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 것이다.

⑤ [E]에는 ‘병아리’가 ‘독수리 날뎠’ 후 사라진 상황과 ‘우리 님’이 기차를 타고 떠나간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병아리’가 사라진 상황을 활용하여 급작스럽게 ‘우리 님’을 떠나보낸 화자의 비애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12연은 ‘부령 청진 가신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화자, ‘공동묘지 가신 님’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제시된 상황에 얽매어 있는 화자가 자신의 심리를 토로하고 있으므로 장내 언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6연에서 화자는 ‘말깨나 하는 놈’, ‘일깨나 하는 놈’이 겪게 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관찰 대상들의 행위를 거리를 두고 기술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달픈 상황을 포착하고 있으므로 장외 언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10연에서 화자는 ‘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임이 자신을 떠나는 상황을 언급하고, 그로 인해 괴로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화자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장내 언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1연에서 화자는 ‘신고산’ 주변의 변화와 ‘반봇짐’을 싸는 ‘구고산 큰애기’의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구고산을 떠나기 위해 반봇짐을 싸는 것은 화자가 당면한 사상이 아니며, 해당 상황에 얽매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 언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9연의 경우, ‘이내 몸’을 통해 화자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며 ‘걱정 구름을 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므로 장내 언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전 시가 11

본문 072~073쪽

01 ⑤

02 ④

03 ⑤

### ㉠ 이달, 「습수요」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밭고랑에서 이삭을 줌은 시골 아이의 말을 인용하여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이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대 사회에 대한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비판

#### 구성

- 기: 이삭 줌은 시골 아이의 말을 들음.
- 승: 이삭 줌에 데에 어려움을 느낌.
- 전: 농민들이 교묘히 벼 베기를 함.
- 결: 관가에 벼를 몽땅 바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현실을 알게 됨.

### ㉡ 김창현, 「산민」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시이다. 백성들이 편안한 평지에서 삶의 포기하고 이웃도 없는 산골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모두 가혹한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산골에 사는 아낙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 산

골과 평지라는 두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양반이 지은 것이지만, 백성의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하던 기존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구성**

- 기(1~4행):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모습
- 승(5~8행): 산골의 고달픈 삶
- 전(9~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 결(13~16행): 관리들의 횡포 비판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을 인용하여, (나)는 ‘산골짜’에 사는 ‘부인’의 말을 인용하여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소쿠리’, (나)에서는 ‘쟁기’, ‘광주리’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벼 이삭도 주울 수 없고, (나)에서는 ‘나물’조차 캐기 어려운 백성들의 비극적인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어린애들 말’을 통해 이삭을 줍기 힘든 ‘올해’의 상황이, (나)에서는 ‘가파른 산골짜’에 사는 ‘부인’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벼’와 ‘이삭’, (나)에서 산비탈을 서성대는 ‘개와 닭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화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④ (가)의 ㉠은 ‘이삭’을 풍요롭게 줍기를 바라는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나)의 ㉡은 ‘아침’부터 ‘해가 저물도록’ 일해도 척박한 산밭의 환경 때문에 나물조차 풍족하게 얻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과 ㉡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② ㉠을 사용하는 곳은 밭으로, 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공간임을 보여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과 ㉡에는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려는 인물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⑤ (가)의 ‘올해는 ~ 관창에다 바쳤답니다’를 통해 ‘이삭’을 주워도 ㉠이 안 차는 ‘올해’ 상황에 ‘어린애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산골짜’의 궁핍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과 ㉡ 모두 세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와는 거리가 멀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D]에서는 관리들의 횡포를 피해 척박한 산골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E]의 ‘저 너머 평지’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관리들이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공간의 대비를 통해 백성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만, 관리의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이삭을 온종일 주워도 소쿠리에 차지 않는 상황이, [D]에서는 온종일 나물을 캐도 광주리에 차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② [B]에서 ‘어린애들’이 ‘벼 베는 이’에 대해 ‘숨씨가 ‘하도 좋고 비끄는 것은 주울 이삭조차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작가가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한 것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B]의 ‘벼 베는 이’는 ‘관창’에 벼를 한 톨도 남김없이 바치고 있고, [E]의 ‘산골짜에 사는’ 이는 ‘고을 관리’ 때문에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관리들이 횡포를 일삼아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C]에서 나그네를 위해 밥상을 내은 사람은 ‘부인’으로, [D]와 [E]를 통해 척박한 산골에서 땅을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일해야 하며 나물조차 충분하게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난한 형편이지만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부인의 모습은 궁핍하지만 순박한 인정을 지닌 당대 백성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 시가 12

본문 074~075쪽

01 ⑤

02 ③

03 ②

■ 이현보, 「어부단가」

■ 해제 이 작품은 맹사성의 「강호사시」, 윤선도의 「어부사시」와

함께 강호가도를 노래한 대표적인 연시조로서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어부단가」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임금과 조정을 생각하며 근심하기도 하는 화자의 모습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 한자어를 통해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훗날 고산 윤선도가 「어부단가」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전한다.

**주제** 자연을 벗어나 사는 어부의 풍류적 삶

**구성**

- 제1수: 세상사를 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
- 제2수: 속세와 단절된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
- 제3수: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
- 제4수: 평생토록 자연과 친화하며 살고 싶은 마음
- 제5수: 나랏일에 대한 걱정과 세상을 구할 현인(賢人)의 출현에 대한 기대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녹류에 고기 꿰'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날 가는 줄을 아는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일생에 시름을 잊고'에서 배를 타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너(백구)와 친화를 누리며 노는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심'을 추구하며 '일반 청의미'를 가진 화자의 모습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2수>와 <제4수> 모두 화자가 중심을 이루어서 조망한 '천심 녹수', '만첩청산', '강호'의 '월(月)', '산두'의 '한운', '수중'의 '백구' 등 주위 자연물과 그 속에 젖어 들어 일체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 <제2수>에 걸쳐 동일한 자연물이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묘사가 화자의 변화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② '청', '녹' 등이 나타난 <제3수>와 달리 <제1수>에는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3수>에서 <제4수>로 이어지며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일반 청의미', '무심', '다정'을 느끼고 있다. 결핍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충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⑤ '백구'를 '너'라고 지칭하여 인격을 부여한 <제4수>와 달리 <제5수>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03 외경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강호에 월백'은 강호(자연)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치 현실'과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정치 현실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심 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세'와 대립을 이루면서 서로 단절된 폐쇄적 공간이며 '무심'의, 즉 욕심이 없는 공간으로서 도덕적 영역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일반 청의미'는 '홍진'으로 일컬어지는 속세와는 다른, 강호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④ '장안', '북궐'과의 거리를 '천 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 사이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통해 강호와 속세의 분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어주에 누'워 있어도 잇은 틈이 없는 것을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려 떨쳐 버리는 것은 정치 현실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화자의 비타협적 결의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시

01

본문 076~078쪽

01 ①

02 ⑤

03 ③

②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해제** 이 작품은 김소월의 작품 중 현실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집도 없고 농사지를 땅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로, 일제 강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하던 당대 조선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화자가 지향하

고 있는 '보습 대일 땅'은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이 실현되는 상상의 공간이다. 시인은 이를 통해 삶의 최소 조건마저 상실된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땅을 잃은 농민의 슬픔과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

**구성**

- 1연: 화자가 꿈꾸었던 행복한 삶의 모습
- 2연: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현실
- 3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 4연: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 ㉠ 백석, 「산곡 - 함주시초 5」

**해제** 이 작품은 함경남도 함주 지방에서의 기행을 제재로 한 연작시 중 하나로, 산골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한겨울이 되면 '바스런 백성들'로 표현된 '벌들'도 '제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처럼, 자신도 '골안'에 있는 집으로 와서 호젓하게 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이 작품은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 쓰인 토속적 시어는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주제** 시골의 한적한 집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은 소망

**구성**

- 1연: 골짜기에 있는 집을 구하려 다님.
- 2연: 한겨울을 날 집을 찾아 골안으로 깊이 들어감.
- 3연: 골짜기 끝 돌농와집의 마당 풍경
- 4연: 한겨울 골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노라'와 같은 영탄적 어조의 어미를 활용하고, '있었더면!'에서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이나 화자의 현실 인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부분에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나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는 쓰이고 있지 않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별빛이 아득임'은 떠돌이 삶을 사는 이에게 희망이 아득히 멀게 느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나)의 '날이 어서 추워져서 쭉국화꽃'이 시드는 상황은 벌들이 제집에 드는 겨울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겨울이 되면 자신도 벌들처럼 골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집을 잃고 떠도는 상황에서 화자가 얻었다는 '새로운 탄식'은 <보기>와 연관 지어 볼 때 국권 상실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유랑의 과정에서 지니게 된 정한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길'은 화자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난 삶으로, '가늘은'은 그 삶에 이르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나는 나아가리라'는 괴로운 현실의 탈피라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③ 화자가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보기>로 미루어 볼 때 답답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은 화자가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고, (나)의 '이 골안'은 화자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누리하고자 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산비탈'에서 동무들이 새벽부터 김매기를 하는 상황은 유랑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개척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즐거이'는 화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삶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은 화자가 유랑하는 자신의 처지를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현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소망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은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찾은 후 편안함을 만끽하는

상황을 나타낼 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다짐과는 관련이 없다.

현대시 02

본문 079~081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③

㉠ 한용운, 「님의 침묵」

**해제**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 상황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별은 화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깨닫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생각이 역설적 표현과 경어체 문장의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구성**

- 1~4행: 임과 이별한 화자
- 5, 6행: 임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화자
- 7, 8행: 이별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화자
- 9, 10행: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화자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제** 이 작품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에게 '모란'은 단순히 하나의 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나 내면적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화자의 삶은 오로지 '모란이 피는 순간'만을 지향하며,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맞이한 봄은 지나가야 하는 봄이고, 봄이 지나가면 모란이 피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환희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봄은 찬란하기만 한 봄이 아니라 슬픔의 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 형용은 이와 같은 환희와 그 소멸로 인한 슬픔이 한데 섞인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구성**

- 1, 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3~10행: 모란을 잃은 설움
- 11, 12행: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님'이 떠나가 버린 것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나)는 '모란'의 낙화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 (나) 모두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에서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과 그리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특히 (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붓는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2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하였으므로, 화자는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부재한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노래'와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병치되어 화자가 느끼고 있는 회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푸른 산빛'의 이미지는 화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 이전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가 '깨치고'라는 표현을 통해 전환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굳고 빛나든'은 화자와 '님' 사이의 맹세를 수식하는 긍정적 이미지이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차디찬'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전환은 곧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③ '향기로운'과 '꽃다운'은 각각 '님의 말소리'와 '님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님'이 부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새 희망'을 갖게 되며 이를 '들어부었습니다'라는 시어가 지닌 역동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곧 '님'이 부재한 부정적 상황

에 낙담하지 않고 ‘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강렬하게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님’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구절로,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님’과 화자 사이의 맹세를 ‘황금의 꽃같이’와 같이 직유법을 통해 표현한 후, ‘티끌이 되어서’, ‘미풍에 날아갔습니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러한 맹세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의 ‘그러나’는 역접의 의미를 지닌 접속어이다. 또 ㉢은 ‘님’이 떠나가 슬픔에 빠져 있던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행동을 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④ ㉣에는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보람인 모란이 떨어진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시구가 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보람인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염려’는, 화자가 세상사의 섭리에 따라 언젠가는 ‘님’과의 사랑도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나)의 화자가 ‘삼백예순 날’ ‘우’는 행위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수는 있지만,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태이지만,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님’과 재회할 것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갖게 된 새로운 인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봄에 피는 ‘모란’을 ‘뺨쳐오르던 내 보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란이 뚝뚝 떨어지자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기고 자신의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봄을, 모란이 핀 아름다운 계절에서 모란이 떨어진 슬픔의 계절로 인식하며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님’이 떠나 버린 슬픈 상황에서,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새 희망’을 발견하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모란의 개화로 인한 ‘보람’이 낙화를 통해 ‘설움’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에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님’이 떠나 버린 상황이지만, 화자는 여전히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것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다. 또 (나)의 화자는 ‘모란’이 떨어져 버린 슬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현대시

03

본문 082~084쪽

01 ④

02 ⑤

03 ⑤

#### ㉠ 이육사, 「황혼」

**해제** 이 작품은 ‘골방’에서 맞이들인 ‘황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과 타자 지향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황혼’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황혼’의 품 안에 인간, 소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소외된 존재에 대한 화자의 포용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 구성

- 1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
- 2연: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 3, 4연: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 모습
- 5연: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해제** 이 작품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하며 하숙방에서 쓴 시로,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떠나 방향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 시인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밤비’로 연결지어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현실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을 거친 시인은 밝은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결심을 밝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

는 현실적 자아와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의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

**구성**

- 1연: 타국에서의 슬픈 현실 인식
- 2연: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 인식
- 3, 4연: 조국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현재 삶에 대한 회의
- 5, 6연: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감
- 7연: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인식
- 8연: 현실 재인식
- 9, 10연: 현실 극복 의지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화자는 ‘황혼’의 시간을 배경으로 고독한 인간의 삶을 깨닫고 소외된 존재를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인식한 후,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1연에서 ‘남의 나라’, 9연에서 ‘최후의 나’, 10연에서 ‘최초의 악수’와 같이 명사형으로 끝맺고 있으나, (가)는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에서는 ‘부드러운’을 통해 ‘황혼’의 긍정적인 속성을 축약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포근히’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학비 봉투’에 대한 느낌을 제시하고 있으나, 축약적 이미지로 자연물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에서는 1연의 ‘육 첩 방은 남의 나라’를 8연에서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암울한 현실을 재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황혼’을 청자로 설정하여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에서는 고백적 어조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을 뿐,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화자가 조국의 현실과 괴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를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화자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혼을 마음껏 느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후 황혼에 ‘뜨거운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은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㉒은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의지할 곳 없이 떨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표현이다. 화자는 이들에게 ‘입술을 보내’고 싶다고 표현하며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은 골방 안까지 비친 황혼을 보며 화자가 느낀 아늑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화자가 고독했던 자신의 골방을 아늑하다고 느낀 이유는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황혼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④ ㉔은 화자가 어린 때 동무들을 모두 잃은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동무들이 있던 과거와 동무들을 모두 잃은 현재 상황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나고 있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화자가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걸게 하겠지’라고 말한 것은, 다시 찾아올 ‘황혼’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나)에서 화자가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마련한 학비로 대학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자신의 모습을 언급한 것은 조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일상적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은 소외된 존재인 별들, 수녀들, 수인들 등을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최초의 악수’를 하는 행위는 무기력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화자가 ‘인간’은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외로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골방’에 있는 자신의 고독한 삶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나)에서 화자가 ‘육 첩 방’을 ‘밤비가 속살거리’는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타국에서의 괴로운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③ (가)에서 ‘골방’에 있는 화자가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고립된 공간으로서의 방의 이미지가 아닌,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육 첩 방’에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며 자신이 소망

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화자가 '골방'에서 '고비 사막'의 '행상대', '아프리카 녹음 속'의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하며, 자신의 삶을 노래한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대시

04

본문 085~086쪽

01 ⑤

02 ④

03 ⑤

### ① 조지훈, 「낙화」

**해제** 이 작품은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살아가는 화자가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동틀 무렵, 화자는 미닫이창에 은은히 붉게 비치는 꽃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꽃이 떨어지면서 드러내는 은은한 붉은빛은, 세상을 피해 꽃과 함께 살아가는 화자의 서글픔이 담겨 있는 빛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내면 상태로 시선을 돌려,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상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주제** 낙화에서 느끼는 삶의 비애

#### 구성

- 1~3연: 꽃이 지는 적막한 분위기
- 4~6연: 방 안에서 느끼는 낙화의 아름다움
- 7~9연: 꽃이 지는 아침에 느끼는 서글픔

### ④ 김현승, 「플라타너스」

**해제** 이 작품은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반려(伴侶)로 삼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예찬하며, 그러한 플라타너스를 외로운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시어를 구사하여 시상을 압축하고 있으며, 리듬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시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 구성

- 1연: 꿈을 가진 존재인 플라타너스
- 2연: 넉넉한 사랑을 주는 플라타너스
- 3연: 외로운 '나'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 4연: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 플라타너스
- 5연: 영원한 반려자로 삼고 싶은 플라타너스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낙화하는 모습에 대한 관찰 내용과 그와 관련해 느낀 점을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화자가 플라타너스를 '너'라고 칭하며 플라타너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가)의 '꽃이 ~ 탓하라'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③ (가)에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쓰였지만, (나)에는 쓰이지 않았다.
- ④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았고, 화자의 낙관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화자가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신이 아니어서 플라타너스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결국 자기 존재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이얀 미닫이가 / 우런 붉어라.'는 창문에 비치는 낙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는 낙화를 보며 화자가 느낀 서글픔을 표현한 것이다.
- ③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는 플라타너스가 그늘을 드리워 쉼터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타인에 대한 플라타너스의 넉넉한 사랑과 포용력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은 플라타너스와 이웃하여 소통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서 '검은 흙'은 영혼의 안식처나 죽음을 나타낸다.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라고 묻은 것은 자신과 플라타너스와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 것으로, 둘의 인연이 결국에는 끊어질 것이라는 절망감이 담겨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낙화라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산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여 새벽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낙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이라는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플라타너스가 젖어 있는 '파아란 하늘'은 꿈이나 이상을 상징한다.

현대시 05

본문 087~08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 박두진, 「도봉」

**해제** 이 작품은 가을 도봉산을 배경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 무렵부터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까지의 시간 변화를 바탕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화자는 '가을 산'을 통해 고독과 적막, 쓸쓸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주제** 적막한 가을 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과 그리움

구성

- 1~3연: 가을 산의 적막한 정경
- 4, 5연: 적막한 산에서 느끼는 '나'의 외로움
- 6~8연: 생과 사랑에 대한 '나'의 자각
- 9, 10연: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해제** 이 작품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사람'은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여둠을 찢고 피어날 대상으로, '그 사람'의 부재는 곧 화자가 경험하는 슬픔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곳저곳을 헤매며 '그 사람'을 찾는 노력은 모두 무위에 그치고 화자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주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구성

- 1~5행: 보이지 않는 '그 사람'
- 6~8행: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
- 9~11행: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

- 12~15행: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 사람'
- 16~20행: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울림', '밤'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적막한 산의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고독감과 쓸쓸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나)는 '울어', '칙칙한'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암울하고 부정적인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나) 모두에서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 (나)에서는 모두 화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의 10연에 의문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또 (나)에서는 의문의 방식이 활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에서 '호오이 호오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또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자연물인 '산'이 운다는 표현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의인법을 통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을 산'과 '어스름'은 각각 자연의 왕성한 생명 활동이 잦아드는 공간과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식하고 있는 '홀로 앓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잘 드러나는 시·공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산에서 울림이 빈 골을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은 산이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를 통해 느껴지는 공허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밤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대'가 있는 곳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으므로, ㉠은 '그대'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의 '저문 들길'에서 '저문'이라는 시점은 짐승들도 제집을 찾

아가는 시간으로, 부재한 '그 사람'이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㉔은 해가 저무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가)의 9연에서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 도이 /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라고 표현했으므로 '그대'는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그 사람'은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가 끊임없이 찾고 있는 존재로,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 저 남산 꽃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가)의 '그대'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대상으로, '그대'의 부재는 화자가 슬픔을 느끼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그 사람'은 화자가 애타게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므로, '그 사람'을 화자의 그리움을 위안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㉒ (가)의 '그대'는 화자가 암울한 현실을 견디어 내는 이유가 되는 대상일 뿐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또 (나)의 '그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는 대상으로, (나)에서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㉓ (가)의 화자는 '그대'가 '나도 모르는 / 어느 마을에서 쉬노뇨'라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그대'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의 '그 사람'은 화자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므로 역시 화자가 '그 사람'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㉕ (가)에서 화자는 가을 산에서 공허하게 외치기도 하고, '그대'를 위해 밤이라는 암울한 시간을 견디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가 '그대'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나)에서 화자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고 있으므로, (나)의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가)의 화자는 '호오이 호오이'라고 누군가를 불러 보았지만 그 울림이 빈 골 골을 되돌아와 화자의 고독감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호오이 호오이'를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가 드러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가)에서는 '산새'도 날아와 울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적막하고 쓸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 '산새'와 '구름'은 <보기>에서 언급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㉒ (나)에서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을 찢으며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곧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종식시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꽃', '남산 꽃'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㉓ <보기>에서, (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관련하여 (나)는 1980년대라는 암울한 현실과 관련하여 작가가 느끼는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 (나)의 화자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밤'과 '칙칙한 어둠'은 모두 화자가 마주한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㉕ (가)의 '오직', '한갓'이라는 시어는 생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부사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의 '언젠가, 아 언젠가는'이라는 시구에는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대시

06

본문 090~092쪽

01 ㉔

02 ㉔

03 ㉕

#### ㉔ 신동엽, 「항아」

**해제** 195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현재와 대조되는 과거의 순수한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현대 문명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으로 형상화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의 병폐가 없었던 순수했던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그려 내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세계인 과거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항아'라는 특정한 청자를 호명하며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

#### 구성

- 1연: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기를 소망함.
- 2연: 행복했던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

- 3연: 전설 같은 풍속이 있는 옛날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 4연: 문명에 병들지 않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 5연: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④ 김관식, 「폐가에 부쳐」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폐허로 변해 버린 농촌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외딴집에 살다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집주인의 사연을 통해 농촌이 몰락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퇴락한 폐가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자연물에 감정 이입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폐허가 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구성**

- 1연: 폐가의 모습
- 2연: 폐가가 된 이유를 추측함.
- 3연: 폐가를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3연과 5연에서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과거의 삶이 지닌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특정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향아’와 같이 청자를 호명하여 청자와 화자가 공유한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서는 ‘돌아가자’, ‘고만 내자’와 같이 청유형의 문장 표현을 사용하여 ‘오래지 않은 옛날’의 순수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청유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③ (나)에서 ‘쓰르라미만 쓰르라리게 울고 있더라’를 통해 폐가를 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자연물인 ‘쓰르라미’에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수수려거리’와 ‘결쪽스런 웃음들’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들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나)에서는 ‘저 혼자 재재거리’는 ‘참새 한 마리’와 ‘귀창 터지’게 우는 ‘쓰르라미’의 모습을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여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찌는 말복 철 저녁 셋째’에서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폐가가 된 ‘외딴집’을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답답함의 정서가 계절과 시간적 배경과 어우러져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이던’에서 시간의 변화가 드러난다. 이는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회올리는’은 상승적 이미지가 활용된 표현으로, 인간에게 ‘허울’만 가져와 순수함을 잃게 한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믿음의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우연히 길을 가다 보게 된 폐가를 둘러보는 화자의 모습을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폐가에 대한 화자의 오랜 인연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에서 현재형 진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폐가의 황폐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수수발 사이’의 ‘웃음들’과 ‘환한 얼굴’은 고향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의 대추나무에 날아든 ‘참새 한 마리’는 주인이 없는 폐가의 모습을 부각하는 대상이다. 이를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향아’가 가야 할 ‘고향’은 허울로 가득 찬 현실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인간다웠던 과거의 시절이다. 화자는 이를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표현하며 과거의 고향에서의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는 모습은, 명절날 함께 모여 평화로운 삶을 누렸던 공동체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전설 같은 풍속’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③ (나)에서 비어 있는 ‘외딴집’의 ‘주인’이 ‘소식이 없’다는 것은 ‘먹고살’기 위해, 다시 말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회지’로 떠난 농촌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고향이 더 이상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가)에서 ‘땀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넷물 가’는 ‘구슬’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과거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나)에서 ‘구렁 난 지붕’에 ‘풀 버섯’이 같이 자라는 모습은, 먹고살기가 어려워져 사람들이 떠난 후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의미한다.

## 현대시

07

본문 093~095쪽

01 ①

02 ③

03 ①

## ①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해제** 이 작품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문명과 도시 개발에 의한 자연 파괴로 인해 보금자리를 상실한 채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성북동 산에까지 문명이 침투하면서 본래 그곳에 살던 비둘기는 보금자리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다. 결국 비둘기는 가는 곳마다 인간 문명에 쫓기며 인간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누리던 옛날을 그리워하게 된다. 화자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도시 문명의 부작용과 해악을 절제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주제**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구성**

- 1연: 자연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
- 2연: 인간과 어울려 살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 3연: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잃어버린 비둘기

## ④ 신경림, 「길」

**해제** 이 작품은 밖으로 나 있는 보이는 길만 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내면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사람들’은 오만하여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만 안다고 여기는 이들로,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자세로 길을 바라본다. 하지만 ‘길’은 순순히 그런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고 인간의 오만이 그릇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길’을 의인화하여 인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구성**

- 1~6행: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길
- 7~15행: 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
- 16~21행: 깨달음을 얻은 후 겸손해진 사람들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등을 통해 과거와 달리 비참한 신세가 된 비둘기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시적 대상인 ‘길’을 바라보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과거와 달라진 ‘길’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에는 길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새파란’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쓰였지만,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의 대비가 쓰이지 않았고, 애상적 분위기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나)의 ‘사람들은 ~ 거라고 말한다’에서 길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청각적 심상, (나)에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만,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③로 볼 때, ‘돌 깨는 산울림’은 도시 개발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와 ‘가슴에 금이 갔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도시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나타낼 뿐, 그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①로 볼 때, ‘번지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 졌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의 일부인 비둘기가 갈 곳이 없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②로 볼 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친다는 것은 ‘포성’이라는 인공적 소재를 활용해 현대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④로 볼 때,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은 자신의 원래 삶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킨다는 것은 이전의 보금자리에서 누렸던 삶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⑤로 볼 때, ‘사랑과 평화의 새’였던 비둘기가 이제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사랑과 평화 등의 정신보다 물질만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인생의 방향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닌 이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이다.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 예컨대 실패의 경험이 인간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벼랑이나 큰물로 인해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 사람들에게 슬기를 가르친다고 여긴다.

③ ㉢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해서 제 몸을 꽃으로 수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땀을 식히게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즉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다.

④ ㉣은 길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⑤ ㉥은 ‘길의 뜻’, 곧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자신의 밖에만 있는 줄 안다. 즉 다양한 세상 경험이 자신에게 세상 사는 슬기와 이치를 알려 준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반면에 ㉦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밖이 아니라 안, 곧 내면을 성찰하는 데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현대시

08

본문 096~098쪽

01 ②

02 ②

03 ④

2) 이성부, 「누룩」

**해제**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 올라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시인은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려 하였다.

**주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중의 저력

구성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 5연: 발효하여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해제** 이 작품은 ‘얼어붙은 강물’로 표현된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서, 얼은 강물이 녹아 물이 되어 자연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민중이 서서히 생명력을 회복하고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기대가 형상화되어 있다. ‘얼음’, ‘강’, ‘물’, ‘풀잎’과 같은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아희들’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억압적 정치 현실을 극복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작가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의 극복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

구성

- 1~4행: 얼은 물을 깨는 행위
- 5, 6행: 스스로 녹아 소리를 이루는 강물
- 7~10행: 얼은 물이 녹아 회복되는 자연의 생명력
- 11~15행: 얼은 물을 깨며 강물이 흐르기를 고대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화자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느냐’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며 ‘누룩’이 지닌 다양한 속성이 부각되고 있다.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의인법이 활용되고 있다. (가)에서는 ‘누룩’을 의인화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친근한 정서가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물’을 의인화하여, 녹은 ‘물’이 ‘죽은 땅’과 ‘풀잎’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느냐’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나)는 ‘아희들아’라는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을 촉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에서는 얼었던 ‘물’이 녹아 흐르는 것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물’은 누룩을 발효시켜 끓게 만듦으로써 다른 대상들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나)의 ‘물’은 물소리를 통해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풀잎에도 울어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물'은 '누룩'이 발효되는 것을 돕는 대상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다. (나)의 '물' 또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다른 대상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능을 할 뿐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③ (가), (나)에서 자연물인 '물'이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물'이 지닌 영속성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의 '물'은 누룩과 만나 덩달아 끓어오르지만, 그 자체가 역동적 이미지를 가진 대상은 아니다. (나)의 '물'은 얼은 물이 흐르며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는 기능은 하지만, 역동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은 아니다.
- ⑤ (나)의 '물'은 겨울에 얼은 물이 녹아 흐른다는 측면에서 계절감을 일부 드러낸다고 할 수 있지만, (가)의 '물'은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덩달아서'는 '물'과 '누룩'이 함께 끓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나)의 '또한'은 물소리가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풀잎에도 우는 결과를 나타날 때 사용된 시어라는 점에서 민중의 연대 의식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덩달아서'와 '또한'은 민중의 수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누룩'은 무기력하게 나자빠져 있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며, 스스로 부서지고 삭는 발효의 과정을 거치며 물과 어우러져 뜨겁게 끓어오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희생의 결과 기쁨과 해 솟는 얼굴을 만들어 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창작 배경이 억압적 정치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룩은 곧 민중의 일부이며 그런 의미에서 누룩이 삭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중의 자기희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나)가 억압적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의 '얼은 물'은 이러한 현실을 나타낸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얼은 물이 녹아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풀잎에도 운다'는 것은 곧 억압적 정치 현실 속에 있던 민중들이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억압적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가)의 '엄동설한'과 (나)의 '얼은 물'은 모두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민중이 겪고 있던 압박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다른 대상과 어울려 뜨겁게 끓어오르는 '누룩'은 곧 민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누룩이 발효되며 '냄

새'가 '퍼지'는 것은 이러한 뜨거운 민중의 기운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얼은 물'은 억압적 정치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얼은 물'에서 '청청한 / 소리가 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에는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시**

09

본문 099~100쪽

01 ④

02 ⑤

03 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해제** 이 작품은 연약한 나비가 바다 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좌절을 시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나비의 순진함과 현실의 냉혹함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하 현실에서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비애감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구성**

- 1연: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 2연: 바다로 내려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나비
- 3연: 냉혹한 현실 속에 좌절된 나비의 꿈

**㉡ 김광규, 「안개의 나라」**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개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허위로 가리는 당대 정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완전히 극복해 낼 수 없는 상황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허위로 가득 찬 현실과 현실 순응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당위가 들어 있다.

**주제**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구성**

- 1~9행: 안개의 나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 10~14행: 안개의 나라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
- 15~17행: 안개의 나라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의 모습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는 '파란'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 세계

에 좌절하는, 순수한 나비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나)에서는 ‘하얀’색의 이미지를 통해 안개의 나라와 그곳에 사는 토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는 ‘안개의 나라에는’과 ‘안개의 나라에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와 ‘보려고 하지 말고’ 등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안개의 나라’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무섭지 않다’, ‘시리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통해 순수한 ‘나비’의 꿈이 좌절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보여 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통해 ‘안개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삼월달’을 통해 ‘나비’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을 수 없다.

⑤ (가)의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에서 시각의 축약화, 즉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어 좌절한 ‘나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나비’가 ‘바다’로 내려간 이유는 바다가 자신이 바라는 ‘청무우밭’과 같은 곳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현실을 모르는 ‘나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언제나 안개가 짙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볼 수 없는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듣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은 ‘나비’의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기 전, 곧 시련을 겪기 전의 상황이다. 또한 (나)에서 ㉡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가)에서 ㉠은 ‘어린 날개’를 지닌 ‘나비’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에서 ㉡은 ‘안개의 나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관적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에서 ㉠은 ‘바다’라는 새로운 공간을 ‘청무우밭’으로 착각하는 ‘나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를 자연과 일체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은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자연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④ (가)에서 ㉠을 통해 ‘나비’가 ‘바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은 ‘나비’에게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은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귀’가 자꾸 커지는 것은 통제된 사회에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귀’는 ‘하얀 안개의 귀’로 연결됨으로써,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청무우밭’으로 착각하는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바다’를 비행하지만 결국 ‘물결’에 ‘어린 날개’가 젖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는 근대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지녔던 일제 강점하 지식인들의 모습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② ‘물결’에 ‘어린 날개’가 젖은 ‘나비’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서글픔을 느낀다. 이는 근대 문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지식인들이 일제 강점하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깨닫고 좌절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안개의 나라’에 대해 ‘언제나 안개가 짙’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은,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여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안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살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현대시 10

본문 101~103쪽

01 ④

02 ⑤

03 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해제** 이 작품은 도시에서 사는 ‘나’와 농촌에서 사는 할머니의 대조적 삶의 자세를 참깨를 터는 상황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조금씩 힘을 주어 참깨를 터는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술술 막대질을 하여 참깨를 터는 할머니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는 인물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꾸중하는 할머니의 말에는 성급해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주제** 참깨를 털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순리에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

#### 구성

- 1~4행: 할머니와 달리 힘을 다해 참깨를 터는 '나'
- 5~11행: 한 번에 많은 양의 참깨를 털며 쾌감을 느끼는 '나'
- 12~16행: '나'의 행동에 대한 할머니의 꾸중

#### 4 장석남, 「배를 매며」

**해제** 이 작품은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과 인연의 의미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배를 밧줄로 매는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사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사랑이란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시작되며, 배를 매 때 배를 둘러싼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이 사랑 또한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제**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

#### 구성

- 1연: 배를 매어 본 경험
- 2연: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 사랑
- 3연: 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발견
- 4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 5연: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쇠아쇠아'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신나게 참깨를 터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나)는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갑자기 사랑이 찾아오는 모습을 밧줄이 날아와 배가 항구에 닿는 상황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밭 귀퉁이'와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할머니와 화자의 인식을 대비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도 '부둣가'라는 공간이 제시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는 가상의 상황이 아닌 체험을 통한 자기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기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의인법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는 할머니와 '나'의 삶의 방식이 대조되어 나타나지만, (나)에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것들로, 배를 매면 이것들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사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임을 드러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참깨를 털며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을 맛보았는데, 이는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힘을 주어 참깨를 내려친 것은 큰 결실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참깨를 얻기 위해 힘을 주어 참깨를 털다 보면 모가지가 부서져 정작 참깨를 수확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사랑을 배에 빗대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등 뒤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이 갑자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④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된다는 것은, 사랑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성격을 지녔음을 표현한 것이다.

##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빛'은 애정과 행복을 의미하며 배가 '울렁이'는 것은 사랑의 설렘과 떨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태로 배가 '온종일' 떠 있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들떠 있는 상태가 지속됨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를 '젊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할머니에 비해 삶의 지혜가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② '연이어'는 '한 번' 참깨를 내려쳤을 때의 즐거움을 계속 경험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천천히'는 '조용히'와 더불어 사랑이 성급하지 않고 은밀하게 시작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호젓한'은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의 쓸쓸한 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현대시

11

본문 104~106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 문정희, 「이별 이후」

**해제** 이 작품은 이별로 인한 아픔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임이 잊혀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너'와 이별한 열흘을 마치 십 년을 지내 온 것처럼 여기며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고 언젠가는 이러한 고통과 열정의 시간마저 망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고통과 안타까움

**구성**

- 1연: 이별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
- 2연: 일상 속에서 잊혀 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
- 3연: 사랑과 이별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4연: 이별한 임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
- 5, 6연: 무덤덤하게 잊혀 가는 사랑에 대한 슬픔

㉡ 정호승, 「강변역에서」

**해제** 이 작품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이후,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며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강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너'와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내밀한 심리와 간절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열망

**구성**

- 1~8행: 강변역에서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하루
- 9~13행: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이유
- 14~20행: '너'와의 재회에 대한 열망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슬픈 것은 ~ 일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에서는 '너를 기다리다가'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이별한 화자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한 시상 전개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 (나) 모두에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 (나) 모두에서 화자는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 뿐, 특

별한 심리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가), (나) 모두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에서 화자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화자가 열망하고 있는 '너'와의 재회를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비록 '너'와의 이별이라는 아픔의 기억일지라도 '너'와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화자의 내밀한 심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은 이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이별 이후 지나간 열흘의 시간이 화자의 피의 달력으로 무려 십 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화자는 이별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에서 마지막 날처럼 지나간 오늘 하루는 이별한 '너'를 기다리는 시간으로서, 이러한 기다림은 이별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다림 속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 그리움, 만남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이별 후에도 '너'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자의 고통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강변의 불이 꺼져 버린 늦은 시각에도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자의 행위는 이별을 수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며 재회를 꿈꾸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너'와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너'와의 재회를 당위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별의 아픔도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아련한 추억으로 잊혀 가는 것임을 슬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의 화자가 깨닫지 못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이별의 아픔들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흘러가 잊혀 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⑤ (가)에서 화자는 사랑의 모습이 인생의 여러 사건처럼 다양

한 모습이나 감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잊혀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가)에서 화자는 '너'에 대한 사랑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 망각되며, 그 아픔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가 버린 사랑도 인생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과,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가)의 관점에서 ㉓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는 '우리가 물결처럼 /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너'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언젠가 너와 내가' 서로 사랑했던 뜨거움을 잊게 될 것이므로 슬프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네가 없는데도'와 '언젠가'는 이별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시간에 '너'가 점점 잊혀 가는 것이 슬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나)에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너'와 함께했던 추억 속에서 환기된 것이며, 이러한 추억의 환기는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열흘'과 '십 년'은 화자가 '너'와 이별한 이후 경과한 고 통스러운 시간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미련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화자에게 '첫눈 내리는 강변역'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이자 이별한 사람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이별한 '너와 내가' 사랑했던 상대와 과거를 잊게 될 것이므로 슬프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너와 나'의 이별 상황이 극복되지 않은 채 지속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너'에 대한 한 없는 기다림을 통해 '너'와 재회함으로써 사랑을 회복하고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㉓ 김수영, 「파발 가에서」

**해제** 이 시의 화자는 붉은 파발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서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 비유와 역설의 표현 방식,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지

##### 구성

- 1연: 묵은 사랑을 잃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 2연: 묵은 사랑의 힘을 떨치고자 하는 의지
- 3연: 묵은 사랑에 대한 반성과 극복 의지

#### ㉔ 김혜순, 「별을 굶다」

**해제** 이 시의 화자는 붐비는 지하철역 안에서 보게 된 수많은 사람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을 깨닫는다. 이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면과 내면을 대조하고 이들의 내면을 '불가마', '뜨거운 심장'에 빗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

##### 구성

- 1연: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침.
- 2연: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감추어진 힘을 느낌.
- 3연: 사람들의 열정은 조물주의 능력과 상관없다고 생각함.
- 4, 5연: 사람들의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달음.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떨쳐 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시적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1~3연에서 각각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와 같은 명령문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나)의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에서는 의문문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내면에 있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얻는다는 것'과 '잃는 것'에서, (나)에서는 '몸속'과 '밖', '하늘'과 '땅속'에서 대조되는 시어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에서는 사람들의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버려야 할 낡은 가치를 '잃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

현대시

12

본문 107~109쪽

01 ②

02 ④

03 ④

를 ‘얻는’ 것에 비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삶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에 빗대어 사람들의 열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이 ~듯 ~때 ~을 보아라’의 문장 구조가, (나)에서는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나 보다’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며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는 ㉠에 있는 지하철역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걸보기에는 지쳐 보이나, 그들의 ㉡에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존재하는 ‘그분’은 사람들의 ‘운명’을 만든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이 땅속까지 닿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②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을 통해 ㉠은 ㉡과 연결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땅속은 너무나 깊어 /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를 통해 ㉠은 ㉡에 비해 운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⑤ 화자는 ㉡에 대해 ㉠에 있는 ‘뜨거움’, 즉 사람들의 열정을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무표정한 걸모습과 달리 ‘몸속’에 ‘뜨거움’, 즉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사람들의 걸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목은 사랑이 / 벗겨질 때’ ‘푸른 새싹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파발의 새싹처럼 기존의 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얻는다는 것’과 ‘잃는 것’을 등가(等價)로 표현한 것은, ‘목은 사랑’과도 같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가)의 3연에서 ‘목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삶을 반성하면서도 과거의 것에 대한 미

련을 떨쳐 내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화자가 변화의 과정에서 겪은 내적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5연에서 화자가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라고 추측한 것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운 것으로,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고 ‘깊은 땅속을 / 밀물져 가게 하는 힘’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고전 산문 01

본문 110~113쪽

01 ②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해제** 이 글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주몽 신화」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로,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북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천손 하강 모티프와, 남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난생 모티프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 준다. 또한 주몽의 삶은 신이한 탄생과 출중한 능력, 어린 시절의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위업 성취라는,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띠고 있다.

**주제**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

**전체 줄거리** 부여의 왕인 해부루가 산천에 제사를 지낸 뒤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한 아들을 얻어 금와라 이름 짓고 태자로 삼았다. 후에 해부루는 재상 아란불을 통해 하늘의 명을 듣고 도읍을 옮기고 그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잇는다. 한편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는 정을 통하고, 집에서 쫓겨난 유화는 우발수에서 금와에게 발견된다. 금와가 유화를 별궁에 가두자 유화는 햇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고, 이 알에서 한 새내아가 태어난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금와의 아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주몽은 벗 세 사람과 함께 부여를 탈출한다. 이후 졸본에 이른 주몽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한다. 이웃해 있던 말갈을 굴복시킨 주몽은 비류국의 왕인 송양이 항복 요구에 맞서 활쏘기에서 승리를 거둔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송양은 주몽에게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

다. 주몽은 그 말을 분하게 여겨 송양과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송양과 기예를 겨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송양이 두 나라의 존속 기간 차이를 언급하면서 건넨 말이 주몽의 반감을 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란불이 도움을 옮길 것을 권한 대상은 금와가 아니라 해부루이다.
- ③ 유화가 낳은 알을 버리거나 깨뜨리려 한 것은 해부루가 아니라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른 금와이다.
- ④ 주몽은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봐 말갈을 물리친 것이 지 그들과 손을 잡고 고구려의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
- ⑤ 금와의 맏아들 대소는 주몽을 견제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 02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한(漢)이나 ‘신라’ 같은 ‘주변 국가’들을 언급한 것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시기가 언제쯤인지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방에서 들고 와서 따르는 자’는 주몽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볼 수 있듯이 포유류인 인간이 앞에서 난다는 것은 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난생(卵生)’ 모티프로, 영웅적 존재의 ‘신이 한 탄생’에 해당한다.
- ② ㉢에서 주몽은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고, 쓰는 화살은 백발백중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비범한 능력’을 갖춘 것을 보여 준다.
- ③ ㉣은 대소가 ‘후환’을 두려워하여 주몽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이는 주몽이 봉착할 ‘시련’과 관련이 있다.
- ④ ㉤에서 주몽은 자신이 아버지 쪽으로는 천상의 신성한 존재인 천제와, 어머니 쪽으로는 지상의 신성한 존재인 물의 신 하백과 혈연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영웅적 존재의 ‘고귀한 혈통’과 관련이 깊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B]에서 주몽이 어머니에게 ‘나는 천제의 손(孫)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먹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주

몽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에서 주몽은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A]와 달리 주몽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머니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A]에는 단순히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았다는 진술만 있다. 그러나 [B]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몽이 준마를 알아보게 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서 어머니는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B]에는 이처럼 어머니가 주몽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일러 주며 도피를 권유하는 부분이 없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주몽은 날랜 말을 아위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왕으로부터 그 말을 받는다.

### 고전 산문 02

본문 114~117쪽

01 ④

02 ②

03 ②

#### ■ 작자 미상, 「용소와 며느리바위」 (김용규 구술)

**해제**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쇠뿔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구연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용소’라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 설화의 하나로, 이러한 설화에는 대개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 이 설화의 도승은 중이나 거지로 변이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아내·하녀로 변이되기도 한다. 권선징악이라는 교훈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 받는다. 고전 소설 「옹고집전」의 근원 설화로 보기도 한다.

**주제** 악행을 일삼던 욕심 많은 장자에 대한 징치, 인과응보

**전체 줄거리** 옛날 지금의 용소 자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장재 처지가 살았다. 장재 처지는 한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자 쇠뿔을 퍼 주는데,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였다. 도승은 며느리에게 산으로 도망치되,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일러 주었는데, 며느리는 도승이 말한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바위가 된다. 장재 처지의 집은 용소라는 깊은 연못으로 변한다.

01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건의 발생 순서를 고려할 때, ㉠은 구연자가 머느리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했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구연자가 전설을 구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거나 머리에 떠올린 내용부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연자가 ㉡과 관련된 이야기를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는 알 수 없으며, ㉢이 전체를 요약한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연자는 ㉠에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두고 ‘그 전설’, ‘옛날 옛적 얘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당 이야기가 어떠한 설화 유형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구연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그 불타산은’이라는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라는 표현 또한 ‘절’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서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이렇게 어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채록되는 것은 구연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구연자의 실수나 채록자의 오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에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과 같이 오늘날 더 많이 알려진 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익숙한 도구를 언급하여 이해를 높여 주려는 구연자의 배려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는 설화를 구연하고 채록하고 있는 장소를 언급한 것이다. 구연자가 청자와 함께 ‘놀이터’에 있는 상황과 청자가 놀이터의 크기를 바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의 크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장재 침지네 그 집’은 ‘용소’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전설에서 ‘용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공간적 배경이다. ‘장재 침지네 그 집’은 증거물이 아니며, ‘용소’라는 증거물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허구적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전설은 증거물이 없어지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설화가 아니므로 ‘인과성’을 표지로 삼을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용소’라는 증거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설화이므로, 담화 구조 속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가 생겨난 과정을 증명하는 ‘증명성’을 표지로 삼아 이 전설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유일성’은 특정 증거물에 새로운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특성이다. 만약 이 전설 속의 ‘용소’가 다른 연못들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일성’을 표지로 삼아 전설을 해석해 볼 수 있다.

④ ‘환기성’은 증거물의 성격을 활용하여 특정한 교훈이나 가치관을 환기하는 데 활용되는지를 따지는 지표이다. 이 전설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으므로 ‘환기성’을 표지로 삼아 해석할 수 있다.

⑤ ‘강조성’은 전설의 담화 구조가 신이하거나 영험한 사건임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지표이다. 이 전설의 증거물인 ‘용소’는 신이하거나 영험한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강조성’을 표지로 삼아 해석할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머느리는 선한 품성을 지닌 인물로서 도승이 장재 침지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 도피처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 세계’로 갈 기회를 얻고 있지만, 호기심이나 놀람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금기를 어기고 결국 바위가 되고 만다.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를 통해 인간이 금기를 어겼을 때 겪게 되는 비극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물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기 힘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한계나 인간이 지닌 본성 등을 환기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구성’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니므로, 예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머느리가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본성만을 따르려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는 머느리가 도피처로서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 탐욕’을 뛰어넘으려는 머느리의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가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 생겨난 것은 아니다. 또한 머느리가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위가 된 것도 아니다.

### ■ 이규보, 「국선생전」

**해제**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문이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 문학 양식이다. 주인공 국성을 통해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임금을 잘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자칫 방자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지식들에 대한 탄핵 상소로 시련을 겪은 국성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을 드러내며 마무리되는 「국선전」과 차이를 보인다.

**주제**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처신 경계

**전체 줄거리** 국성은 주천군 사람으로 어려서 서막의 사랑을 받았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깊은 국량을 지니고 있어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임금이 국성의 명성을 듣고 총애하여 국자재주와 예의사를 겸하게 하였다. 임금의 총애가 깊어지자 국성의 아들들이 방자하게 굴다가 모영의 탄핵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성의 아들들은 죽고 국성은 서인이 되었다. 이후 국성은 임금의 명을 받아 제고울과 격고울 사이에 떼로 일어난 도적을 토벌하고 그 공으로 상동후에 봉해졌다. 그 후 국성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 천수를 마쳤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아버지인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독우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먼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써 농사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여 살았다.’라고 했고,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으며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국성의 먼 조상이 주천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다고 했으므로 국성의 증조부가 온 땅으로 옮겨서 한 집안을 이루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라고 했으므로 국성의 친구였던 치이자가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증조부에 관하여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겼다고 했으므로 국성의 조부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일약 발탁’한 성이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버가 받는 총애를 밟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다는 탄핵을 받고 성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흥을 돋우기 위한 술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성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성과 성의 아들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탄핵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이 중요한 행사를 망쳤기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라는 것은 임금이 술을 늘 곁에 두었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므로, 술을 마시고 거만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라는 말을 통해 치이자는 술을 담는 자루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 고울과 격고울의 사이에 도적이 떼로 일어났다는 것은 술이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므로,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에서는 ‘성’이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순이 임금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 것이므로, 주인공이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순은 게다가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며’에서 주인공이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성’이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재물을 탐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이 글의 ‘성’이 아들들의 횡포로 인해 ‘벼슬을 벗’었다가 ‘제 고을과 격 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떴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면서 ‘상동후’에 봉해지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순’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 글의 ‘널리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을 도맡게 된 바’와 <보기>의 ‘늙은이를 봉양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 드림과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 등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에서 국가적 잔치나 제사에 주인공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글의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랑증을 삼더니 이윽고 국자궐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 성이 입결하여 비올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 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와 <보기>의 ‘임금이 깊이 용납하여 말하였다. / “경이 야말로 저 이른바 ‘곧을사 그 맑음이야,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물 대어 밝히는도다.’ 하는 그런 이로다.” / 순이 권한을 쥐게 되자’에서 주인공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고전 산문

본문 122~125쪽

01 ④

02 ①

03 ⑤

■ 김시습, 「이생규장전」

**해제** 한문으로 창작된 「금오신화」 다섯 작품 중 하나로, 국문학사에서 의의가 매우 큰 소설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애정 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사랑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죽은 여자와 산 남자가 못다 한 사랑을 이어 가다 운명으로 인해 이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작품의 주제 의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결말의 비극성은 소외된 자의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가인 김시습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관련한 우의적인 해석도 주목해 볼 만하다.

**주제**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비극적 이별

**전체 줄거리** 고려 시대 송도(개성)에서 국학에 다니며 공부하던 이생이 귀족 집의 아름다운 처녀 최 씨를 보고 반하게 된다. 이생이 최 씨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최 씨 집 담 너머로 던진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밀회하고 연인이 된다. 하지만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하여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고 최 씨는 이생을 그리워한 나머지

지 상사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이른다. 최 씨 부모의 간청에 의한 이생 아버지의 허락으로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이생은 과거에 급제한다. 갑자기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생은 피신하였지만 최 씨는 도적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난이 끝나고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홀로 지내던 이생에게 어느 날 최 씨의 환신(幻身)이 찾아와 두 사람은 못다 한 인연을 이어 간다. 3년이 지나 최 씨는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운명임을 말하고 이생과 또 다시 이별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내고 홀로 살다가 자신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생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환생한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죽은 부모에게 예를 극진히 다한다. 이를 통해 이생은 효행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생은 최 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세상과 단절한 것이다.
- ② 최 씨는 이생과 못다 한 연분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느님이 환생시켜 준 것이므로 하늘의 뜻에 거역하여 환생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 씨의 귀환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 ⑤ 이생은 최 씨가 저승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최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최 씨가 떠나는 것을 만류했을 뿐 최 씨와의 재회를 후회하지는 않았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㉔의 관점에 따르면 ‘몸을 내맡기’는 것은 단종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가 목숨을 내주게 된 것이 아니라 왕위를 순순히 내주는 일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㉖의 관점에 따르면 ‘평생을 함께하려고’는 충신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섬기며 절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㉗의 관점에 따르면 ‘육신이 찢기는 길’은 단종을 왕으로 섬기던 충신이 지조를 굽히지 않다가 수양 대군과 그 일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㉔와 ㉖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짐승 같은 놈’은 단종을 위해 지조를 지킨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 대군의 일파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와 ㉡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뜻밖의 행액’은 단종이나 그를 섬기던 충신들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서 ‘계유정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여주인공 최 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은 남주인공 이생은 이승에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이므로 <보기>에 서술된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으로서 남녀 주인공이 보여 주는 독점적 애정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현실계의 인물인 이생과 초현실계의 인물인 최 씨가 ‘정화를 다 나누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는 <보기>에 서술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최 씨가 이생과 재회한 후 ‘끝까지 잘해 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고 이생은 ‘바로 내가 바라던 바’라며 최 씨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주인공보다 더 능동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세 번’의 ‘좋은 시절’이 ‘어그러지지만’ 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남녀 주인공이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는 모습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최 씨는 ‘작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에 빗대어지고 있으며, 이생은 최 씨가 떠난 뒤 ‘홀로 살아남’게 된다. 이는 <보기>에 서술된 것처럼 남녀 주인공이 고독감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는 애정 전기 소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고전 산문 05

본문 126~12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 ■ 신광한, 「서재야회록」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신광한의 한문 단편 소설집 『기재기이』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문방사우라 일컫는 벼루, 먹, 종이, 붓을 의인화하고 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점에서 가전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각 사물의 일대기라기보다는 주인과 네 사물의 만

남과 헤어짐의 상황이 더 부각되어 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선비의 시각에서 이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며 모임을 마무리하는데, 다음 날 그들의 본뜻을 알아차리고 문방사우를 묻어 주며 이들을 위한 제문을 짓는다는 점에서 「조침문」과 유사한 면이 있다.

#### 주제 숨어 살던 선비와 문방사우의 만남과 헤어짐

#### 전체 줄거리

한 선비가 서당 밖에서 시를 읊다가, 자신의 방에서 수상해 보이는 네 사람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된다. 선비는 이들이 자신의 벼루, 먹, 종이, 붓임을 깨닫고 서로의 회포를 시로 읊자고 제의한다. 서로 자신들의 가계와 생활담을 이야기하고, 시를 지어 생각을 나누는 후, 네 사람은 자신들을 멀리 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주인에게 하고 사라진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선비는 자신이 쓰던 벼루와 붓과 먹을 닥종이에 싸서 땅에 묻고 그들을 위한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린다. 이후 네 사람은 주인을 찾아와 40년을 더 살 것이라는 축수를 하고 사라진다.

##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한 사부’는 삽입 시를 통해 ‘봉황 새긴 누각 떠나온 지’ 몇 해가 지났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떠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해 실의에 빠지게 된 과정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무 찍어 내는 소리’만 들리고 서재가 ‘고즈넉한’ 정황을 언급하여 평소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조용하고 쓸쓸하게 지내는 ‘한 사부’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꼬’라는 시구를 통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달’을 친구 삼는 ‘한 사부’의 상황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옥토끼만 불쌍한 듯’, ‘달에게 물어볼꼬’ 등의 시구를 통해, ‘이백이 달을 즐기던’ 것처럼 ‘한 사부’ 또한 달을 바라보며 흥취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목 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라는 시행을 활용해 ‘문을 닫아걸고 왕래를 끊고 지내는 ‘한 사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에서 ‘벼루(까만 비단 옷)’는 ‘중후하고 꾸밈이 적’은 ‘가장 연장자’로 표현되고 있으며, ‘바람벽 흠뎠이 때문에 떨어져 깨져’ ‘운명이 다’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괴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은 ‘자네’는 ‘흰옷(종이)’으로 추정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네 사람은 주인이 사용하던 문방사우를 의인화한 것으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이주 오래되었다.’라는 ‘벗은 모자’의 말에서 이들이 주인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를 해 온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라고 평가받는 이는 ‘검은 옷’을 입은 것으로 제시되는데,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았’다고 설명된다. ‘검은 옷’과 ‘까만 비단옷’의 대화에서 ‘검은 옷’이 벼루를 문지르는 먹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머리 감이 없’는 붓을 의인화하면서 ‘모자를 벗’었다는 말로 머리 감(뚜껑)이 없는 상태, ‘땀상투가 위로 도드라’진 모습으로 붓 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종이의 ‘깨끗하고 두꺼’운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관견’을 쓰고 있으며, ‘희고 깨끗한 눈 같’은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네 사람이 ‘조원진이 올린 사표’의 구절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장면이다. ‘일편단심’을 언급하며 더 이상 주인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주인과의 이별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네 사람은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흑과 백이 한가지임을 깨달은 사람을 두고 ‘내 그와 벗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사귄 만화가가 있는 사람에 대해 논하고 있다. ‘진실된 사귄’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부분이다.
- ② 벗은 모자는 ‘저 사람’, ‘이 사람’(문방사우에 해당하는 이들)이 각각 문제가 생겨, 머지않아 주인과 함께 거처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 ④ 선비는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를 읊조리’다 ‘아침에 곤하게 잠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물괴들과 만나 시를 읊조린 일이 선비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 즉 ‘몽유’ 중에 겪은 일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 ⑤ 선비는 간밤의 일이 문방사우와 관련된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들을 묻고 글을 지어 제사를 올려 주고 있다. 오랜 시간 친구였던 문방사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들과의 이별에 예의를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B]는 벗은 모자와 흰옷이 서로를 놀리며 희롱하는 말하기에 검은 옷과 까만 비단옷이 끼어들며 재치 있는 말들을 덧붙이는 장면에 해당한다. 서로에 대한 발화가 끝난 뒤 이들이 ‘서로들 손을 한데 잡고 옷’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들이 상대를 놀리고 재치 있는 말을 한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한 유희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상대를 놀리고 있기는 하지만 단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며, 잘못을 고치려 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구망씨’라는 인물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발화가 고사 속 인물인 ‘구망씨’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구망씨’는 종이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상대의 말실수에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말실수를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재치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 ⑤ 각 인물의 특성이 조금씩 드러나 있지만, 각 인물의 긍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예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전 산문 06

본문 130~133쪽

01 ②

02 ④

03 ②

■ 오도일, 「설생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한문 소설로,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친구, 즉 은둔을 택한 설생과 출세를 택한 관찰사의 삶을 다루고 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세상을 개탄했던 친구가 벼슬을 하는 동안, 설생은 산수를 두루 유람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산다. 관찰사가 된 친구는 우연히 다시 만난 설생의 인도로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녀오는데, 이곳은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곳이다. 설생과 함께 지내는 동안 관찰사는 세상일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결국 설생이 자신과는 다른 삶의 지향을 지녔음을 확인하게 된다.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와, 이상향으로 그려진 회룡굴의 묘사가 인상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부정적인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인 이상향을 지향했던 한 선비의 삶

**전체 줄거리** 서울 청파리에 살던 설생이라는 선비는 계속옥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에 염증을 느끼고 은거를 결심한다. 그와 함께 세

상을 개탄하던 친구는 은거에 대한 설생의 생각에는 동의했으나,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은거하지 않기로 한다. 친구는 훗날 벼슬에 오르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데, 강원도 관찰사가 된 뒤 영랑호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설생을 만나게 된다. 관찰사는 설생이 사는 회룡굴에서 며칠을 머무는데, 속세와 단절된 그곳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향이다. 관찰사는 설생에게 나중에 서울로 자신을 찾아와 달라며 시를 적어 주고 떠나고, 몇 년 후에 이조 판서가 된다. 그는 서울로 찾아온 설생에게 벼슬을 주려 하지만,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 설생은 종적을 감춘다.

## 01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설생은 자신이 외진 곳에 살고 있다고 관찰사에게 말하면서,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설생이 길일에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배를 몰고 나타났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설생은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 ③ 영랑호에서 옛 친구인 관찰사를 만난 설생은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했던 예전의 약속을 언급하며 회룡굴에 한번 들러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 ④ 회룡굴을 떠나기 전 관찰사는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 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를 지어 설생에게 주고 훗날 서울로 자기를 찾아와 줄 것을 당부한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설생이 관찰사를 찾아 서울로 갔다는 내용이다. 이는 회룡굴에서 헤어질 때 했던 약속을 지켜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친구에게 벼슬자리를 부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벼슬을 주고자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을 느껴 종적을 감춘 것이다. 따라서 설생이 <보기>의 (나)에서 설명한 '나아감'을 선택했음을 보여 주려는 오도일의 의도가 ㉔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을 보면 설생과 친구가 계속옥사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강개한 마음으로 개탄하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이때의 '친구'가 오도일의 조부 오윤겸에 대응되며,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가 이 작

품의 창작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보기>의 (가)를 고려하면, 오도일은 조부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임금인 광해군 밑에서 관직을 그만두지는 않았어도 의로움을 아는 인물이었음을 드러내려고 ㉑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가)를 참고할 때, 오도일은 인조의 계보를 잇는 임금 밑에서 요직을 거쳤는데 이는 (나)에서 설명한 '나아감'과 '물러남' 가운데 '나아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에 따르면 선비는 태평한 세상에서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오도일의 생각이므로, 자신도 ㉒ 같은 일이 벌어진 때와 달리 태평한 세상에서 '나아감'을 선택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가)를 참고할 때, 오도일의 조부 오윤겸은 계속옥사 당시 광해군에 반대하는 뜻을 품었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를 하지는 않았다. ㉓에서는 바로 그 오윤겸에 대응되는 인물인 '친구'가 부모님이 계서 은거를 택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를 참고한다면, 오도일은 조부 오윤겸이 불의한 현실을 접하고도 곧바로 은거를 택하지 않고 벼슬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 부모 봉양이라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옹호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⑤ ㉕은 관찰사인 친구가 설생에게 벼슬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보기>의 (나)에 따르면, 오도일은 어진 새 임금이 다스리는 때인 그 당시라면 설생이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회룡굴에 도착한 관찰사가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굴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곳의 입지와 환경이 이상향에 가깝다고 감탄한 것이다. <보기>에서 설명한 산수유기의 개념을 [A]에 적용할 때 관찰사는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산수 유람의 주체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따른다면,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된 [A]에서 목적지는 회룡굴이다.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의 여정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설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산수유기 속 산수는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다. [A]에서 채소가 '맛이 담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판판'이었다고 한 것은 회룡굴이 속세와 구별되는 환상적 공간임을 드러내 주는 장치 중 하나이다.

④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산수유기는 유람 주체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이를 [A]에 적용할 때, 회룡굴에 머무는 동안 '구

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것은 유람 주체인 관찰사의 관점에서 그가 느낀 바가 서술된 것이다.

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해 [A]에서는 '사랑스럽고도 볼 만하여 아침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유람 주체가 음미하는 것에 해당한다.

고전 산문 07

본문 134~137쪽

01 ②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송반궁도우구부」

**해제** 이 작품은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에 실린 작품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구비 설화로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로 추정된다. 주인공 '막동'은 송씨 집안의 하인이었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 재산을 모은다. 이후 양반 최승선이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주변의 인심을 얻어 덕망을 인정받는다. 조선 후기 양반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서민들의 바람과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급격한 변동 양상을 잘 드러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주제** 재산을 모아 양반 행세를 하던 막동의 위기 대처 능력

**전체 줄거리** 사족인 송씨 가문이 몰락한 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막동은 종적을 감춘다. 송 씨의 어린 아들 송생이 빈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니다 최승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는데, 최승선은 송생이 자신의 옛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자신을 드러낸 후, 비밀을 지킬 것을 부탁한다. 최승선은 자신의 신세를 지고 돌아가는 송생에게 큰돈을 선물한다. 송생의 사촌 동생('험피')은 이 사연을 듣고 최승선을 만나 반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떠난다. 송생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최승선은 험피에게 광증이 있다고 주위를 속인 후, 엄포를 놓으며 그를 꾸짖는다. 험피는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공손한 태도로 최승선을 대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험피'는 '풍속의 기강'을 볼들겠다며 '최승선'을 찾아간다. 이때 '험피'가 '최승선'에게 '뇌물'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험피'가 두 마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최승선'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험피'는 '최승선'이 '생'에게 한 행동을 두고 '호형 호숙하여 그 강상을 어지럽'힌 일이라 평가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에 비해

'생'은 '험피'로 인해 '최승선'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며 '최승선'에게 사정을 알리고 있다.

③ '최승선'은 '제인'들이 '험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괴롭혀 분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먼저 송생의 사촌 동생이 '광인'이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

④ '험피'는 처음에는 '최승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승선'의 말을 듣고, 그의 태도와 말의 내용에 감화를 받아 그를 따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⑤ '험피'는 집에 돌아갈 때 '최승선'으로부터 '삼천금'을 받는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험피'가 최승선과의 외적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가 양반 행세를 하는 상황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최승선'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침약 공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험피'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그럴듯한 말로 꾸며 내어, '험피'가 하는 말을 '광부'의 말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승선'이 실제로 '침약 공부'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침약' 치료를 해서 '험피'가 가진 병을 고치는 상황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가 이 야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글에서 '최승선'으로 살고 있는 하인 막동이는 도망 노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막동이가 '최승선'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된 사회적 배경을 '국내의 상업의 발달' 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③ '최승선'이 '내 스스로 분의를 지키어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승선'은 '송생'의 인정을 받고, '험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쌓은 재력과 덕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최승선'은 '험피'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크게 걱정하거나 내색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 까닭은 '내 적수공권으로 기가하였으니 어찌 지각이 없어 너 같은 용우배에게 낭패를 보랴.'라는 그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험피'가 '최승선'이 종이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이지

만, ‘최승선’을 신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 [B]는 ‘최승선’의 말을 따르기로 한 ‘험피’가 거짓을 말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는 실제로 확인된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고, ㉠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발화의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은 소년이 알고 있는 진실과 일치하지만, [B]는 ‘험피’가 알고 있는 진실과 위배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가 ‘최승선’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있다면, [B]는 ‘최승선’에 관한 거짓에 동참하고 있다. 험피는 동일한 진실을 두고 [A]와 [B]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 상황에서 늑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의 상황에서 늑대는 존재하고 있었다. 진실이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 ㉡과 같이 동일한 발화를 한 것이다.
- ② [A]에서 강경했던 ‘험피’의 어조가 [B]에서는 공손한 말투로 바뀐다. [A]가 ‘최승선’의 신분을 밝히려는 것이었다면, [B]는 ‘최승선’의 신분 숨기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소년이 ㉠과 ㉡을 크게 외친 것은 ㉠에서는 어른들을 속이고 싶었기 때문이고, ㉡에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 다 자신의 발화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④ [A]와 ㉡은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B]와 ㉠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 ⑤ 사람들이 [A]와 ㉡을 외친 것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B]와 ㉠을 받아들인 것은 화자가 굳이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고전 산문 08

본문 138~141쪽

01 ④

02 ③

03 ⑤

#### ■ 작자 미상, 「소현성록」

**해제** 이 작품은 17세기의 가부장제 강화와 가문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씨 가문의 수호와 번영을 다루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로, 한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제대의 현성, 제2대인 운경과 운성, 제3대인 세명과 세광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이 유교 사상 및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건 전개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주제 혼인을 둘러싼 소씨 가문의 갈등과 해결

**전체 줄거리** 제대의 주인공인 소현성은 화 소저, 석 소저, 여 소저와 차례로 혼인한다. 소현성과 그의 부인들은 혼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슬하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제2대의 인물들 중 운성은 형 소저, 명현 공주, 소영과 혼인하는데, 운성과 그의 부인들은 혼인 과정과 혼인 후에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명현 공주는 운성과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부인인 형 소저를 모함하고,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인 소현성과 남편인 운성과 대립하는 등 소씨 가문과 갈등을 빚는다. 이후 명현 공주의 죽음으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된다. 작품은 제3대 인물인 세명과 세광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이 전개되며 마무리된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소 승상은 자신을 찾아온 팔왕에게 자신은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찾아왔느냐고 묻고 있을 뿐,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팔왕에게 묻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황제는 ‘소 승상은 예사 신화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고,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 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이라 말하며 소 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 승상은 ‘영존당 태 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며 소 승상에게 어머니인 태 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부 황후는 공주를 죽이고자 하는 소 승상의 상소를 본 후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김니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 황후는 소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팔왕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말하며, 소 승상이 인정을 베풀어 공주를 용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02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황제는 예에 맞지 않게 소 승상에게 노여움을 보이면 오히려 소 승상이 공주를 죽일 것을 염려하여 답서(㉠)에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근거하여 공주의 처형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소 승상의 어머니인 ‘태 부인’은 편지(㉡)에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공주를 죽이

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호소하며 자신의 말에 따라 공주에 대한 처형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운성을 풀어 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를 통해 ㉠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를 통해 ㉠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라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소 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를 통해 ㉠은 공주를 향한 소 승상의 분노가 완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 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를 통해 ㉠은 공주와 관련된 소 승상의 걱정이 해소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짐의 자식이 이렇게 쾌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를 통해 ㉠은 공주와 황제의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공주에 대한 처형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공주와 운성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를 통해 ㉠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공주에 대한 처형을 소 승상에게 맡기고 있을 뿐, 공주를 처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주의 사람됨은 내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를 통해 ㉠은 공주의 평소 행실을 언급하며 공주의 처형을 만류하고 있을 뿐, 공주의 신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소 승상이 어머니의 편지를 본 후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춘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 사상을 따른 것일 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 승상은 공주를 사육에 가둔 후 형부 상서 반영의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 오라 하고 또 예부 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 오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이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황제는 공주가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버를 죽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공주를 죽이려는 소 승상의 행동을 만류하기 어려우며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 승상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권위가 중시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소 승상은 황상의 낮을 보아 공주를 용서하라는 팔왕의 말을 들은 후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팔왕의 제안을 물리치고 있다. 이러한 소 승상의 모습은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④ 소 승상은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공주를 죽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시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욕보인 공주의 행동이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고전 산문 09**

본문 142~14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 작자 미상, 「황새결승」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로, 액자 구조를 띠고 있다.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다가 결국 뇌물을 써서 소송에서도 이기는 악한 친척 때문에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액자의 외화(外話), 즉 바깥 이야기를 이룬다. 액자의 내화(內話)는 송사에 진 부자가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우화(寓話)로, 날짐승들의 송사에서 벌어진 부정한 청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의 부정적 사회상, 특히 비리로 얽힌 송사 때문에 사회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던 부패상을 풍자한 소설로 볼 수 있다.

**주제** 송사에 얽힌 비리와 횡포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여러 번 재물을 얻어 간 친척 한 사람이 이번에도 재산의 반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부자가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서울로 올라와 형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에 친척은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치를 한다. 부자는 사리에 어긋나는 판결로 패소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우화 하나를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준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피꼬리, 삿꼬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기 소리에 열등감을 느끼던 따오기는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곤충을 잡아다 황새에게 뇌물로 바치며 부정한 청탁을 한다. 황새는 그 청을 받아들여 피꼬리와 삿꼬새의 소리는 폄하하고 따오기의 소리는 웅장하다며 가장 좋은 소리라고 판결한다. 이러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모두 부끄러워한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관원은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여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일도 안 보고 이야기나 듣고 있으면 안 좋게 보일까 봐 거짓으로 부자를 꾸짖는 체하면서, 원이나 풀어 주려고 들어 주는 것이니 얘기를 해 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관련하여 이목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억울한 판결을 듣고 난 부자는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필경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조율을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무슨 안을 못 하며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 어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가 억울함을 즉각 호소하면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③ 황새가 따오기에게 한 말에는 '전에도 네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라는 대목이 있다. 이로 볼 때 황새는 따오기가 예전에도 자신에게 여러 번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따오기의 청탁을 받은 황새는 '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 알리오, 어디 보자.'라고 하였다. 이는 송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답을 유보한 것이다.
- ⑤ 따오기는 황새에게 송사의 판결을 맡기는 데에 합의한 후에 돌아와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뉘에 질 놈이 없는지라.'라고 생각하였다.

##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눠 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치 말라.'라는 말은 청자가 할 일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B]에는 청자가 할 일을 지시한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 경중을 알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구나. 대저 송사에는 애증을 두면 청원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니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오.'는 자기의 무지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 ② [A]의 '너는 조업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꾼에 이르니 죽히 흥년에 이른 백성을 진흥도 하거든, 너의 지친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뢰한 놈이 어디 있리오.'는 청자의 과오를 지적한 것이다.

④ [B]의 '만일 내 네 소리를 이기어 주어 필연 청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려니 이를 염려하노라.'는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걱정한 것이다.

⑤ [A]와 [B] 모두 자기와 청자의 처지를 비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은 송사에서 질 게 뻔한 따오기가 관인 황새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마음먹는 부분이므로,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액자 구조로 된 이 소설의 외화에서 '그놈'은 세상 물정에 밝은 까닭에 형조 관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 따라서 '그놈'은 내화 속의 '따오기'에 대응된다. ㉠은 '그놈'이 행실은 모범적이지 않으나 이리저리 다니며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설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내화 속의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이기지 못할 송사도 눈치 있게 잘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사회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법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 ③ ㉠은 '그놈'이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승소하고 부자 자신은 억울하게 패소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그릇된 판결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문란해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 ④ 외화 속의 부자는 법에 따라 제대로 판결하게 되면 부조리가 척결되리라고 믿어서 송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자는 '제 이왕 그러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밉고' 판결만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처럼 새들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송사하기로 결정을 하는 내화 속 요소와 대응된다.

##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송사에 지고 나서 부자는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 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곤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라고 생각하며 따오기와 황새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준다. <보기>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 부자가 한 비판적인 말과, 그 말을 들은 형조 관원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형조 관원들에게 '무안이나 뵈리라'던 부자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자는 형조 관원들 앞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입증하기 위해 따 오기의 소송 이야기를 꾸며 낸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이 나 성격은 부자의 총명함 입증 여부와 관련이 없다.
- ② 부자가 '물욕에 잡혀 틀린 노릇을 잘하'기에 '개아들 개자식'이라고 불리는 짐승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울 법관도 여차하'다고 하자 형조 관원들이 대답도 못 하고 부끄러워하였다. 따라서 형조 관원들의 도덕적 정당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부자와 형조 관원들 간에는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자가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도 아니다.
- ④ 형조 관원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했을 뿐 부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 아니다. <보기>의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 하여 쓸데없으니'는 이미 내려진 판결이 반복될 수 없다는 것과 내용상 관련이 있지만, 이는 형조 관원들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 부자가 한 말에 해당한다.

고전 산문 10

본문 146~149쪽

- 01 ③
- 02 ②
- 03 ③

■ 작자 미상, 「적벽가」

**해제**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 사설이다.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약자의 설움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원작에서 간웅으로 평가된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들의 설움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갈공명을 모셔와 세력을 보강한다. 권력을 쥔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일으킨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정길에서 각자의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는 제갈공명의 지략에 넘어가 전투에서 패하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손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대패한다. 퇴각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제갈공명이 보낸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간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깃발과 풍채를 근거로 적장이 관우라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뒤이어 '더욱 관우라면 도망갈 곳 없고 벗어날 도리 없다.'라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내비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전 전투인 적벽과 오림에서 패한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적에게 쫓기고 있는 위기 상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정육이도 정신 없고' 부정확한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호통 소리 한 번 하면 길짐승도 갈 수 없고, 칼 빛 번뜻하면 나는 새도 툭 떨어지니, 단검 한 자루로 다섯 장수 베ئن 숨씨' 등에서 관우의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감히 어찌 당하리까?'에서 관우와 대적하기 쉽지 않음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지금 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다투는데'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죽은 승상 목 베기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에서 '나를 죽었다고 흠이불로 덮어라. 덮어 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 갈 것이니, 흠이불 둘러씌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달음박질로 달아나자.'라는 조조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C]에서 서술된 인물의 말은 조조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작중 현실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아니리는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읊조리는 어투로 말하는 부분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A]에 나타난 웃음소리는 [B]에 나타난 대포 소리에 비해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읊조리는 어투가 좀 더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중모리장단은 사연이나 생각 등을 간절히 호소하는 대목과 어울린다고 했다. [D]의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씨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와 [E]의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옛정 생각하여, 살려 돌아 보내 주시길 거듭거듭 바랍니다.'에서 사연이나 생각

등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자진모리장단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대목과 어울린다고 했다. [B]의 ‘화용도 산 위에서 대포 소리 ‘퐁!’이 너머에서도 ‘퐁!’ 저 너머에서도 ‘퐁 궁그르르르르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 쿵 쾅 처르르르르르르 화용도 산골짜기 뒤끓으니’, ‘네 이놈, 조조야! 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등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위기에 빠지는 조조와 군사들의 처지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중모리장단은 인물의 호탕하고 여유로운 거동이 구현되는 대목과 어울린다고 했다. [E]의 ‘관우의 어진 마음 말 위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 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병해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이놈, 조조야, 들어 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는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 양 진영에 어찌 사사roi 공격인 일을 할 것인가?’,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너 잡으러 예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 보낼쏘냐?’ 등에서 관우가 보여 주는 호탕하고 여유로운 거동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조조를 잡으러 온 관우에게 빌어서 살아남기를 도모하려는 장면은 조조가 궁지에 몰린 상황을 제시한 것일 뿐, 조조와 대적하는 장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조조를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쟁에서 패하여 적에게 쫓기는 중에도 자신의 지략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는 조조의 모습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박한 언행을 하는 조조의 희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우가 조조를 잡기 위해 공격할 때 조조가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가는 장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의 공격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조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죽었다고 속이고 도망가자는 꾀를 내는 장면에서 조조의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조조의 죄를 언급하며 꾸짖는 관우의 말을 통해 조조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인물로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전 산문 11

본문 150~153쪽

01 ⑤

02 ⑤

03 ④

#### ■ 작자 미상, 「계우사」

**해제** 이 작품은 ‘왈짜 타령’, ‘무숙이 타령’이라 불리는 판소리에서 유래한 판소리계 소설로, 어진 아내를 둔 왈짜인 김무숙이 재산을 탕진하고 고난을 겪으며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주인공 무숙과 같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치를 일삼고 향락적 삶을 살아가는 불건강한 인물들이 등장하던 때로, 이 작품은 무숙이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는 등 공동체적 삶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무숙에 대한 징치와 교정을 통해 건강한 삶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무숙의 불건강한 삶에 대한 징치와 교정을 통한 건강한 삶의 회복 기원

**전체 줄거리** 성종 대왕 즉위 원년, 방탕한 짓을 일삼는 왈짜 우두머리인 김무숙은 어진 성품을 지닌 그의 아내와 살아간다. 어느 봄날, 무숙은 왈짜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놀고 난 뒤에 착실히 살겠다고 말하지만, 평양 기생 의양이가 화개동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의양을 찾아가 다정한 편지로 그녀의 환심을 얻는다. 무숙은 큰돈을 들여 의양을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녀와 호화롭게 살아간다. 돈을 물 쓰듯 하는 무숙을 격정한 의양은 그의 아내와 짜고 무숙이 돈을 탕진하게 하고, 일부러 무숙의 앞에서 무숙의 친구인 김 선달과 애정 행각을 벌인다. 이에 실망한 무숙은 전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고, 의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낸다. 의양이 또다시 무숙 앞에서 김 선달과 애정 행각을 벌이자 무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의양과 김 선달에게 벌을 줄 것을 축원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의양이 무숙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무숙은 눈물을 흘린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무숙의 막내아들은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 후 어머니에게 ‘애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라고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무숙의 막내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숙의 막내아들이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얼굴과 달랐기 때문에 꿈에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양은 무숙의 아내가 보낸 편지를 읽은 후 ‘천지간 몸쓸 무숙이 이런 여중군자 어진 아내를 몰라보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양이 무숙의 아내에 대해 훌륭한 성품을 지녔기에 무숙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숙의 아내는 남편이 잘못된 행실을 하더라도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함’은 옳지 않다고 여기며, 남편의 행실을 지적하는 요즘 부녀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무숙의 아내는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이리된 줄 벌써 응당 알았으려만, 그래도 정 각각, 흥 각각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라고 말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숙을 원망하면서도 무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④ ‘남의 곁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 없어’를 통해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무숙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의양은 만약 무숙이 행실을 고치지 않아 패가망신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탓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무숙을 깨우치기 위한 계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에서 무숙의 아내는 만일 의양이 무숙을 깨우치게 한다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에 제사도 지내 줄 것이라 말하며 의양에게 무숙을 깨우치려는 일을 세밀하게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 자 글월을 계동 아끼씨 전에 올리옵나이다.’와 ‘불초한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를 통해 의양은 ㉠에서 자신과 무숙의 아내와의 신분 차이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무숙의 아내는 ‘장강’과 ‘반첩여’를 언급하며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애통함을 갖는 것이 부녀자들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 ㉡에서 모두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에서 의양은 자신의 삶의 내력을 밝히고 있을 뿐, 이를 무숙의 아내와 비교하고 있지 않다. ㉡에서 무숙의 아내는 ‘장강’과 ‘반첩여’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의 행적을 자신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 ③ ㉠에서 의양은 무숙의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아끼씨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무숙의 아내의 신변에 대한 자신의 염려를 드러내고 있을 뿐, 무숙의 아내가 선택한 행동을 만류하고 있지 않다. ㉡에서 무숙의 아내는 의양이 의가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점을 칭송하며 무숙의 허랑한 심사를 잡아야 한다는 의양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을 뿐, 의양이 선택한 행동을 만류하고 있지 않다.
- ④ ㉠에서 의양은 무숙의 아내의 안부를 묻고 자신이 무숙의 허랑한 심사를 붙잡으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 무숙의 아내의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무숙의 아내는 의양이 의가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점을 칭송하

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계우사」)에서 계략 주체는 의양이고, 개과천선의 주체는 의양과 무숙의 아내로, 이 둘은 곤경에 처한 무숙의 개과천선을 위해 역할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춘풍전」)에서 계략 주체는 기생 추월이고, 개과천선 주체는 춘풍의 부인으로, 이 둘이 역할을 바꾸어 가산을 탕진한 이춘풍을 개과천선하게 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무숙은 의양의 계략에 의해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에서 이춘풍은 추월의 계략에 의해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 ② ㉠에서 무숙은 아내의 말을 듣고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에서 이춘풍은 아내의 비난을 듣고 평양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에서 무숙은 의양의 계략에 의해 탕진한 자신의 가산을 회복하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다. 이와 달리 ㉡에서 이춘풍은 아내의 도움으로 가산을 회복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 ⑤ ㉠에서 무숙은 의양의 계략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이와 달리 ㉡에서 개과천선 주체인 이춘풍의 처가 계략 주체인 추월을 꾸짖고 돈을 찾아 주어 이춘풍은 자신의 가산을 회복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고전 산문 12

본문 154~157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④

■ 작자 미상, 「제석본풀이」

**해제** 이 작품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서사 무가이다. 지역에 따라 무가의 명칭은 달라 ‘제석본풀이’, ‘당금애기’, ‘제석굿’(전라남도 지방), ‘초공본풀이’(제주도)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린다. 「제석본풀이」의 남자 주인공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하강하거나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래는 천신(天神)이었으나 불교가 전래된 뒤 그 영향으로 스님(도승)으로 바뀐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남신은 천신으로서,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생산신의 성격을 가지며 부계신인 천신과 모계신인 자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천부지모형 신화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등 천부지모형 건국·국조 신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또한 무녀의 창과 장구재비의 반주가 어우러진 연행 방식과 관

련하여서는 판소리, 전통극과 유사하여 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삼신이 된 당금애기

**전체 줄거리** 옛날에 아홉 아들을 둔 끝에 당금애기라는 예쁜 딸아이를 낳아 기른 명문 집안이 있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특별한 일로 인해 집을 떠나자 당금애기 혼자만 집에 남는다. 이때 한 스님이 당금애기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다가 당금애기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한다. 스님이 당금애기의 집에 다녀간 뒤 당금애기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금애기를 집에서 추방한다. 당금애기는 뒷산 바위 굴속에 들어가 살며 그곳에서 혼자 아들 세쌍둥이를 낳아 기른다. 아이들이 자라나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자 아들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가 신직을 받고 당금애기는 삼신이 되고 아이들은 제석신이 된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스님은 어떻게든 당금애기의 집에 머물러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당금애기를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스님이 당금애기의 집에 찾아온 주된 목적은 시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한 세준’을 잉태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당금애기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님에게 묻고는 있지만 스님이 도술을 써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④ 당금애기는 자신의 집에서 스님을 보내려고 하며, 스님은 당금애기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⑤ 옥단춘은 당금애기를 도와주는 하인으로서 당금애기의 명령에 반항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㉞은 곧 해가 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스님의 불안감을 담은 말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당금애기 집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끌어야 하는 스님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스님은 당금애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㉟은 스님이 도술을 써서 발생한 일로, 옥단춘이 시주 쌀을 못 떠 오는 이유가 된다.  
 ② ㉠은 옥단춘이 큰 구멍이 난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스님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말이다.  
 ③ ㉡은 바닥에 흐른 쌀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려는 상대방의 행동

을 막기 위해서 한 말이다.

⑤ ㉢은 스님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거부하는 말로, 이는 스님이 당금애기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 위한 핑계에 해당한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당금애기가 ‘어머니 자던 방 안에’ 스님의 ‘자리보전’을 하게 되면 스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이는 생산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모계신의 면모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남자 주인공은 ‘스님’이며 ‘부처님’, ‘절’ 등 불교와 관련된 어휘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작품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② 스님은 ‘도술’을 사용하는 등 초월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모습과 함께 초월적 존재로서 신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스님이 당금애기에게 찾아온 이유는 ‘삼한 세준을 태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후계자의 탄생과 관련된 신화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④ 스님이 당금애기에게 ‘하룻밤만 유해’ 가자고 말하는 것은 천신 격인 스님이 지신 격인 당금애기와의 결합을 위해 하게 된 요청에 해당한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는 춤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A]에는 춤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창’이, [B]에는 ‘합창’이 나온다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연행에서 사실과 노래가 동반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와 [B] 모두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반복적인 말에서 울문체의 재담(익살과 재치 있는 말)이 섞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무녀 한 명이 여러 인물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지만, [B]에서는 여러 연행자들이 말뚝이, 양반들 중 한 명의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⑤ [A]의 연행에서는 반주자가 악기를 연주하며 연기자의 흥을 돋울 뿐, 연기자의 직접적인 대화 상대자가 되고 있지는 않다. 반면 [B]에서는 연기자가 반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다는 점에서 반주자가 연기자의 직접적인 대화 상대자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소설 01

본문 158~161쪽

01 ⑤

02 ②

03 ④

■ 이태준, 「달밤」

**해제** 이 작품은 못난이로 알려진 '황수건'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로,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우두, 참외 장사, 포도 선물 등의 일화를 중심으로 황수건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아둔하고 무지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 '나'의 연민 어린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가 달밤에 황수건의 슬픔과 고독에서 인간적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지막 장면이 유명하다.

**주제**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전체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하면서 말 많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삼삼학교 급사로 일하면서 학무국 시학관을 잘못 대접한 문제로 쫓겨나고 이후 신문 보조 배달원이 되지만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그의 소망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도 밀려난다.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지만 곧 장마로 망치고 금실 좋던 아내마저도 달아난다. 어느 날 황수건은 성북동 길에서 밝은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며 담배를 피우고, '나'는 황수건의 그런 모습을 나무 그늘에 숨어 지켜본다.

01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포도'는 '수건'이 자신을 도와주는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포도'를 통해 둘 사이의 오해가 해소되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건'이 '포도'를 '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포도원에서 훔쳤다는 점에서 '포도'는 '수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소재이다.
- ② '수건'이 자신을 도와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포도'를 선물했다는 점에서 '포도'는 '나'에 대한 '수건'의 고마움이 담긴 소재이다.
- ③ '수건'을 대신하여 포도값을 물어 준 일은 '나'에게 예상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도'는 '나'가 뜻하지 않게 값을 치르게 되는 소재이다.
- ④ '나'가 '수건'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포도'를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는 점에서 '포도'는 '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소재이다.

02 배경의 가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수건'을 못난이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못난이가 성북동에 시골의 느낌을 부여한다고 말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와 '수건'이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북동을 두 사람의 대립이 고조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가 성북동으로 이사하면서 '수건'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성북동을 재회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바깥이 킁킁한'이라는 말은 전깃불 등 근대적 문물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성북동의 환경을 환기하는 말이며, 시골에 대한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성북동을 '나'의 적대적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가 못난이에 대한 포용 여부로 시골과 대치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성북동을 대치와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수건'이 부른 노래는 '수건'의 답답한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로, '수건'의 다른 행위에서 친일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단서는 없다는 점에서 이 소재만을 가지고 '수건'을 친일 의식이 강한 인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는 '수건'에 대해 기본예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수건'이 밤 열 시가 넘은 시각에 찾아와 다짜고짜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존중의 태도로 '수건'을 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수건'의 엉뚱한 질문이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응답하는 '나'의 대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는 '수건'이 우둔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인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처지는 금실이 좋았던 아내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건'을 떠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수건'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나'를 보면 무안할 '수건'을 생각하여 자기 몸을 나무 그늘에 감추는 '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소설 02

본문 162~164쪽

01 ①

02 ②

03 ④

###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해제** 이 작품은 작중 인물인 소설가 구보가 뚜렷한 목표 없이 경성 거리를 하루 동안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광고, 종로, 화신상회, 조선은행 앞,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거리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울감과 고독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기존의 소설이 주로 인물 간의 극적 갈등, 사건의 개연적 전개를 중시했다면, 이 소설은 인과적 연관성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내면 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또 1930년대 경성 거리의 풍경과 온갖 군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구보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풍경과 그의 내면

**전체 줄거리** 구보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와 동대문행 전차를 탄다. 예전에 섰던 여자를 거기에서 보지만 모른 척하고 곧 후회한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차를 마시며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보는 경성역에서 여자를 동행한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다방에서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의 옛사랑을 추억하고 오랜 벗에게서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구보는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이제는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고 다짐하며 오전 2시의 종로 네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글은 구보가 전차 안에서 남대문, 경성역 대합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의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장면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구보의 행동과 의식을 서술하고 있으나,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 ④ 구보의 시선으로 거리의 풍경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차를 타고 교외를 즐겼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교외를 즐기며 고독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과거 사건이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 ⑤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따라 서술되고 있으나, 서술의 초점이 다양한 인물로 옮겨지지 않으며 사건의 원인이 조망되고 있지 않다.

##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안전지대 위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싫었던 구보는 전차 안으로 뛰어오른다. 또 고독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구보는 경성역 삼등

대합실로 향한다. 따라서 이 두 공간은 모두 구보가 고독을 피하기 위해 찾아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차 안에서 구보는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라고 교외로 나갔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삼등 대합실에서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는다.
- ③ 전차 안이나 삼등 대합실에서 구보는 균중을 목격하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은 구보 자신이다.
- ④ 전차 안에서 구보는 과거에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등 대합실에서 구보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관찰하며 연민과 우울감을 느낄 뿐 미래의 의지를 다지지는 않는다.
- ⑤ 구보가 배회하는 공간에 전차 안이나 삼등 대합실이 포함되지만, 배회를 시작하거나 끝마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구보는 노파 옆에 앉아 있던 시골 신사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한 후 자리를 떠나며 자신의 신장염과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떠올린다. 이는 구보의 행복 찾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외부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는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구보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차에 뛰어’오르고 있으므로 이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개인의 불안 의식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②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는 과거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고독을 피해 경성역을 찾은 구보의 눈에는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쁜 균중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경성역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균중의 모습은 근대화되어 가는 도시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바세도씨 병중 환자의 발치에 굴러간 복숭아를 줍지 않는 젊은 아낙네의 행동은 인간적인 온정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소설 03

본문 165~168쪽

01 ⑤

02 ④

03 ⑤

■ 현진건, 「서투른 도둑」

**해제** 이 작품은 손주에게 쌀밥 한 그릇을 챙겨 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 중산층이 가진 의식과 하층민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할멈의 서툰 도둑질이, 어려운 이를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 두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쁜 것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하층민의 상황을 통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의 양심(심장)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과 자책감

**전체 줄거리** 두메산골에 가까운 창외문 밖에 살다 보니 집안일 하는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나’는 나이 많은 어떤 할멈을 안장 자기로 힘겹게 들이게 된다. 그런데 황해도 할멈은 안장자기로 들어와 자신의 열세 살 손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하고, 문 안 심부름을 위해 두고 있는 대옥을 미워하며 그를 내보내라고 한다. 그 이유로 주인의 눈 밖에 난 할멈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쌀을 전대에 감추어 나가다 들키고 이후 쫓겨나다시피 하며 ‘나’의 집에서 나가게 된다. 할멈이 나간 이후, 대옥은 파출소를 대며 할멈을 위협하여 동전 세 푼도 찾았다고 내놓고, ‘나’는 할멈의 심사를 짐작하며 자책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B]에는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최후의 휘파람 같은’과 같은 비유적 표현과, ‘그렇다!’, ‘산란한 괴로운 숨결!’, ‘이리로 저리로 뒤적거리는 둔한 음향!’과 같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할멈에 대한 ‘나’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상황을 제시할 뿐 인물의 외양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A]에는 인물의 과거 삶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양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A]에서 과거의 특정한 시기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는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B]에는 할멈의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과 느낌이 주로 드러나 있을 뿐,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대옥을 미워하는 할멈의 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감정이 대옥이 할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 할멈의 요구는 육칠월 한창 때의 장마처럼 즐기차게 계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㉒에서 할멈이 ‘나’와 아내에게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죽을힘을 다해서’ 매달린다는 것은 할멈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할멈의 요구가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㉓은 ‘나’의 형편이 할멈의 손자, 아들 부부까지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할멈이 ‘나’에게 자신의 손자와 아들 부부까지 살려 주기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멈의 요구가 할멈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㉕에는 할멈을 동정하던 아내가 할멈의 요구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등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 변화는 제 자식을 위해 대옥을 내보내 달라는 할멈의 요구가 인정이 없고 야박한 것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마지막 장면에서 할멈이 동전을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던졌다고 ‘나’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할멈과 같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함과 비극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매정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할멈의 자각으로 보고 ‘나’가 그러한 할멈의 자각을 짐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돈을 벌러 온 할멈의 상황은 일제 강점기의 도시 빈민의 상황과 유사하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할멈의 상황을 알고 동정을 하면서도 선뜻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주인 몰래 쌀을 감추고 동전을 훔치는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부정한 것으로, 할멈이 처해 있는 빈곤의 상황, 즉 가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할멈의 도둑질을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것의 원인으로 생각하며 분노하는 대옥의 태도는 할멈의 서툰 도둑질을 도덕적 일탈로 보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현대 소설 04

본문 169~172쪽

01 ④

02 ②

03 ④

## ■ 채만식, 「논 이야기」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농촌을 배경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한덕문은 술과 노름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판 땅을 해방이 되었으니 되찾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좌절되자 왜곡된 역사의식을 표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 그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변함없이 지배층에 의해 수탈을 당해 온 모습과, 광복 이후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와중에 여전히 소외된 처지에 놓인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작농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당시의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한덕문이라는 인물 형상을 통해 표면적으로 개인의 소시민적 욕심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방 이후 여전히 민중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역사의식이 결여된 개인의 소시민성과, 국가가 농민의 삶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구한말 한덕문의 아버지 한태수는 부지런한 농군으로 논 스무 마지를 장만하였는데, 고을 원에 의해 동학란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논 열세 마지를 빼앗긴다. 이 일로 인해 한덕문은 반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살림도 현상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술과 노름으로 인해 빚이 늘자, 시세의 곱절을 준다는 일본인 길천에게 남은 논 일곱 마지와 멧갓을 판다. 그런데 계획과 달리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시세가 올라 버린 논을 되살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뒤늦게 속으로 후회하지만 일인들이 쫓겨 가면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주위에 큰소리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허황된 생각을 비웃었으나, 정말로 시간이 흘러 독립이 되자 한덕문은 논을 되찾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길천에게 함께 팔아넘겼던 멧갓이 그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사들인 영남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또 논도 나라에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구장을 찾아간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한덕문은 독립되었을 때 만세를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서술자는 한덕문의 관점에 기대어 그가 과거에 경험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B]에서 서술자는 한덕문이 겪은 ‘산판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에는 8·15 직후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산판 사건’을 둘러싼 맥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 ② [A]에서 회화적 서술의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B]에서 설명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서 ‘윈과 토반과 아전’, ‘왜인들’, ‘순사와 헌병’을 한덕문과 대립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인물들로 인해 긴박감이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또한 [B]에서 한덕문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A]는 한덕문의 심리를 묘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 대한 한덕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인물의 태도가 변화한 계기를 확인할 수 없다.

##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구장은 해방이 되어 일본인의 재산이 나라의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멧갓’의 소유권을 길천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에 한덕문은 자신이 ‘멧갓’을 길천에게 판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방이 되어 일본인인 길천이 쫓겨 갔으면 자신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장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멧갓’에 낙엽송을 심은 것은 한덕문이 아니라 길천이다. 따라서 한덕문이 자신이 심어 놓은 낙엽송을 영남이 베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한덕문은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멧갓을 길천에게 팔아넘겼으므로, 한덕문이 험값인 줄 알면서도 생계 문제 때문에 ‘멧갓’을 길천에게 팔았던 일을 후회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한덕문은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는 소식을 듣고 논 일곱 마지를 도로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구장을 찾아간다. ‘멧갓’ 거래를 강태식이 위임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찾아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한덕문은 ‘깜빡 멧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 하’다가 누군가가 ‘한타한 산림이’ 된 그곳에서 벌목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제지하려 한다. 한덕문이 길천을 만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멧갓’을 방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어지는 영남의 말 ‘난 빠졌어 ~ 사람이 임잘까?’를 고려하면, ‘그 개 똥 같은 소리 인젠 엔간치 해 두’라는 말은 돈을 받고 땅을 판 한덕문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자신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영남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남이 광복을 바라보는 한덕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보는 한덕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윈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횡포를 부리던 시기의 백성으로 살아 보았다는 한덕문의 회상을 고려하면, 한덕문이 국권 피탈 전부터 지배 계층에게 핍박받고 수탈당하던 민중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② 한덕문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지배 계층으로부터 핍박받으며 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에 근거하여 해방 이후 건설될 ‘새 나라’에 대해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한덕문이 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지니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며, 나라가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의 왜곡된 국가관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한덕문은 ‘허황하고 험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하여 빚을 지고 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대목을 통해 그의 성격적 결함과 그로 인한 과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오는 한덕문이 ‘남은 논 일곱 마지기’를 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⑤ 해방 이후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인 소유였던 토지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 방지되는 상황과 국가가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를 유상 분배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한덕문은 토지 문제에 관해 국가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한다. 작품에 드러난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대 현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소설 05

본문 173~176쪽

- 01 ⑤      02 ③      03 ②      04 ⑤

■ 허준, 「잔등」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귀향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방의 환희와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해방 직후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패

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주제** 광복 후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

**전체 줄거리** 광복 직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수성까지 오게 된다. ‘나’는 재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 소년은 뽕장어를 일본인에게 팔면서 돈 많은 일본인을 알아내어 한국인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본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성적인 복수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만 본다. ‘나’는 방을 만나려고 청진역으로 갔다가 국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서른에 남편을 잃고 독립운동하던 아들까지 잃은 사람인데도, 난민이 되어 쫓겨나게 된 일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방을 만나 열차를 타고 청진을 떠나는데 ‘나’의 머릿속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모습이 황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불 그늘’, 곧 ‘잔등’으로 새겨진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김 선생에 대해 소년이 하는 말을 보면, 김 선생은 소년과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포항동에서 일본인이 살던 집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네가 잡은 이 뽕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던 말이 지.’, ‘내 뽕장어께나 사 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라는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②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암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별떡 일어나서 달아날려는 것 보겠지.’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③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 ④ ‘일본 것들이란 거지만 사내 없앤 것들만인 데다가 애새끼들만 오글오글허는 걸’을 보면 알 수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앞선 ‘나’의 질문과 소년의 대답 내용을 고려하면 ‘그런 분’은 곧 ‘김 선생’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김 선생의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년이 잡은 조합장에 대한 언급을 보면 ‘죽은 사람’은 패망 후 숨죽이고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빗댄 말임을 알 수 있다.

② 소년이 일본인들에게 뺨장어를 판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행위로 인해 뺨장어를 살 만한 재력을 지닌 일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돈을 숨겨 가지고 있다가 도망가는 일본인 조합장을 잡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고무산이나 아오지’는 굼주린 자들이 ‘저영 할 수가 없으면’, ‘참다 참다 못해’ 가는 곳이므로,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굼주린 일본인들이 고무산인가 아오지로 간다는 차를 타기 위해 ‘이 조그마한 장터’로 모이고, 그 차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차기를 기다리다 떠남을 알 수 있다.

###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다아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 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B]의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허영계 툭툭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질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등의 외양이나 행동 묘사에서 관찰 대상인 패망한 일본인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소년이 과거에 본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관찰 대상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지는 않고, [B]는 ‘나’가 관찰한 대상의 모습 자체를 묘사하고 있을 뿐 관찰 대상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와 [B]에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④ [A]와 [B]는 모두 짧은 문장의 연속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지 않다.
- ⑤ [A]와 [B]에는 모두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노인이 앞서 패망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측은한 표현’으로 말한 것을 고려하면, 말 끝에 쉬는 한숨은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김 선생이 소년에게 질문을 하며 웃는 이유는 해방의 희열 때문이 아니라 소년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 ② 김 선생이 놀리고 있는 대상은 소년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김 선생이 일본인들이 살던 집을 얻어 사는 것은, 패망한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은 아니다.

④ ‘매 갈 데가 어딴니까.’라는 말은 매를 때릴 데가 없다는 말이므로, 이는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06

본문 177~180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②

####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해제**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세 병사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부상을 입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주 대위, 그런 주 대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김 일등병, 그리고 혼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가 죽음을 맞는 현 중위, 이렇게 세 사람이다. 작가는 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감각적이고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인간애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냈으며 써 전쟁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이들이 보이는 삶에 대한 의지

**전체 줄거리**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은 전쟁 중에 낙오하여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인 주 대위를 교대로 업어 가면서 이동하고 있다. 현 중위는 주 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을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 주 대위가 자결하도록 암묵적인 압력을 주지만 주 대위는 이를 애써 외면한다. 그러던 중 비참한 죽음의 상황을 상징하는 꿈의 이미지에 시달리던 현 중위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주 대위와 김 일등병 둘만 남기고 슬쩍 사라진다. 김 일등병이 혼자 주 대위를 업고 길을 떠나지만 더위와 굼주림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한다. 주 대위는 몇 달 전 부산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떠올리며, 타인을 위한 희생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두 사람은 혼자 떠났던 현 중위의 시신이 능선 뒤편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남은 기운마저 다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멀리서 들리는 아군의 대포 소리 덕에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갖게 되지만, 대포 소리가 나는 곳까지 너무 멀다는 사실에 절망한 주 대위는 자결을 선택하려 한다. 그 순간 주 대위는 대포 소리 시이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인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 김 일등병은 생존의 희망을 상실하고, 주 대위는 그런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자신을

업고서 인가가 있는 곳까지 견게 만든다. 인가에 도착하기 직전 주 대위는 의식을 잃고 만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이야기 외부의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서 김 일등병의 내면 의식을 묘사하고 있고, [B]는 이야기 외부의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서 주 대위의 내면 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김 일등병의 행동과 심리가 묘사되고 있다. 인물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A]는 인물들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닥쳐오리라는 절망감을 느끼는 김 일등병의 심리를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다.
- ③ [B]는 죽음을 직감한 주 대위가 진작 자결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되짚어 보는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과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서술자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현 중위가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부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김 일등병과 부상당한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주 대위는 알고 있다. 따라서 현 중위가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을 구해 주리라 기대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 대위는 ‘저 소릴 좀 듣게.’라고 말하며 김 일등병에게 아군의 대포 소리를 알리고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들의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고 있다.
- ② 현 중위가 떠났다는 주 대위의 말에 김 일등병은 무슨 말이라는 듯이 쳐다보며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라고 반문하고 있다.
- ③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까마귀들에게 훼손당한 현 중위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은 기운마저 빠져 버려 쓰러지듯이 드러눕고 있다.
- ⑤ 아군의 대포 소리라는 말에 기대를 품었던 김 일등병은 ‘사십리는 실히 되겠어.’라는 주 대위의 말에 도로 자리에 눕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김 일등병이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군의 대포

소리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 같은 김 일등병의 행동은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 지어 받아들이려는 인식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김 일등병은 다친 주 대위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업으려 하고 있다. 이는 한계 상황에서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다운 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산길을 헤매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다는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홀로 떠났던 현 중위는 눈알이 없는 시체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비참한 최후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김 일등병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김 일등병의 목숨을 살리려 마지막까지 상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0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가야 하는 상황에 지친 현 중위는 왕개미가 개미 떼의 목을 자르는 꿈을 떠올리며, 셋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구멍으로 나와 목이 잘리는 개미 떼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꿈을 꾸 이후 현 중위는 권력을 상징하는 왕개미와 같은 주 대위와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예감하고 셋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주 대위를 버리고 홀로 떠난다는 점에서 ㉠를 통해 불안감을 느낀 현 중위가 앞으로 보일 행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 중위의 꿈속에서 불모의 황야를 배경으로 개미 떼의 죽음이 목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주 대위와 현 중위의 갈등 해소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개미구멍 한옆에 따로 뿔려져 있는 셋구멍’에 대한 현 중위의 생각은 현 중위로 하여금 주 대위를 업고 이동해야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한다.
- ④ 현 중위의 꿈속에서 개미 떼는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을, 왕개미는 주 대위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는 왕개미의 모습이 주 대위의 과거 행적에 비유된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 ⑤ 현 중위는 꿈속에서 머리가 잘리는 개미 떼를 본 후 현재의 상황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현 중위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현대 소설 07

본문 181~184쪽

01 ②

02 ⑤

03 ①

## ■ 서정인, 「후송」

**해제** 이 작품은 희귀한 귓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자신의 병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인 성 중위는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군의관들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증세에 대해 설명하지만 군의관들은 그의 말을 좀처럼 귀담아 경청하지 않는다.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성 중위는 자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작품은 개인의 진실을 계속적으로 묵살하는 조직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주제** 개인의 진실과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정신적 상처

**전체 줄거리** 성 중위는 빈 깡통을 총으로 쏜 후 이명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포 사격장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다. 이전에 그는 후송을 위해 이명 증상을 호소하며 군의관을 찾아갔으나 계속해서 후송 불요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성 중위는 의무 참모의 도움으로 수도 육군 병원에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청력표를 받는다. 이후 성 중위는 제50 야전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도 육군 병원에서 작성된 의견서에 힘입어 제7 후송 병원으로의 후송 승인을 받는다. 제7 후송 병원으로 이송된 성 중위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실이 조직에 의해 묵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성 중위는 암담한 상황에서 과거 어느 여름 자신을 태워 주지 않은 차가 사고 나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을 회상한다. 결국 그는 많은 환지들과 함께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다.

##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군의관은 치료도 해 보지 않고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성의 없는 진료를 하고, 성 중위는 그런 군의관에게 항의를 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는 성 중위와 군의관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는 성 중위의 생각, 내면 등을 주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B]는 과거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A]는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B]는 공간의 이동

경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주로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B]는 인물의 의식을 연상 과정 그대로 제시하는 것, 즉 의식의 흐름 기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는 인물들의 대화로,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 주고 있지 않으며, [B]는 성 중위의 내면 제시로, 서술자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

##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성 중위는 대위의 말을 듣고 ‘환자가 되레 의사에게 약을 쓰는’ 상황을 되물으며 의아해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 약을 쓰는 것은 환자가 아닌 의사의 역할이라는 성 중위의 평소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곧 성 중위는 그러한 자신의 평소 생각과는 달리, 뇌물로서의 약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대위의 말처럼 환자가 도리어 의사에게 약을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 중위의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진료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성 중위의 증상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군의관의 모습을 통해 군의관이 성 중위의 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② ㉡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던 군의관의 시선이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멈춘 부분이다. 이후 군의관이 후송 상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때, 후송의 결정에 있어 환자인 성 중위 본인이 느끼는 증상보다는 서류에 포함된 의견과 같은 조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은 특별 치료를 위한 후송의 성사에 있어 후송 입원하라는 청력표의 의견 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은 어디로 후송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신과 달리, 후송이 되느냐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말을 듣고 성 중위가 반문하는 것으로, 군의관의 말에 대해 성 중위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군의관이 후송 심사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은, 후송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절차적 형식이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의 후송이 모두 개인 후송이 아닌 집단 후송의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것은, 후송 결정에 있어 위급한 상황 외의 개인의 고통이나 자각 증상과 같은 개인적 상황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의관이 후송 심사 위원회나 집단 후송을 언급하는 것을, 성 중위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원활한 후송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성 중위가 진료실을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의 병상 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언제 다 볼 수 있을지를 탄식하듯 언급하는 것은, 성 중위와의 대화를 그만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 ③ ‘약’은 서양 담배의 일종으로, 대위가 50야전에서 넘어올 때 썼던 뇌물을 의미한다. 뇌물을 씌우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약’을 쓰라는 대위의 말을 통해 성 중위가 속한 조직의 불합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후송을 위한 여러 번의 진료와 면담을 거치면서 대화를 번거로워하며 말까지 귀찮아지게 된 성 중위의 모습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난 이후 대화, 말 등과 같은 언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성 중위가 언어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상황에서 음악은 강요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 중위가 언어에 대해서는 강요를 느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중위가 언어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요를 느끼고 음악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후송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성 중위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합리적이고 진정한 소통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소설 08**

본문 185~188쪽

- 01 ④      02 ②      03 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해제** 이 작품은 1976년 발표된 중편 소설로, 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갈등 양상을 통해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파괴, 정치적 자유의 억압, 물질 중심적 사고의 확산, 분단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총 4부 가운데 1~3부에서는 동생 병식, 형 병국, 아버지의 시점을 통해 각각을 중심으로 한 사건과 내면의 서술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4부에서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시점에 의해 전체 사건이 마무리된다. 병국과 병식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향이, 아버지를 통해 실항민의 이름이 형상화되며, 특히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은 작품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주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삶

**전체 줄거리** 재수생인 병식은 동진강 하구에서 밀렵한 새를 박제 사에게 넘기고, 번 돈을 유희비로 쓴다. 그리고 한때 촉망받는 수재였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되어 낙향해 온 병국을 보며 실망한다. 낙향한 병국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품고 살아온 상처의 원인을 듣는다. 또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를 찾아 헤매면서 인근의 수질 오염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한편 아버지는 이북 출신 실항민으로 철새가 도래할 무렵이면 갯벌에 나가 새를 보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추억하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아버지는 해안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군 당국에 붙잡힌 병국을 데리고 오면서, 병식이 새 때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말을 병국에게 듣는다. 병국은 병식을 찾아가 잘못을 추궁하려다가 병식과 격렬하게 다툰다. 이후 술집에 갔다가 바깥에서 아버지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말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발걸음을 돌린다. 그리고 바다를 응시하다가 도요새가 날아오르는 환상을 본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이야기 속 서술자인 ‘나’(병국)가 회상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B]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적 서술을 통해 병국과 병식이 대화하면서 취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병식이 옹포리로 가는 장면과 옹포리의 아바이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을 역순행적으로 배치하여, 병식이 옹포리로 가는 사건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장면을 배치하고 있으며, 역순행적으로 장면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

② [A]와 [B]에 아바이집과 술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A]에 아버지의 옛 약혼자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는 인물 간 대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B]에는 대화 장면을 통해 병국과 병식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A]에 아버지와 대화 상황에 대한 병국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병국이 '아바이집'에서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옛 약혼자 때문임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병국이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버지가 약혼자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바이집'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되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병국은 '이 땅'이 자신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땅'을 병국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통천'은 아버지가 전쟁 발발 전 가족 및 약혼자와 함께 살던 고향의 지명이다. 따라서 '통천'을 아버지가 옛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란으로 인해 떠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병국은 병식에게 '석교천 방죽'에서 만난 일을 언급하며 당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따라서 '석교천 방죽'을, 병국이 병식이 새를 죽인 직후에 지나친 곳이라고 판단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병식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수는 없다는 병국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삼십 억 마리가 넘는 새들 중 오십 마리쯤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참새나 닭을 잡아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를 병국에게 따지고 있다. 따라서 '술집'을 병식이 병국의 생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항변하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를 참고할 때, 병국이 '떡살을 틀어쥐'고 병식과 대립한 이유는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병식의 관점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병국이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병국이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병식이 병국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병국이 병식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할 때,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

었다.'라는 병국의 생각은 병국이 새를 통해 자유에 대한 욕망을 떠올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도 그러한 '새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내용에서 새에 대한 병국의 강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병국이 '고등학교에 다닐 적' 이후 내륙에 공단이 조성된 뒤 '옹포리'는 더 이상 포구가 아니게 되며, 폐수 오염으로 인해 고기가 잡히지 않고 포장도로가 닦이자 유흥가로 변모한다. <보기>에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참고할 때, 이러한 '옹포리'의 변모 과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이면에 환경 파괴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실향민인 아버지는 도요새를 통해 떠나온 고향의 기억을 이어 가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요새를 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그가 고향에 남겨 둔 옛 약혼자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는데, 이는 남북 분단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실향민이 지니고 살아가는 아픔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할 때,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잇는' 것이 죄가 되느냐는 물음은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병식의 관점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병식의 이러한 관점은 그가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 사고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 현대 소설 09

본문 189~191쪽

01 ⑤

02 ①

03 ②

## ■ 박완서, 「겨울 나들이」

**해제**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와 남편, 아주머니와 노파의 삶을 통해 6·25 전쟁이 낳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나'의 현재와 아주머니, 노파의 과거 이야기가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폭력과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개인의 삶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그와 같은 작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제**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것의 극복

**전체 줄거리**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껴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섬을 느낀다. '나'는 호숫가의 한 여인 속에서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그녀를 극진히 봉양하는 아주머니를 만난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노파가 25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 온 아주머니의 삶에 감동을 받는다. '나'는 가족을 극진히 보살피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고부의 사연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지닌 남편과 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는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B]는 [B]에 등장하지 않는 서술자가 다른 인물인 아주머니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서술자가 사건의 중심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관찰자적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B]는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인공의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A]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B]는 주요 사건에 대한 서술과 인물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③ [A]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 '나'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B]는 [B] 외부에 위치한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A]는 '나'와 남편, 출가한 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나'의 내적인 갈등을 중심으로, [B]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상황 자체로 남편과 '나'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남편이 개인전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나'가 남편과 갈등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가 질투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린 그림 속 딸이 남편의 첫 번째 아내와 닮았고, 그것을 보며 남편이 딸을 통해 이복에 두고 온 첫 번째 아내를 떠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빨갱이가 물러갔는지 물러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방심하고 있다가 인민군을 만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뒤란에 간 이유는 애호박을 따기 위해서이고, 마침 그 시기에 애호박을 따려고 한 이유는 그 시기에 애호박이 잘 열릴 때이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

하다.

⑤ 인민군이 누구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은, 결국 인민군이 그녀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우연적인 사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가 남편과 갈등을 나타낸 것은 전쟁 이후의 일이므로, '나'의 상처가 전쟁 중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를 보면 시어머니가 인민군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몰라요, 몰라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에 놀란 아들이 나왔다가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보여 주는 '도리질'은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신의 남편을 죽게 한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처를 보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④ 전쟁은 대표적인 사회적 폭력이고, 인민군은 그 폭력을 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시어머니'는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의 '남편'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피해자이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소설 10

본문 192~194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②

■ 공선옥, 『명랑한 밤길』

**해제** 이 작품은 지방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 나가는 어린 가정의 이야기를 명랑하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몇 차례 데이트를 했던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을 우연히 듣고 그들과 연대 의식을 느낀다. 동명의 소설집 『명랑한 밤길』에서는 주로 여성 주인공들을 내세워 현실의 단면을 보여 준다.

**주제** 실연의 상처를 입은 여주인공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느끼는 연대 의식

**전체 줄거리** 지방 중소 도시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느끼며 단순한 일상에 무료함을 느낀다. 그 즈음 도시에서 이사 온 세련된 남자에게 반하여 그와의 데이트를 즐긴다. '나'는 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무궁해 채소라며 남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연대 의식을 느낀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방앗간 안에 몸을 숨긴 채 싸부딘과 깐주의 대화를 듣고 있었으며, 싸부딘과 깐주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 독방 길을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방앗간을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 남자로 인해 '나'의 감정이 격해졌고 비를 맞으며 방앗간을 나서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라는 내용을 통해 싸부딘의 가족이 한국에서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농공 단지 옆에서 만배는 돼지를 한 이백 두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 건으로 경찰서에 불러 가네 어찌네 곤욕을 치른 뒤에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라는 내용을 통해 만배가 돼지 농장을 운영하다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차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근길에 만배가 불러서 들어간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만배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음을 알 수 있다.

##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시선을 통해 만배와 외국인 노동자 남자의 대화가 서술되고 있다. '나'는 '나'를 소재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언행이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술자인 '나'와 주변 인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② 상황 전개에 따른 사건 변화의 추이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③ 서술자인 '나'의 논평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물의 긍정적 성격이 부각되지 않는다.

⑤ '나'의 감정이 제시되어 자기 고백적이라 할 수 있으나, 내면적 성찰이 엿보이지 않는다.

##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깐주는 사장으로 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 싸부딘은 형과 여동생의 가정 문제로 슬퍼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노래를 부르며 달래려 하고 있다. '나' 역시 실연의 슬픔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깐주와 싸부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노래를 부르며 '뚜벅뚜벅, 명랑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자신의 심경을 달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깐주와 싸부딘은 노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

② 깐주와 '나'의 노래하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③ 싸부딘과 '나'의 노래하는 행위는 모두 현재의 심경과 관련이 있으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상징하는 행동'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깐주와 싸부딘과 '나'의 노래하는 행위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자신의 각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만배의 경멸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사장인 만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친 언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편견을 보이는 것은 만배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니.'라는 말투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라는 깐주의 말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소수민이 당하는 모욕감과 슬픔을 어눌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깎जू와 짜부딘의 사연을 듣고 이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⑤ 우리 공동체 음식 문화인 ‘상추’, ‘고추’, ‘고추장’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역시 먹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그들이 우리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소설 11

본문 195~198쪽

01 ②

02 ②

03 ④

■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해제** 2000년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의 삶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실존적 관점을 통해 담아낸 소설이다. 서술자는 신홍 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다섯 노인들의 일상을 엮은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각 인물들은 모두 죽음을 의식하고 과거를 정리하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마다의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주제**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의 대응 방식

**전체 줄거리** 신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중산층 노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민 선생은 지하철을 타고 친구의 문상을 가는 길이다. 동승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한편 김 선생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시절 실수로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노년기에 정 선생과 한동네에 살게 되자 그에게 과오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에 정 선생은 자신 역시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를 털어놓으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박 선생은 위암에 걸린 친구의 부탁으로 은정이라는 초등 학교 동창생을 만나러 간다. 동창과의 만남 이후 잔잔한 여운을 느끼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실망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이 살아 있는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홍 선생은 홀로 양식집에 앉아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현재를 물고 늘어지며 살겠다는 결심을 드러낸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김 선생이 소년 시절 작은아버지에게 학교에서 목격할 수 상한 일을 일러바친 결과, 정 선생의 형이 무고하게 체포되어 결국 병사한 일을 보여 주는 일화이다. 이 일화는 김 선생이 정 선생을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사건의 맥락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서술자가 정 선생과 김 선생 간의 대화의 맥락을 보여 주는 과거의 사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인물 간 대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 학교 숙직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④ [A]에 소년 시절 김 선생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⑤ [A]에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두 인물 간의 이념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념적 차이가 원인이 되어 김 선생과 정 선생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앞의 대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정 선생이 김 선생을 재촉하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김 선생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화제를 털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 ‘힘든 기분’은 화제를 털어놓는 데 따르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 선생이 당산으로 이사 온 날 이후 김 선생이 겪게 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내용과 그 앞부분의 ‘몰라서 묻나?’를 통해 드러나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자신이 꺼낼 이야기를 정 선생이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김 선생이 ㉠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은 사람들이 저마다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정 선생의 일반론적인 말에 대한 김 선생의 반응이다. 김 선생이 자신 역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비밀로 간직하고 살아왔음을 ㉡과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김 선생은 자신의 진담에 대답할 차례라며 형의 죽음에 사과의 뜻을 표한 데 대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선생이 ‘농담’이라고 하면서 그와 무관하게 여겨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자, 김 선생이 정 선생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과 같이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김 선생이 과거의 실수로 인한 마음의 짐을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이어 가자 정 선생이 그 말을 끊고 있는 상황을 ㉣ 앞의 대화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김 선생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끊은 의도를 ㉣과 같이 짐작하여 정 선생에게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벽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김 선생이 정 선생에게 젊은 시절에 이룬 업적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김 선생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며 정 선생과 대화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김 선생은 정 선생과 ‘한동네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을 안 날 이후로 심사가 편치 않았다고 하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김 선생이 윤리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자의식을 지키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김 선생은 자신이 저지른 정 선생의 형과 관련된 과오를 고백하여 털어 내고자 정 선생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② 김 선생은 ‘자네 형님 사건’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마음의 짐을 정 선생에게 고백하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윤리성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을 지키고 정 선생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이중 삼중의 뉘우침’은 정 선생이 김 선생에게 고백한 과오들, 즉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 대학이나마 들어간’ 일,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먹’은 일 등으로 인해 정 선생이 노년기에 지니고 살아가는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정 선생은 과거의 선택들로 인한 뉘우침을 안고 산다면서 ‘완전 종결’은 없고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 선생의 생각과 <보기>를 참고할 때 혹은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의 말은, 노년 역시 노년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책임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12

본문 199~201쪽

01 ①

02 ②

03 ④

## ■ 김애란, 「도도한 생활」

**해제** 이 작품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의 현실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는 살아갈 발판을 마련하기 힘든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소설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피아노’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나’가 머물고 있는 지하방과 피아노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젊은이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피아노 음계 ‘도’의 반복되는 소리와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도도한 생활을 이중적으로 의미한다.

**주제** 청년들이 처한 고단한 삶과 자존을 지키려는 노력

**전체 줄거리** 부지런한 엄마는 열심히 만두 가게를 꾸려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보통’의 기준에 맞춰 살아 보고자 생각하게 되고, 이를 둘째 딸인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는 것으로 실천한다. 피아노가 만두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나’에게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빚보증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 ‘기념비’처럼 피아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엄마의 부탁으로, 성년이 된 ‘나’는 피아노를 갖고 서울 반지하방으로 옮겨 온다. ‘나’는 언니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서울 생활을 버티고, 피아노는 습기와 곰팡이로 점점 망가져 간다. 어느 날 폭우로 반지하방에 물이 차오르게 되는데, ‘나’는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집주인의 말을 어기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나의 ‘도도한 생활’을 지키려고 한다.

##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피아노 소리인 ‘도’ 음, 즉 청각적인 대상을 ‘날아다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인 대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인물의 태도를 볼 때, 대상에 대한 공허함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주인 남자의 말을 듣고 난 후 그 말에 대해 ‘나’가 웬지 나쁘다고 생각하며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에서는 주인 남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부당함을 느끼도록 만든 상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안 맞을 경우’, ‘밤을 새울 터였다’와 같이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언니가 처해 있을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④ ㉢은 벽면을 ‘눈물을 똑똑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인격체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가 처한 현실의 비통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부르릉’과 같은 음성 상징어, ‘가슴을 굽고 가는 기분’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2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꿈은 ‘나’의 일인 타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고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낀 ‘나’의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나’가 처해 있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힘든 생활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꿈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나’의 꿈은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나’의 가족인 언니, 또는 그 외 가족들과의 불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나’의 꿈은 타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나’는 자신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아무도 모르는 일’, 평생 할 수는 없는 일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자신의 일인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꿈을 ‘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나’의 꿈은 힘든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됨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나’의 꿈을 ‘나’가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의 치유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반지하 셋방에 살며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 처지의 ‘나’가 주인 남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일종의 사회적 억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며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혼자 생각한다. 몰래 치는 한 음 정도의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다. 금방 사라져 버릴, 몰래 치는 한 음에 대한 혼자만의 생각과 예측을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분노, 즉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아무도 모를, 몰래 치는 한 음에 대한 혼자만의 예상을 ‘나’가 억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인 남자에게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가 말하는 피로나 긴장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나’가 주변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공간이 없는, 즉 안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생활을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처지로 여기고 있으며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가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는 생활을 평안하게 안주하기 어려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마철에 온 방이 눅눅한 상태에서 다른 물건보다 피아노가 썩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나’가 피아노를 매우 소중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폭우로 인해 반지하방이 물에 잠겨 가는 것은 ‘나’가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피아노를 걱정하며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물이 차오르는 압박한 상황에서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건반을 짚어 가며 용감하게 피아노를 친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열악하고 압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로 인한 환멸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존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극·수필 01**

본문 202~205쪽

01 ①

02 ⑤

03 ④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해제** 이 작품은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면극으로, 총 13과장(科場)으로 나뉜다. 가면극 공연은 대체로 널찍한 마당에서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벌어지는데, 내용 전개 과정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산대놀이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발전한 가면극 놀이로, 이때 ‘산대’란 임시 무대를 가리킨다. 제시된 장면은 제11과장으로, 말뚝이가 산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산대놀이를 보러 왔다가 양반들이 머물 거처를 돼지 우리로 정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층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비판 정신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보여 준다.

**주제** 무능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구성**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움중놀이, 제3과장 움중과 먹중놀이, 제4과장 연잎과 눈곱적이놀이, 제5과장 염불놀이, 제6과장 침놀이, 제7과장 애사당법고놀이, 제8과장 파계승놀이, 제9과장 신장수놀이, 제10과장 취발이놀이, 제11과장 의막사령놀이,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제13과장 신할아비와 미알할미놀이로 구성된다. 제1과장부터 제13과장은 파계승, 몰락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등이 등장하여 지배 계층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수록 부분인 제11과장은, 말뚝이가 쇠뚝이에게 양반들의 의막을 정해 달라고 부탁한 뒤, 쇠뚝이가 지어 준 돼지우리와 같은 의막에 양반들이 들어가는 장면, 쇠뚝이가 양반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 장면 등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주된 내용이다.

##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 쓰인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전골로’, ‘언청 다리 쇠경다리’ 등은 일종의 언어유희적 진술이다. 언어유희는 주로 유사한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 배치함으로써 재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A]의 장면은 언어유희적 진술을 통해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에서 말뚝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친밀감을 표현한 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서 장소를 나열하고 이동 경로를 말하고는 있으나 이를 배경에 대해 그림을 그리듯 상세하게 표현한 묘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통해 갈등 상황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④ [A]는 양반의 질문에 대한 말뚝이의 답변이므로 이를 내적 독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A]의, 말뚝이가 샌님을 찾아다녔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고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말뚝이의 행동이 지닌 교훈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서 말뚝이의 행동에 대한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움직임이 실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극 중 공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를 통해, 실제 연행이 이루어졌던 경기도 지방인 양주와 극 중 장소인 ‘양주 땅’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㉒의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난 뒤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의막이라는 일정한 무대 장치가 설정됨을 알 수 있다.
- ③ ㉓의 악사들이 연주하면 쇠뚝이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뒤를 돈다거나, 악사들이 연주를 중지하면 쇠뚝이가 말뚝이에게 가는 것을 통해, 악공의 역할이 극의 진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에서 ‘쳐라’와 같은 인물의 대사, 악공의 음악, 인물의 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면극인 ‘양주 별산대놀이’가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에는 말뚝이의 말에 대한 반복이 나타난다. 이는 초라한 양반의 행색을 드러낸 표현으로, 경제적 몰락으로 빈곤해진 양반에 대한 일종의 놀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양반의 처지에 대한 동정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양반의 거처로 삼은 초라한 의막을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반어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는 양반을 짐승처럼 묘는 말뚝이의 행동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를 통해 말뚝이가 양반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말뚝이가 쇠뚝이에게 양반을 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이라는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양반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남용해 벼슬을 주는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뚝이의 발언은 양반들의 그러한 부정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 자와 번 자를 붙여 읽으면 아번이다. 이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한데, 쇠뚝이는 양반에게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하다며 자신을 그렇게 불러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양반이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는 것으로,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극·수필 02

본문 206~209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③

## ■ 박지원, 「수레 제도」

**해제**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연행록(燕行錄) 『열하일기』의 「일신수필」에 실린 수필로,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중국 여행 중 목격한 수레의 여러 쓰임과 효용을 언급하고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수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양한 수레들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수레에 대한 탐구 경험과 배경지식을 중국에서의 견문과 관련지어 서술함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실학파로 분류되는 글쓴이의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과 실사구시적 태도, 당대의 지배 계층인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주제** 중국 수레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레 도입의 필요성

**구성**

- 도입부: 태평차, 대차, 독륜차에 대한 소개
- 중심부: 수레 제도의 연구와 수레 도입의 필요성(수록 부분)
- 종결부: 중국 수레의 다양한 쓰임과 원리(수록 부분)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타므로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사라진다면서, 우리나라의 고치를 켜는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수레가 옹차, 역차, 수차, 포차 등 수천 수백 가지가 있지만 이를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민생과 관계된 종류의 수레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종류의 수레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천 리 길을 오면서’ 본 수레들이 ‘하나의 바퀴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간격의 바퀴를 가진 수레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만들어진 모양임을 설명하면서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생선 창자가 ‘바닷가 사람들’에게 발의 기름으로 쓰일 정도로 흔하게 취급되지만 서울에 오면 귀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수레의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글쓴이는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이 물자를 ‘가져올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수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수레의 일종인 소차가 작동하는 원리와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소차가 작동한 결과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어지고 나오는 실의 바탕이 깨끗해 이를 바로 베틀에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차가 지니는 효용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소차를 통해 인간의 덕목을 유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A]는 소차의 쓰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수레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A]에 소차가 널리 쓰이는 상황을 나열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

지 않다.

⑤ [A]에서 소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다른 살아 있는 대상에 빗대어 묘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가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중용』의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을 반박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중국의 ‘검각’과 ‘태항산’의 험한 곳에도 수레가 다닌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을 반박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수레가 ‘바퀴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법식에 맞는, 즉 바퀴 간격을 통일한 수레가 다니면 좁은 길거리와 높은 고갯마루도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역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을 반박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닳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여 수레가 다니게 되면 길 역시 자연스럽게 뚫릴 것이라는 예측을 드러내어 ㉠을 반박하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누가 싫다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각지의 특산물이 유통되면 일상적 생활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백성들 누구나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을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레를 통해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러한 생각은 연암 박지원의 이용후생에 대한 학문적 지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담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는 글쓴이가 중국에서 목격한 수레바퀴의 자국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행 전 수레바퀴의 간격에 대해 탐구한 경험을 제시한 것

이다. 이 부분에서 기존의 탐구 경험과 관련지어 수레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은 사대부들이 수레를 만드는 법이나 수레를 부리는 법과 같은 구체적인 지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례』의 수레와 관련된 용어들만 입으로 외우는 태도를 문제 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쪼는 법’을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치를 쪼 때 소차를 사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글쓴이의 이러한 모습에서, 수레에 관한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극·수필 03

본문 210~211쪽

01 ②

02 ③

03 ③

### ■ 허균, 「통곡헌기」

**해제** 이 글은 글쓴이 허균의 조카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짓게 된 내력과 그에 대한 허균 자신의 생각을 담은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인 삶을 산 ‘가의, 목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이들이 ‘곡’하는 것은 일반적인 ‘곡’과는 다르게 시대의 아픔을 맞아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히며,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말세에 가깝다며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매우 불우한 시대임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불우한 시대를 맞아 허친이 자신의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 구성

- 기: 사람들이 조카 허친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물음.
- 승: 허친이 사람들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밝힘.
- 전: 글쓴이가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붙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함.
- 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힘.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허친을 비롯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 글에서 허친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에게 허친을 설득해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곡을 싫어하므로,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 ③ ‘나’는 통곡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허친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통곡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려 하였다.
- ④ ‘나’는 지금의 현명한 선비들이 곤역을 피해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 버리는 계획을 짜낸다고 하였다.
- ⑤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환락을 즐기고, 우쭐대고 기분 내기와 부귀나 영예 등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 0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허친은 자신의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지었다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곡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허친이 잘못된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허친은 이러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체험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곡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편액을 걸었느냐며 허친을 비판하고 있다.
- ② ㉜에서 허친은 환락, 부귀와 영예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허친의 태도에는 세속적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㉝에서 글쓴이는 현재 국가나 선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상황을 제시하며 지금 시대가 통곡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군자들이 이 시대를 본다면 통곡이 아니라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당대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먼저 일곱 가지 정 중에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 없다고 밝힌 후에, 인용한 군자들이 모두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군자가 세상사와 관련한 자신의 슬픈 심정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데 통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슬픔에 이르면 곡을 한다고 했을 뿐, 통곡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다는 언급은 없다.

- ② 일곱 가지 감정 중 슬픔이 가장 감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했을 뿐,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언급은 없다.
- ④ 곡에도 도가 있다고는 했지만, 통곡이 도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언급은 없다.
- ⑤ 군자가 공적인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과 아녀자가 사적인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을 구별하며, 전자의 곡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극·수필 04

본문 212~214쪽

01 ②      02 ⑤      03 ⑤

■ 김창흡, 「낙치설」

**해제**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이가 빠지게 되자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한 자신을 반성하고 안정된 정신과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이가 빠져 책을 제대로 소리 내어 읽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인생의 근원적 의미를 찾기 위해 독서를 즐기는 글쓴이에게 심각한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시련에 절망하지 않는다. 삶의 어느 순간이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주제** 늙어서 이가 빠진 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함.

구성

- 전반부: 이가 빠지는 체험을 한 뒤 분수에 맞지 않게 산 지난날을 반성함.
- 후반부: 노인으로서 분수를 알고, 분수와 천리에 맞게 살고자 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설의적 표현으로, 글쓴이가 질문을 던지긴 했으나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입술이 일그러지고’,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 등 글쓴이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평생 공부를 하여 삶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자’의 사례를 통해 나이 들음으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면 ~고, ~면 ~다’의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 나타난 문제는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변화를 잊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데, [B]에서는 나이 들음으로 인해 나타난 외형적 변화를 인정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하고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제기된 문제는 외형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무리가 생긴 것이고, [B]에 나타난 사실은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글쓴이가 순리를 깨닫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A]의 문제를 해소하게 할 뿐, 문제를 확장하지는 않는다.
- ② [B]에 제시된 상황을 글쓴이가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A]가 원인이 되어 [B]의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 나타난 현실 인식은 [B]에 와서 전환될 뿐, 구체화되지 않는다.
- ④ [B]에서 글쓴이가 정서적으로 좌절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마지막 문단에서 요절과 장수를 언급한 것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초월한다는 맥락에서 한 것이지,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가에 따라 요절과 장수가 나뉘진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체험은 이가 빠져 얼굴이 변한 것이고, 글쓴이는 이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가 빠진 상황에 대해 글쓴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가 빠져 음식을 먹기 불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소리 내어 읽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이가 빠지는 체험 끝에 ‘늙음을 편안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는 자연이 주는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극·수필 05

본문 215~217쪽

01 ②

02 ②

03 ④

## ■ 이강백, 「알」

**해제** 1972년에 초연된 「알」은 장막극으로, 박물관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자는 공룡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통치하며 알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유지한다. 박물관장과 대치하는 ‘시민 라’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신념과 언행을 일치시키려는 인물인 반면, 나머지 시민들은 자신의 인락함을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편법을 찾는 인물들로, 이들의 생리를 파악한 박물관장에게 이용당한다.

**주제** 부당한 권력의 탄생과 유지

**전체 줄거리** 공룡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시민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출한다. 어느 날 박물관장은 큰 알을 들고 나타나 알에서 공룡을 물리칠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알에서 태어날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결심하고 자결을 한다. 왕이 죽자 박물관장은 알에는 공룡이 들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시민들의 합의 없이 알을 발견한 공룡을 이유로 스스로 왕의 대리자 노릇을 하며 최고 권력을 누린다. ‘시민 라’는 직언을 하며 박물관장과 대립하지만 박물관장의 계략으로 목숨을 건 노름을 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시민 라’는 알 속에 임금이 들어 있다고 믿을 것을 연설한다. ‘시민 라’의 연설에 ‘시민 나’가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의 임금을 믿겠노라 말하진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알 속에서 위대한 임금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민 라’는 ‘박물관장’에게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알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
- ③ ‘박물관장’은 ‘시민 나’, ‘시민 다’, ‘시민 가’에게 차례로 알 속에 임금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대 보라고 따져 묻는다.
- ④ ‘시민 가’는 ‘시민 라’의 연설을 듣고 알 속의 임금을 믿노라고 말한다. 또 박물관장의 물음에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섭니다.’라고 대답한다. ‘시민 다’ 역시 ‘시민 라’의 연설을 듣고 알 속의 임금을 믿겠다고 말한다. 또 박물관장의 물음에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모두 객관적인 증거나 자기 확신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좇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⑤ ‘박물관장’은 ‘그 괴물이 부화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거나 해? 너희들은 잡아먹혀거나, 아니면 대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

어야 한다구.’라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겁을 준다.

##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박물관장’은 시민들에게 석회 덩어리에 불과한 알에서 임금님이나 공룡이 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시민들은 ‘시민 라’의 말을 듣고 임금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만, ‘박물관장’의 말을 듣고 공룡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민들이여, 여기 전왕의 피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에 위대한 임금의 실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시민 라’의 말에서 알이 과거 기억을 환기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알을 통해 ‘박물관장’의 학식이나 전문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④ ‘시민 가, 나, 다’는 알 속의 임금님에 대한 기대나 알 속의 공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박물관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반면 ‘시민 라’는 ‘박물관장’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알이 불만을 잊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시민들은 ‘박물관장’의 말에 따라 기대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지만 ‘박물관장’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알을 통해 긍정적 결말이 암시되지도 않는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권력자인 ‘박물관장’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민 라’에게 권력관계 형성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것으로 우월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 라’는 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민 라’는 ‘박물관장’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민 라’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 ② ‘오늘 저녁 무렵엔 위대한신 임금이 부화되어 나오십니다.’, 시민들은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라는 ‘시민 라’의 발언에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는 ‘알 속의 임금님’을 기대하는 것이며 싸우기를 다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군중들은 ‘박물관장’의 ‘햇빛을 받아 알이 뜨듯해지기 시작했군. 이크! 벌써 꿈틀거린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의심을 품지 못하

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박물관장’을 찌르지 못하는 것은 알에 대한 정보를 ‘박물관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의 우위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극·수필 06

본문 218~220쪽

01 ④

02 ④

03 ⑤

■ 차범석, 「불모지」

**해제** 1957년에 발표된 2막짜리 장막극으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한 희곡이다. 최 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 극 중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위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각각 최 노인이 고수하려고 하는 전근대적 가치와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 노인과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 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훈구 대여업이 몰락해 가는 상황과,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제대 군인 경수와 허영심에 차 영화배우를 꿈꾸던 경애가 결국 파멸하는 장면은,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어둡고 불안한 시대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전후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족의 해체와 신구 가치관의 대립

**전체 줄거리** 최 노인 부부는 서울 도심에서 전통 훈구 대여업을 하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주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주거 여건이 나빠지고 최 노인의 사업도 쇠퇴하자, 셋째 경운이 식자공으로 일하며 버는 수입에 의존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인다. 가족들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팔고 교외로 이사 갈 것을 최 노인에게 권하지만, 집에 애착을 가진 최 노인은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한편 제대 군인인 장남 경수는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삶을 비판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며, 배우를 꿈꾸던 장녀 경애 역시 사기를 당해 울분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두 자녀의 비극을 목도한 최 노인은 대성통곡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최 노인이 경재가 경애와 대화하며 현실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경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다. 경재는 집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최 노인에게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최 노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재가 집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준 점을 최 노인이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최 노인이 죄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비속어를 내뱉고 불만을 드러내는 대화의 맥락과, 그 집들을 지은 사람들이 염치가 없음을 문제 삼는 ㉑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 노인이 집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최 노인이 주위에 새로 지어진 집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한탄하는데, 경재가 그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보인다. 경재가 웃는 이유를 묻는 ㉒에는 경재의 그러한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최 노인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㉓은 최 노인이 집을 처분하고 후생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을 아내에게 나타내려고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㉔은 최 노인이, 활동사진 배우가 되어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 오겠다는 경애의 허황된 기대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최 노인은 밖으로 나다니는 경수에 대해 얄치없이 높고 먹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머니와 경운은 경수가 취직하지 못하는 것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어서 속은 편치 않을 것이라며 경수를 두둔하고 있다. 이처럼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빨래’와 같은 무대 소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품들을 매개로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A]에서 경수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무대 배경이 교체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서 경애가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물의 퇴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는 양상 또한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최 노인, 경운, 경애의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신세대에 속하는 경애의 가치관을 상

정하는 소재로 볼 수는 있지만,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인 최 노인과 신세대가 그 필요성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경제가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인생과 역사는 늘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제시한 인간상이다. 이는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이 집’은 최 노인이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며,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경수는 신세대의 인물이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 주’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경수의 상황은 전후의 암담한 현실에서 방황하고 좌절을 겪는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사모관대나 원삼 쪽도리’와 같은 전통 혼구를 더 이상 찾지 않아 장사가 되지 않자, 최 노인이 세상을 ‘골목 안 뚝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며 한탄한다. 이는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 상황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극·수필 07

본문 221~224쪽

01 ③

02 ③

03 ③

#### ■ 윤홍길 원작, 윤삼욱 각색, 「장마」

**해제** 이 작품은 윤홍길의 소설 「장마」를 각색한 시나리오 작품으로, 어린 ‘동만’이 6·25 전쟁을 겪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이들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로 해소되기에 이른다.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집간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그 충격으로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이를 빨치산으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

하여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게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점쟁이 구렁이를 달래 보낸다.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형사는 초콜릿을 주겠노라 제안하며 동만에게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형사는 동만이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초콜릿을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개 버리면서 빨리 삼촌의 이야기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만의 눈이 커지는 것은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 ② 삼촌의 이야기를 하는 대가로 초콜릿을 먹는다는 죄책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상으로 초콜릿을 받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 ④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⑤ 동만을 때리는 친할머니는 자신을 말리며 동만을 두둔하는 외할머니의 말이 자신의 아들이 끌려가 고난을 겪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악담이라고 간주하며 분노하고 있다.

##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동만에게 초콜릿을 주며 삼촌의 소식을 캐묻은 형사는 맥고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를 결박 지워 끌고 나오는 사내 역시 맥고모자를 썼다는 것은, 동만에게 삼촌의 소식을 캐묻은 형사와 아버지를 끌고 가는 사내가 동일한 인물임을 암시하며, 동만이 형사에게 실토한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가 끌려간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밝은 색깔의 맥고모자를 형사의 의상으로 연출하더라도 형사가 아버지를 곧 풀어 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만은 형사가 내미는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에 삼촌의 이야기를 하고 만다. 따라서 형사가 내미는 초콜릿은 동만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만큼 크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적절하다.
- ② 까치를 잡고 돌아오는 동만이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집 앞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동만의 가족에게 사건이 발생

했음을 암시한다.

④ 여인들의 울음소리는 동만의 아버지가 끌려가자 걱정과 슬픔에서 터져 나온 소리이므로 동만의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적절하다.

⑤ 친할머니가 동만에게 부지깽이를 휘두르는 것은 동만이 삼촌의 이야기를 형사에게 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히는 대로 집어 들고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가 소품으로 적절하다.

### 03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서 ‘할머니’의 비위가 상했던 이유는 삼촌이 다녀간 일을 낫모르는 사람에게 말한 ‘나’를 외할머니가 감쌌기 때문이다. 삼촌의 일을 낫모르는 사람에게 말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행동이 #S89에서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이라는 지시문으로 각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할머니’가 비위가 상했던 원인이 아니며, ‘동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가 ‘나’(동만)의 시선으로 서술되고 있다. 반면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각각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대사나 행동을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② <보기>의 ‘낫모르는 사람’은 시나리오에서 ‘형사’로 각색되었다. 이는 원작인 소설보다 구체적으로 인물을 설정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나’가 할머니의 말을 옮겨 ‘나’에 대한 분노를 서술한 반면, S#90에서는 친할머니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공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으로 서술한 반면, S#90에서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대사를 주고받으며 동만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극·수필 08

문분 225~227쪽

01 ⑤

02 ⑤

03 ⑤

#### ■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해제** 이 작품은 이도(세종)가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의 대본이다. 한글을 창제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측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한글 창제로

인해 자신들이 누려 왔던 특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권력층과 대립하고, 또한 힘에 의한 정치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태종과 대립하면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이도의 신념이 작품 전반에 펼쳐진다.

#### 주제 한글 창제에 담긴 이도의 정치 이념과 갈등

**전체 줄거리** 세자 이도는 아버지 이방왕과는 다른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하며 아버지와 대립한다. 왕이 된 이도가 집현전 학자들과 비밀스럽게 한글을 창제하고, 그 와중에 궁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살인의 배후는 기득권 세력 집단인 밀본이다. 이도는 강채윤으로 하여금 살인자를 추적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자책한다. 이 과정에서 이도는 소이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 창제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 한편,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도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밀본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도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던 강채윤은 이도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편이 된다. 그리고 한글의 정체를 알게 된 밀본은 한글 반포를 막는 데 조직의 생사를 건다. 어떻게든 한글 반포를 해내려는 이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밀본의 싸움이 이어지고, 강채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마침내 한글이 반포된다.

### 01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모든 장면에서 한글 창제의 열망을 가진 이도와 신하들 간의 논쟁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는 여러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장면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이 드러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④ 이 글의 모든 장면은 모두 상이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S#13에서 이도는 혜강에게 한글 창제의 정당성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도전의 말을 인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관료들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가 혜강이라는 특정 인물이 저질렀던 독단과 횡포를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혜강은 패도의 ‘武(무)’라는 글자를 예로 들어, 이도의 글자가 지닌 단점을 부각하고 있다.

② 혜강은 이도에게 한글을 만드는 일이 성리학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글 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③ 이도는 자신이 글자를 만들려는 것은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인 백성의 언로를 띄워 주기 위함이라고 언급하며, 한글 창제는 곧 유학을 버리는 것이라는 해강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④ 이도는 삼봉 정도전의 글을 인용하여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 03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는 여러 개의 짧은 컷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컷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의 말이 짧게 제시된 후 이를 논박하는 이도의 말을 중심으로 장면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도의 말이 짧은 컷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한글 창제에 대한 이도의 열망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여러 컷 중 한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다양한 특징이 제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에는 한글 창제를 둘러싼 이도와 신하들 간의 논쟁이 드러나 있을 뿐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에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글 창제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한글 창제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여러 개의 컷을 통해 한글 창제에 대한 이도와 신하들 간의 논쟁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한글 창제의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 극·수필 09

본문 228~230쪽

01 ⑤

02 ②

03 ①

#### ■ 이상, 「산촌 여정」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1935년 여름 평안남도 성천에 머물며 체험한 산촌의 풍물과 정취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사물을 도회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점에서 글쓴이의 개성과 참신함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산촌의 정경과 그에 대한 도시인의 정서

#### 구성

- 처음: 산촌의 밤에 대한 정취와 도회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수록 부분)
- 중간 1: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과 화단의 식물들을 보며 느끼는 감상(수록 부분)
- 중간 2: 들판, 시냇가, 학교 등을 걸으며 주위의 풍경과 마주친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감회
- 끝: 객주집 방으로 돌아와 떠올리는 도회에 대한 향수와 질병, 가족들에 대한 근심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E]에는 ‘나’가 화단의 식물들을 보며 느끼는 감상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보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맑은 공기, 무수히 빛나는 별, 고요함 등을 바탕으로 산촌의 밤 정경과 느낌 등을 서술하고 있다.

② [B]는 석유 등잔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베짖이 울음소리에 대한 느낌과 감상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C]는 꿈에서 본 가난한 가족들의 모습과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④ [D]에서 글쓴이는 온종일 화초만 보며 놀겠다는 다짐이나 근심을 문지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꿈을 꾸고 난 후 힘든 마음을 달래며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군청 빛 ‘모’는 비유적 표현으로, 각각 ‘베짖이 울음소리’와 비망록에 쓴 글자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는 자연물과 자신이 쓴 글자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일부로써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정 형!’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 감지—를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과거의 일을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 ‘세실, 비(B), 데밀’은 각각 외국의 회사, 외국 배우의 이름으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이국적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할

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하루’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데, 이를 ‘짐’과 같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오렌지’, ‘세피아’ 등은 외래어이고 ‘빛’은 우리말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혼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팔봉산’은 도회보다는 낯선 곳이기에는 하나, 성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성천은 글쓴이에게 심신의 휴식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므로 ‘팔봉산’을 글쓴이로 하여금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보기>를 통해 성천은 글쓴이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성천의 맑은 공기와 밝은 별빛 아래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빛’을 글쓴이가 성천에서 느끼는 평안함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를 통해 성천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흰 나비’를 글쓴이로 볼 경우, 때가 묻었다는 것은 글쓴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천의 자연과는 다르게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보기>를 통해 글쓴이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성천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지고리가 서도 천 리를 따라 성천에 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의 ‘천 리’는 아주 먼 거리를 뜻하는 말로, ‘서도(西道) 천 리’는 글쓴이가 고향인 도시와 낯선 성천 사이에서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는 ‘고향’은 성천과는 다른 곳, 즉 ‘도회’임을 알 수 있다. ‘화려한’이라는 수식어를 활용하여 성천과는 다른 도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견문과 역사에 관한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글쓴이는 허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허난설헌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을 탐방하고 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한편, 오늘날의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적 고뇌에 주목함으로써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일에 동참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주제**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삶의 가치

#### 구성

- 처음: 애일당 옛터와 오죽헌에서 떠올린 허균, 율곡과 신사임당에 대한 상념
- 중간: 허난설헌의 생애와, 시대의 모순에 맞선 인간적 고뇌에 주목하는 일의 중요성
- 끝: 허난설헌 무덤의 모습과, 비극이 주는 가치

###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허난설헌의 무덤’에 도달하기까지 ‘애일당 옛터’, ‘오죽헌’ 등의 장소를 거쳐 온 여정의 순서에 따라 장소들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은은한 국화 향기’,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 ‘중부 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쉴 새 없이 귓전을 활쾨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 등과 같이 각 장소가 주는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통념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② 글쓴이는 견문과 관련된 자신의 상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견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일화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글쓴이는 애일당 옛터가 허균이 태어난 곳이라는 점, 오죽헌에 율곡과 사임당 신 씨가 모셔져 있다는 점을 떠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글쓴이는 애일당 옛터, 오죽헌, 허난설헌의 무덤 등을 각각 방문한 경험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 처음 방문했던 경험과 다시 방문한 경험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에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 놓고 소지 올려 냈을 부르’던 ‘허초희의 음성’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허난설헌의 ‘인간적 고뇌’가 나타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극·수필 10

본문 231~233쪽

01 ④

02 ④

03 ②

■ 신영복,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의 기행 수필집 『나무야 나무야』에 실려 있으며, 수필집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하여 서간문의 문체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여행지에서의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허난설헌의 무덤을 찾아갈 결심을 한 것이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는 허균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의 한 구절'을 통해 허균의 생가 터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으며, 허균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 ③ 글쓴이는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에서 '봉건적 질곡의 흔적'을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화조도'에 신사임당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글쓴이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당신'이 글쓴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모순을 비켜 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쓴이가 '당신'이 '시대의 모순을 비켜 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태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는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여 질서의 정점에 오른 이이의 역사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이의 삶에 열중하는 오늘날의 세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이이와 대비되는 허난설헌의 삶에 주목한다. 그리고 허난설헌의 비극적 삶과 인간적 고뇌에 주목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 이이의 미덕을 현재화하여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다는 서술은 허균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죽었기에 자신의 비극적 최후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없었을 것이라는 글쓴이의 추측이 담긴 표현이다. 여기에는 허균의 생애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현모의 귀감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언급한 신사임당은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이이를 길러 내었으나, 허난설헌은 '정승 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한 삶을 살았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글쓴이는 두 삶을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허난설헌의 인간적 고뇌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완강한 장벽'은 '사임당과 울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 '즐거움을 주는 것' 등이 의미하는 경쟁을 통한 성취와 쾌락을 중시하는 풍조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벽'이 '완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풍조가 공고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여기는 글쓴이

의 관점이 투영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글쓴이는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우리를 힘 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겪는 아픔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독자들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 준다.

**갈래 복합 01**

본문 234~238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 서호수, 「열하기유」**

**해제** 이 작품은 서호수가 1790년(정조 14년) 청나라 건륭제의 팔순 만수절 진하검사는부사로서 열하와 북경을 다녀오며 중요한 사건과 견문을 기록한 연행 일기이다. 작가는 사행을 출발한 날부터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체를 4권으로 나누어 연행 경로를 표시하였다. 연행 중 거쳐 간 지역의 연혁과 당시 수비 병력 등의 현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조의 인물이나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 외국 사절과의 교류 과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궁중 극장에서 관람한 당시 청나라 궁중 연극을 기록하여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조선 사대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

**구성**

- 제1권: 진강성에서 열하까지 - 출발에서부터 열하까지의 노정, 여행자로서의 개인적인 순회
- 제2권: 열하에서 원명원까지 - 열하에서 유숙하고 원명원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 청나라 황제를 알현한 내용
- 제3권: 원명원에서 연경까지 - 원명원에서 유숙하고 연경에서 머문 일까지의 기록
- 제4권: 연경에서 진강성까지 - 연경을 출발하여 진강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 임금에 대한 복명 내용

**㉡ 홍순학, 「연행기」**

**해제** 이 작품은 1866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하기 위하여 사행의 일원이 된 홍순학이 한양을 출발하여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총 133일 동안의 견문을 기록한 기행 기사이다. 작가는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심정과 청나라에 도착한 후 느낀 심회, 청나라 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여행기로서의 문학적 의의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제** 청나라 사행의 일원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여정과 견문

**구성**

- 국내 여정(한양 → 의주): 사행 행차의 동기과 구성, 조선의 강역(疆域)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의의

- 국외 여정(압록강 → 북경): 청으로 사행을 떠나야 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착잡함, 청의 문물에 대한 놀라움과 청에 대한 적개심
- 귀로 여정(북경 → 한양):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에게 복명하는 모습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글쓴이는 원명원과 관련된 장소를 언급하며, 원명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서산과 관련된 장소를 언급하며, 옛 흔적만 남아 있는 원명원을 바라보며 떠올린 생각과 그곳에 있는 십칠교 다리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는 신유년에 일어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가)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다.
- ③ (나)는 청나라와 영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 흔적만 남아 있는 원명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삶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원명원이 변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청나라를 방문하며 새롭게 알게 된 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글쓴이는 십이시 신상의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십이시 신상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을 뿐, 십이시 신상의 작동 원리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동남하를 거슬러 올라’, ‘봉도요대를 거쳐’, ‘위주를 뚫고’, ‘영훈정 앞 물’과 같이 공간의 이름을 나열하며 글쓴이의 이동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젓더미는 몇 곳이나’라는 물음의 형식과 ‘매운 재가 되었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린 원명원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십칠교 다리 아래의 홍예 구멍을 ‘우리나라 남대문’과 비교하며 십칠교 다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홍예문과 다리의 옥난간의 모습을 ‘백

룡이 오르는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십칠교 다리의 웅장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 터인가 / 채색 기와 부스러져 와락 더미 태산 같고’와 ‘섬 속의 층층월대 동정유승 정자 터라’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백옥으로 새긴 섬돌’과 ‘섬 속의 층층월대’는 신유년에 파괴되기 전에 원명원에 있던 건물들의 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 터뿐이라 / 보기에 수창하여 광색이 쓸쓸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후 복구되지 않은 원명원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일부 건물이 복원된 원명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복해’ 또는 ‘동호’라 불리는 호수에 세 개의 인공 섬을 만든 후, 각 섬마다 누각을 지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복해 호수 안에 ‘태호석을 쌓아’ 만든 섬과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든’ 곳은 신유년에 파괴되기 전의 원명원의 모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서 정사를 수행하며, 사신들로부터 받은 귀금속, 그림, 서책 등과 같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진열하였’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의춘전’ 안에 안치된 ‘기완’과 ‘법서’, ‘명화’는 청나라 황제가 사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천하의 이름난 정원과 역대 황제의 정원들을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식 건축과 장식도 갖추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가)의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만든 층루나,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물이 비 오듯 뿜어 나’오는 형상들은 각각 원명원 내에 위치한 서양식 건축물과 장식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신유년인 1861년,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으며, 특히 목조로 된 전통 건축물은 모두 소실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나)에서 ‘해전대궐 몇 천 간 좋은 집’에 불을 놓은 ‘신유년 서양국 놈 작변’은 원명원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는 영국과 청나라 간 전쟁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자는 서산을 처음 봤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상천옥경 집’과 ‘왕모요지’보다 더 사치스럽다고 말하며 자신

이 접한 중국의 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평가하는 것은 사행을 통해 접한 청나라 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놀라워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상천옥경'과 '왕모요지'를 언급한 것은 새롭게 접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처음 접하는 중국의 문물을 평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글쓴이는 '영훈정', '의춘전'과 관련된 풍경을 제시할 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대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가 객관적 태도를 지니고 자신이 바라보는 문물을 소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십이시 신상'에 대해 서양 사람의 수리가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십이시 신상을 만들어 낸 서양의 기술을 칭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사행 과정에서 접한 서양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삼층 월대'와 '십칠교 긴 다리'와 같은 풍경을 소개한 후 '둥그런 홍예문이 높기도 굉장하다'와 같이 그 풍경에 대한 소감을 언급하고 있다. '삼층 월대'와 '십칠교 긴 다리'는 모두 사행 과정에서 화자가 목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행자의 기록에는 사행자가 사행 과정에서 목격한 풍물과 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진시황의 아방궁이 불에 타고 송나라의 옥정궁이 화를 입은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이라 말하며, 화려함을 자랑했다는 원명원 역시 천하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사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청나라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갈래 복합 02

본문 239~24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②

#### ④ 작자 미상,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해제** 이 작품은 '삼안' 또는 '삼한(三恨)'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임과의 이별로 인한 비통한 심정을 죽음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에 비교하여 나타낸 발상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의식과 표현을 아울러 사실시조의 일반적인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다소 과장되게 나열되는 거듭된 시련은 해학적 표현 속에 깃든 슬픔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주제** 사랑하는 임을 여인 비통한 심정

#### 구성

- 초장: 피할 곳 없이,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 중장: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과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 종장: 임과 이별한 화자의 비통한 마음

#### ④ 김만중, 「사씨남정기」

**해제** 조선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고전 소설로, 처첩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정 소설이다. 국문, 한문으로 된 필사본에서 활자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본이 전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작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 당대의 인현 왕후 폐위를 둘러싼 희빈 장 씨 사건과 유사해 창작 동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의 유가적 이념 세계와 현실을 치밀한 구성과 전야한 문체에 녹여 사실적으로 그려 냈으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결말로 인해 사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넓은 독자층에게 두루 향유되었다. 한편,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에 중요한 토대를 이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적 의의도 매우 큰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사 씨가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억울함을 참아 내며 남편의 처분에 따르는 사 씨의 모습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사 씨의 부덕(婦德)을 잘 보여 주며 현재의 관점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비참한 삶을 살필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한 가문의 처첩 갈등으로 인해 사 씨가 겪게 된 고행과 부덕(婦德)

**전체 줄거리** 한림 유연수는 현숙한 여인 사 씨와 결혼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다. 이를 염려한 사 씨의 권유로 유연수는 교 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 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뒤이어 사 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첩으로서 불안을 느낀 교 씨는 동청, 냉진 등 악한들과 공모해 사 씨가 부정(不貞)을 저질렀다고 모함하고 교 씨의 말에 속은 한림은 사 씨를 내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집안에서 쫓겨난 사 씨는 술한 시련을 겪고 산사에 거한다. 한림은 승상인 엄송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때를 노린 동청의 무고(誣告)로 한림은 유배를 당한다. 동청과 교 씨는 간통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괴롭힌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유연수는 사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 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 도중에 두 사람은 재회한다. 유연수는 사 씨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린다.

####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과의 비교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작품은 ㉠, ㉡의 정서와 ㉢이 느끼는 절망적인 정서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② ㉠과 ㉡은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서 위태로운 마음(안)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은 은신처 없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에 반해, ㉡은 항해에 필요한 도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엮힌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을 당하고 수적까지 만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잇따라 맞고 있다.
- ④ ㉢은 자신에게 필요한 입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은 배 운항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교 씨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하인들이 사 씨가 시집에서 떠날 때 배웅의 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 씨가 아들인 인아에게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인아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사 씨가 인아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교 씨가 반대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 ② 사 씨는 인아와 이별하며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라고 언급한 것에서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인아와 만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사 공자는 사 씨가 친정으로 돌아와 남매가 함께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한림은 사 씨가 유씨 집안의 모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교 씨에게 들었지만 그것은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용할 뿐 그 일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노’, ‘닷’, ‘뫿대’는 도사공을 위협에서 피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사공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지만 현재 도사공에게는 부재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A]의 ‘소사’는 시아버지로서 살아생전 사 씨를 후대하였으며 현재는 돌아가셔서 부재함에도 사 씨가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산’은 은신처가 없는 곳을 의미할 뿐이므로 화자가 결백하다는 점과는 무관하다. 반면 [A]의 ‘털 끝만큼의 죄악도 없고’는 사 씨의 결백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② (가)의 ‘매’나 ‘수적’은 ‘까투리’와 ‘도사공’에게 두려움과 적대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에서 사 씨는 남편인 ‘한림’을 ‘한때의 모함에 미혹’된 사람으로 볼 뿐 ‘늪우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신뢰하고 있으므로 사 씨가 한림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가)의 ‘대천 바다 한가운데’는 도사공이 향해 도중 위험에 처하게 된 공간이다. 그리고 [A]의 ‘빈산’은 사 씨가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은 소망을 이루고자 그곳에서 늪어 죽기를 바라며 몸소 찾아간 공간이다.
- ⑤ (가)에서 ‘옛그제 임 여인’ 상황은 (가)의 화자가 절망을 느끼게 된 계기이며, [A]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은 사 씨에게 어머니의 혼백을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할 뿐 잘못을 늪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진주와 패물은 사 씨가 가진 ‘약간의’ 장신구이다. 이로부터 사 씨는 사치를 부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유물을 판 것은 경제적 부(넉넉한 생활)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일지라도 잘 섬기라고 당부하는 사 씨의 모습은 억울하게 시집에서 쫓겨나는 처지임에도 남편의 절정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가진 것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웃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윤리와 관련지을 수 있다.
- ③ 당시 여성들의 대표적인 노동인 길쌈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솜씨까지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은 여성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재주를 갖추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고초 속에서도 세월을 보내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 씨의 모습으로서 당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삶이라 할 수 있다.

**0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기>에 따르면, 교 씨가 유씨 가문에 첩으로 들어온 이유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시비들의 용위를 받아 '사당에 오르게' 된 것은 정실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므로 유씨 가문에서 첩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것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교 씨의 '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는 것은 <보기>에 언급된 것과 같이 기존에 알려진 교 씨의 미모와 명성에 더하여진 유씨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외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교 씨가 하인들에게 자신이 안살림을 맡았다고 선언한 것은 첩의 자리에서 벗어나 정실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을 실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④ 사 씨가 남편에게서 쫓겨난 뒤 친정에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묻힌 '유씨 집안의 묘'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은 중세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⑤ 사 씨가 친정으로 향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 씨가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유 한림에게 고하기 까지 하는 행위는 사 씨가 쫓겨난 이후에도 사 씨에 대한 교 씨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 갈래 복합 03

본문 244~247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 ㉠ 홍대용, 「의산문답」

**해제** 이 작품은 담헌 홍대용이 북경을 다녀온 뒤 집필한 것으로, 홍대용의 자연 과학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 허자와 실용의 대화 속에서 홍대용의 실학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대한 비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주제**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구성

- 허자의 질문: 오랑캐에 대한 실용의 인식을 따져 물음.
- 실용의 대답 1: 국가나 문화의 개념에 우열이 있지 않음.
- 실용의 대답 2: 안과 밖의 구분은 서로 상대적인 것임.
- 실용의 대답 3: 주나라 사람인 공자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춘추』를 씀.

#### ㉡ 김용준, 「추사 글씨」

**해제** 이 작품은 추사 글씨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적은 수필로, 누구나 좋아하는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

신의 판단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들러오는 소문에 따라 경솔하게 행동했던 진 군과, 진 군을 혼란하게 하여 그 글씨를 사들인 양 군 역시 추사의 글씨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벌어진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추사 글씨에 대한 예찬

#### 구성

- 처음: 누구나 좋아하는 추사의 글씨에 대한 평가
- 중간 1: 진 군이 추사의 글씨를 구하고 주변에 자랑함.
- 중간 2: 진품이 아니라는 소문에 추사 글씨에 대한 의심이 들.
- 끝: 진 군이 팔아 버린 글씨를 양 군이 사들임.

## 0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지금 선생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라고 하여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춘추』에서 보이는 공자의 생각과 달라이치에 맞지 않음을 따져 묻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경서인 『춘추』를 읽고 알게 된 공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 ⑤ 『춘추』에 기록된 공자의 말을 근거로 질문을 하고 있어 옛 성현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양 군은 진 군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 버린 추사의 글씨를 자신의 사랑에 걸었다. 이를 통해 진 군이 가지고 있던 추사의 글씨가 위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 군은 거금을 던져 추사의 대련을 한 벌 구해 놓고 나만 한 완당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늘 뽐내고 있었다고 하였다.
- ③ 진 군은 추사 글씨에 대한 감식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서화 고동에는 대가로 자처하였으며, 양 군도 진 군에 못지않게 서화를 사랑하였으며 손수 그림까지 그리는 화가였다고 하였다.
- ④ 어느 날 밤에 대산이 그림을 한 폭 걸었으면 한다는 말을 꺼내자 '나'는 추사 글씨 한 폭을 구해 걸 것을 권하였다고 하였다.
- ⑤ 추사 글씨는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진 군의 감식안을 비롯한 양 군의 태도는 자신의 안목이 진 군의 안목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진 군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서 독자는 자신이 가진 추사 글씨가 가짜라는 소문을 듣고 되팔아 버리는 진 군을 통해 삶의 태도나 관점의 형성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작용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실용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나라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허자가 공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②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이 필연적이라는 실용의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허자는 물었다. 이러한 허자의 질문은 공자의 『춘추』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춘추』에 적힌 공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참가지라는 실용의 말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허자와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진 군은 추사의 글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조품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으며, 자신이 팔아 버린 추사의 글씨를 양 군이 소유하자 그것을 되팔라고 조르고 있다. 양 군에게 되팔라고 조르는 것은 자신의 감식 능력을 믿지 못해 추사의 글씨를 경솔하게 팔아 버린 행동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사 글씨가 진품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은 후 진 군 역시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다. 이는 겉으로는 완당서를 뽐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자신의 안목을 믿고 큰돈을 주고 구입한 추사 글씨가 위조품일까 염려했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늘에서 본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과 오랑캐에 차이점이 없다.
- ② 『춘추』를 지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므로 『춘추』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세계관으로 쓰여진 것이 당연하다.
- ③ 추사의 글씨는 어느 사랑에서든지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자신만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다.  
 ④ ‘명서화를 안 보고 어찌 사느냐.’라는 발언은 서화를 감상하며 느끼는 정신적 만족감이 육체적 만족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갈래 복합 04

본문 248~251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④

㉠ 나희덕, 「존재의 테이블」

**해제**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마련했던 ‘존재의 테이블’이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고,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깨닫는 삶의 의미

**구성**

- 1문단: 존재의 테이블을 마련한 계기
- 2문단: 존재의 테이블로 인해 더 힘들었던 여정
- 3문단: 존재의 테이블을 갖고 싶었던 이유
- 4문단: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존재의 테이블
- 5문단: 일상 속에서 쉬이 생기지 않는 존재의 자리
- 6문단: 존재의 테이블을 닦으며 얻은 테이블의 의미
- 7문단: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

㉡ 이준관, 「구부러진 길」

**해제** 이 시는 구부러짐이 가진 포용성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반듯한 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의 다양성은 마련해 주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자에게 구부러진 길은 다양한 삶을 만나는 동시에 그들을 포용하는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구불구불’은 느낌의 상징이 아닌 풍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고, ‘울퉁불퉁’ 또한 못남의 상징이 아닌 경험의 깊이에 대한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구부러진 길로서의 삶이 갖는 풍요로움과 포용성

**구성**

- 1~6행: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
- 7~10행: 구부러진 하천과 길이 가진 긍정적 성격
- 11~16행: 구부러진 삶의 긍정적 의미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학교 일, 집안일, 육아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공을 들여 '존재의 테이블'에 앉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 시간은 글쓴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글쓴이는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랄 뿐, 이로써 인도 여행의 체험을 대신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 ③ 글쓴이는 존재의 테이블을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을 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글쓴이는 일상 속에서 겪은 '짧은 행복'과 '지루한 고통'을 언급하였으나, 그로써 선한 행동을 통한 행복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낯선 곳에서 만난 인물들과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의 '쓸쓸한 자부심'은 '나'가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 한 데서 오는 자부심이다.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자부심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의 하나로 마련한 존재의 테이블이 오히려 '여행 내내' '나'가 '고생'하게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② ㉒은 '큰 집'으로 상징되는, 외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④ ㉓은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하여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⑤ ㉔은 글쓴이가 힘든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존재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행위들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 준다.

##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화자는 '구부러진 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며, [B]에서는 '구부러진 길'이 가지는 가치를 자연물과 관련지어 제시한다. 이 가치가 다시 [A]의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C]에 이르면, '구부러진 길'의 가치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찾을 수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에서는 화자가 좌절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C]에

서는 화자가 만난 사람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② [A]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은 [B]의 자연물이 가지는 특징과 어우러지는 것인지 상반된 것이 아니다.

④ [A]에 '잠자를 심는' 경작 행위가 언급되어 있으나, [B]에서 그 과정의 노동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또 [C]에서도 먹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서 화자를 불렀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노쇠한 상태인 [C]의 주름살과 서로 연결될 수 있으나, 이것이 화자에게 근심을 안기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화자는 그 안에서 삶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글쓴이는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존재의 테이블 '앞에 데려다 놓는' 순간들을 '드문 순간들'로 부른다. 그 순간이 드문 이유는 글쓴이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신히 얻은 '드문 순간들'은 '반듯한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글쓴이는 힘든 일이 닥칠수록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존재의 테이블이 누추한 삶까지 '품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며, 이는 오히려 (나)의 '구부러진' 것들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구입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인지 타인들과의 어우러짐을 위한 것이 아니다.
- ④ (나)의 화자는 '구부러진 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⑤ (가)의 글쓴이는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는 '날이 저물면'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행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 05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작은 꽃문양'은 이후 먼지가 낀 모습을 통해 글쓴이가 겪은 바쁜 일상의 영향을 보여 주고,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는 '밥 먹으라고 부르는'과 연결되어 다른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문제로 각 장면이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존재의 테이블이 타인과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 ② 작품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⑥는 민들레가 나비를 '품고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세상을 떠나겠다는 의지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 여행지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서는 화자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에서 글쓴이가 겪은 시련은 생활에서 오는 것이지 ㉔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㉖는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대상이다.

갈래 복합 05

본문 252~257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⑤

㉔ 김유정, 「금 따는 콩밭」

**해제** 이 작품은 성실한 농사꾼 영식이 금의 유혹에 빠져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의 열악한 현실과 일확천금을 바라는 인간의 허황한 욕망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로 부추긴 금광 투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헛된 욕망

**전체 줄거리** 영식은 성실한 소작농이고 그의 친구 수재는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콩밭을 파 보면 금줄이 묻혀 있을 거라는 수재의 꼬임에 넘어간 영식은 절만 되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아내의 부추김에 힘을 얻어 콩밭을 뒤엎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다. 조금해진 영식은 쌀을 꺾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제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는다.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보며 위기감을 느낀 수재는 거짓말로 금줄이 발견됐다고 소리친다. 영식 내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재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도망가리라 결심한다.

㉕ 유치진, 「토막」

**해제** 이 작품은 ‘토막’이라는 상징적 공간과 두 농민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 우리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사실주의적 경향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한 축인 경선네 가족은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다가 땅과 토막을 잃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결국 고향을 떠난다. 또 다른 축인 명서네 가족 또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본으로 돈벌이를 떠난 장남인 명수만을 기다린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현실

은 병자인 명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명서의 처, 일제에 저항하는 명수, 유랑민인 경선의 가족 등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진다. 특히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면서 명서네 가족의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은 현실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설정으로,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황폐한 농촌 현실과 그로 인한 가족의 비극

**전체 줄거리** 가난한 농민인 명서와 그 가족은 음산한 토막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일본에 돈 벌러 간 아들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걸지만,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된다. 게다가 명수가 종신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서 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끝내 명수의 백골이 담긴 상자가 도착하자 모두 절규한다. 명서의 딸 금녀는 일제에 저항했던 오빠인 명수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부모를 위로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술자는 인물이 아닌 이야기 밖의 어떤 존재로, 그는 영식 부부, 수재 등의 말과 행동을 주로 묘사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그들의 속마음까지 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밖의 존재로, 특정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 ②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밖의 존재로, 주인공이 서술자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 ③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한 명으로,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지 않았다.
- ④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밖의 존재로,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금점이란 칼 물고 뽕뽕기’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영식은 수재가 가지고 온 술병의 술을 마시면서 수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술병은 수재의 정체나 그에 대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장치이다.
- ② 영식은 술병의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수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 ③ 설득하는 인물은 수재이며 영식은 수재에게 결국 설득을 당하는 인물이다.

⑤ 영식이 처에 대한 수재의 태도는 고마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슬병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표시로 볼 수 없다.

###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명서의 처는 '명수가 냉큼 나올 수 없다거든, 돈이라두 보내라구 그래라.'라는 말을 통해 명서가 집으로 돈을 보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삼조를 통해 명수에게 전하고자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거기 가지만 허문 그까짓 돈쯤이야……'라는 삼조의 대사를 통해 삼조가 일본에서 상당한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놈 간 지가 어범법 일곱 해로구나.'와 '재작년 설날부터선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라는 명서의 대사를 통해 명수가 칠 년 전 일본으로 떠났으며 재작년부터 소식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들어 보내느냐?' 등 명서의 대사를 통해 명서가 명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터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 서러 마세유,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꼭 참구 살아가세유.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버리진 않을 거예유.'라는 금녀의 대사를 통해 금녀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며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수재는 콩밭에서 드디어 금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수재의 거짓말이다. 수재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기 전에 도망갈 궁리를 하며 영식 부부의 소망은 좌절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영식 부부는 일확천금을 바라며, (나)에서 명서의 가족은 명수의 귀환을 바란다는 점에서 이들은 소망의 주체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영식 부부가 바라는 것은 금을 발견하는 것이며, (나)에서 명서의 가족이 바라는 것은 명수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금의 발견과 명수의 귀환은 소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영식 부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해 멀찍한 콩밭을 파헤치며, (나)에서 명서 부부가 명수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삼조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밭을 파헤치는 것과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모두 소망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수재는 오늘 밤에 꼭 도망가겠다고 생각하고, (나)에서

는 소포에 명수의 백골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수재의 속마음과 소포를 통해 인물들의 소망이 달성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0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삼조와 명서 가족은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라는 점에서 이들 간의 대비가 빈부 격차를 대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의 성실한 농민도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농사를 통한 안정된 삶의 희망을 잃게 되는데, (가)의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라는 생각은 농사에 대한 농민의 이러한 좌절을 드러낸다.

② <보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농촌의 소작농은 소작료, 각종 세금으로 인해 빈농으로 전락하는데, (가)의 '비룻값, 품삯, 빛에 빚진 칠 원 까닭에 나날이 줄리는 이 판'에서 당대 농민의 이러한 가난한 삶을 엿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농사에 희망을 잃은 많은 농민이 투기적 황금 열풍에 뛰어들었는데, (가)에서 금을 발견했다는 말에 '코다리 에 고래등 같은 집'을 떠올리는 영식이 처의 내면은 이러한 투기적 황금 열풍의 욕망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농촌의 농민은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농사에 희망을 잃고 빈농으로 전락하는데, (나)의 '죽자꾸나 농살 지어두 입엔 거미줄을 면치 못하는 세상'이라는 삼조의 말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갈래 복합 06

본문 258~263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⑤

#### ⑦ 조위한, 「최척전」

**해제** 이 작품은 조위한이 지은 소설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과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렸다.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다루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주로 다룬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핏진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의 현실과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전체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은 옥영과 약혼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최척이 징발되고, 옥영의 부모는 이웃의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최척은 진중에서 달려왔고,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최척은 명장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몇 년 뒤 최척은 안남에서 왜국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으로 가 살며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흥도를 아내로 맞는다. 이듬해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淸軍)의 포로가 되고, 포로수용소에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위경을 만난다. 옥영 역시 몽선·흥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만나게 된다.

④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해제** 이 작품은 윤홍길이 1977년에 발표한 소설로, 다른 세 편의 소설과 묶여 연작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구성한다. 교사인 '나'는 여러 해에 걸친 셋방살이 끝에 집을 장만하고 방한 칸을 세놓는데, 이 방에 권 씨의 가족이 세를 들어 온다. 소설은 권 씨의 삶에 대한 '나'의 관찰과 추적으로 진행된다. 대학까지 나온 선량한 소시민인 그는 성남 지구 택지 개발이 시작될 무렵 철거민의 권리를 사서 들어왔으나,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자 이에 항거한다. 그는 왜소한 체구의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다. 유순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를 집주인인 '나'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주제**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삶과 그에 관한 관심

**전체 줄거리**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나'가 방 하나를 세놓자, 권 씨 가족이 이사를 온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전세금 20만 원 중 10만 원만 내고, 권 씨의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는 권 씨가 원래는 출판사에 다녔었고,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집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정을 알게 된다. 권 씨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권 씨는 '나'에게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니,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한다. 권 씨가 돌아간 후 '나'는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나'는 그가 권 씨임을 알게 된다.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게 된 권 씨는 아홉 켄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항구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최척의 울적한 심사를 부각하며, [B]는 권 씨가 귀가하지 않는 상황을 요약하면서 권 씨에

대한 '나'의 행동이 '졸렬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풍경을 묘사하며 [B]는 권 씨의 행방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의 일생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A]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에게 거리를 두면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는 이야기 밖의 존재가 서술자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는 인물의 앞날을 예고하지 않으며, [B]에서는 서술자가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그 시'는 최척이 시를 읊은 사람을 옥영으로 짐작하는 단서이며, '두 눈'은 '나'가 복면의 사내가 '권 씨'임을 짐작하는 단서라는 점에서, 두 소재의 공통점은 인물의 정체를 짐작하게 되는 단서라는 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 시'와 '두 눈' 모두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② '그 시'는 인물의 처지와 관련이 있지만, '두 눈'은 인물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④ '그 시'와 '두 눈' 모두 인물의 의도를 오해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⑤ '그 시'는 인물의 마음과 관련이 있지만, '두 눈'은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두홍은 최척의 사연에 감동하여 옥영을 만나고자 하나 학천의 만류로 만나지 못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돈우는 '사 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라고 말하며 옥영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축하한다.
- ③ 옥영은 돈우와 헤어지기 전 '일찍이 주인 영감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에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④ 학천은 최척과 옥영을 돕기 위해 옥영의 주인인 돈우에게 백금 세 덩이를 지불하고자 한다.  
 ⑤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많은 관심을 표했으며 일부는 금은과 비단 등의 재물을 준다.

##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권 씨가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은 상처 받은 자존심을 학력을 통해 회복하기 위함이지 '나'를 설득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권 씨는 반드시 값은 조건임을 강조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노력한다.  
 ② '나'가 ⑥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애들러 거절하는 것이다.  
 ③ 권 씨는 원장의 됴됨이를 근거로 '나'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④ '나'가 예상한, '너무하다', '잘 먹고 잘살라'라는 권 씨의 말에는 권 씨의 실망이 담겨 있다.

##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기>에 따르면, 귀향은 당대인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지문에서 언급된 집은 최척과 옥영의 집이 아닌 학천의 집이다. 따라서 이를 최척과 옥영의 귀향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 전쟁은 가족이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원인이다. 이 소설에서도 최척과 옥영이 헤어지고 조선을 떠나는 것은 정유재란이라는 전쟁 때문이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 그리는 것 중 하나는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인데, 최척과 옥영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재회의 장면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 가족의 이산과 재회는 중요 사건인데, 이런 점에서 최척과 옥영이 가족과 헤어지는 공간인 조선과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공간인 안남은 소설의 중요 공간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전쟁의 상처와 슬픔을 그리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장면이 최척과 옥영이 가족과 헤어진 사연을 나누고 통곡하는 모습이다.

## 갈래 복합 07

본문 264~26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 ㉠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성격

**해제** '전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실과 허구가 함께 제시되는 전기의 성격을 밝힌 글이다. '전기'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또한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이 야담이나 가전 같은 허구적 성격의 산문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전기'의 개념과 구성, 성격

### 구성

- 1문단: 전기의 개념
- 2문단: 전기의 일반적 구성
- 3문단: 전기에 부여되는 허구적 성격

### ㉡ 석식영암, 「정시자전」

**해제** 고려 후기 석영암이 지은 가전체 작품으로, 『등문선』에 전하고 있다. 정시자는 지방임을 의인화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서두에 대상의 성명과 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가전과 달리 석영암과 정시자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시자의 형상을 기이하게 묘사하면서, 정시자와 관련된 고사를 드러내고, 정시자를 대하는 석영암의 태도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시자'를 중생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승려를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시자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여 고려 말 사회적 혼란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우화 문학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주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순리를 지킬 것을 권함.

### 구성

- 처음: 정시자에게 자신을 찾아온 연유를 묻음.
- 중간: 정시자가 자신의 생애를 설명하며 스스로 모시고자 찾아왔음을 밝힘.
- 끝: 정시자를 예찬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함.

### ㉢ 박제가, 「소전」

**해제** 이 작품은 북학파의 대표 학자 중 하나인 박제가가 지은 짧은 자서전에 해당한다. 자신에 대한 간소한 '전기'라는 점에서 '소전'이라 이름을 붙였다.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관향과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의 역사 인식과 국제적 시각, 이름과 호를 짓게 된 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자신의 외모를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로 묘사하며 청빈함과 고매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품에 대한 자긍심과 포부를 밝히고 자신의 관심과 깨달은 바를 드러낸 후 스스로를 찬(讚)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7세의 박제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전의 형식을 빌려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예찬함.

**구성**

- 처음: 그의 이름과 호, 관향 등을 서술함.
- 중간: 그의 사람됨을 밝히며 가치관과 학문적 태도를 드러냄.
- 끝: 그를 예찬하며 마무리함.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경우에도 종결부에 ‘나’의 말과 노래를 활용하여 대상인 ‘정시자’를 예찬하는 부분이 있다. (다)의 경우, ‘찬한다’와 같이 대상을 예찬하여 드러내려는 영탄적 어조가 확인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와 (다)의 시작 부분에는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거나 해당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 ② (나)에는 자신의 부모로 ‘포희씨’와 ‘여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에는 ‘밀양’이라는 관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의 부모를 언급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③ (나)는 지팡이를 의인화한 가전이고, (다)는 작가가 스스로를 ‘그’로 대상화하여 자신의 생애를 드러내려 한 자전(自傳)에 해당한다. 이는 ‘제가’라는 ‘그’의 이름이 『대학』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고 밝히는 도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는 석식영암과 정시자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는 인물의 생애나 특성과 관련하여 서술자가 선택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정시자’는 서술자인 ‘나’를 찾아와 ‘나’의 시자로서 직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정시자의 품성에 어울리는 더 나은 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각암’을 소개하고 있다. 정시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나’에게 직접 요청하여 누군가를 소개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처음 놀라고 이윽고 불러 말하기를’에서 식영암이 ‘정시자’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마지막 단락에서 ‘정시자’를 두고 ‘옛 성인이 남긴 몸이여 ~ 성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라며 정시자의 긍정적 속성을 세세히 열거한 후 자신과 비교하여 그를 예찬하고 있다.
- ④ 식영암은 각암을 두고 ‘산은 비록 이름이 같으나 사람은 덕이 같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보다 뛰어난 덕망을 지녔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맨 마지막 문장에서 식영암은 스스로의 삶을 두고 ‘박과 오이처럼 매여 사는 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정시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을 통해 서술자는 ‘그’가 ‘고고한 사람’과는 사이가 좋았고, ‘권세 있는 자’들과는 교류가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평소 ‘그’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 왔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표현이 ‘그’라는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을 통해 ‘식영암’이 ‘정시자’를 ‘입동 날 어두운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 ‘암자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가상 인물의 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보여 주는 효과가 생긴다.
- ② ㉢을 통해 ‘옷칠’을 한 것 같은 ‘정시자’의 외양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는 이러한 특징을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씨의 가신이 되어’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여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③ ㉣을 통해 ‘정시자’가 ‘식영암’을 찾아온 것이 ‘하늘’이 명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한 것은 가상 인물인 ‘정시자’를 만나게 된 과정을 그럴듯하게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을 통해 서술 대상인 ‘그’가 ‘백세 이전의 사람’들을 배우려 하고, ‘만 리를 넘어 날아다닐’ 만한 뜻을 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과장과 비유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라는 말은 자신이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하’면서 굳이 부귀를 좇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본문과 <보기>를 통해 박제가가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했고, 정조의 총애를 받아 실제로 관직을 맡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구절이 박제가가 벼슬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본문을 통해 박제가의 '조상은 신라'의 사람이며, 그의 관향이 '밀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제가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전기의 일반적 형식에 맞추어 가계를 드러내기 위해 조상의 출신과 관향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본문에서 박제가는 '그'가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배웠다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박지원의 문하라는 사실과 청나라에서 새롭게 배운 학문이나 지식을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학문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 ④ <보기>에서 박제가가 『북학의』와 같은 저서를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저서에 담긴 주장이나 생각이 '당시 조선의 학자들에게 너무 혁신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빠는 써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말을 통해 박제가는 육신이나 물질보다 정신이나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주장한 개혁에 반대하며 자신을 박해했던 무리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가 추구했던 학문이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신념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갈래 복합 08**

본문 268~273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④

**㉠ 맹사성, 「강호사시가」**

**해제** 이 작품은 사계절의 순환에 대응시켜 강호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표현한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흥취를 대표하는 소재를 배치하면서도 네 수를 형식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맹사성은 잠깐 동안 벼슬에서 물러난 적은 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오랜 관직 생활을 마무리한 조선 초기의 사대부이다. 정확한 창작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강호에서 은거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강호가도 계열의 작품 중에서도 형성 초기의 작품들을 대표한다.

**주제** 강호에서 노니는 사계절의 즐거움

**구성**

- 춘사: 시냇가에서 즐기는 봄날의 흥취
- 하사: 초당에서 바람을 즐기는 여름날의 흥취
- 추사: 배를 띄우고 노니는 가을날의 흥취
- 동사: 눈 속에서 보내는 겨울날의 흥취

**㉡ 정극인, 「상춘곡」**

**해제** 이 작품은 정극인이 만년(晩年)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태인에 거처하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사이다. 화자가 자연에 머물며 봄을 맞이한 정취를 그려 내고 있다. 제목인 '상춘곡'은 봄을 기리는 노래라는 뜻이다. 봄철에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모두 동원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본사에 해당된다.

**주제** 봄철의 풍경에 대한 예찬과 흥취

**구성**

- 서사: 풍월주인으로서 가지는 자부심
- 본사: 봄날의 풍경과 거기에서 오는 흥취
- 결사: 백년행락에의 소망

**㉢ 장유, 「곡목설」**

**해제** 이 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곧은 나무가 알고 보면 곡목, 즉 굽은 나무였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행세하는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굽을 수도 있는 나무와 오직 곧기만 한 인간의 천성을 대비하여 바른 도를 소유하지 못한 조정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른 사태에 전이시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說) 양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글쓴이와 이웃에 사는 사람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나무의 속성에 견주어 본 인간 세태

**구성**

- 전반부(장생의 말): 굽은 나무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
- 후반부(장자의 말):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굽은 나무와 달리 위선적인 사람을 인재로 쓰는 조정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사계절에 걸쳐 강호의 삶에서 느끼는 흥취와 만족감을, (나)에서는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흥취와 만족감을 그려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도 (나)에서도 이상화된 타인의 삶을 형상화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서도 (나)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표현은 없다. 다만 (나)의 작품의 경우 주어진 지문의 뒷부분에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행락을 누리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에서도 (나)에서도 과거에 누리던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은 없다.
- ⑤ (가)에서도 (나)에서도 숭고한 이념으로 볼 만한 윤리적 덕목이나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춘사>의 '계변'에서 '미친 흥'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화자는 네 계절의 흥취를 골고루 드러내고 있을 뿐 비교를 통해 우열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자가 '소정'에 비해 '계변'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각 수가 '강호에 [계절]이 드니'로 시작되고 있어 네 수의 형식적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 ③ '한가해움'과 '소일해움'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서, 봄이나 가을이나 비슷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생활의 일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여름에도 서늘하다는 것은 덥지 않게 지내는 생활을 뜻하고, 이는 겨울에도 춥지 않게 지내는 생활과 의미상으로는 짝이 된다. 서늘하게 지내는 여름과 춥지 않게 지내는 겨울은 전체적으로 안락한 생활이라는 의미로 수렴된다.
- ⑤ 봄철에는 계변, 여름철에는 초당, 가을철에는 강물에 떠 있는 소정이 화자가 위치한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겨울철에는 공간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사>는 나머지 세 수와 다르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의 첫 행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대등한 위상을 가진 채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병렬되어 있고, 두 번째 행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계기적 병렬을 이룬다. 이를 통해 분주하게 봄날을 즐기는 화자의 일상을 나열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도화행화'로 시작되는 첫 행과 '녹양방초'로 시작되는 둘째 행이 계열적으로 병렬되고 있으나, 계기적 병렬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C]에서는 첫 행과 둘째 행이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이며, 각각의 문장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병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④ [D]에서 '화풍이~'와 '낙수를~'은 어떤 병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향은~'과 '낙홍은~'이 계열적 병렬을 이루지만 계기적 병렬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는 '화풍이 건듯 불어'에서 나타나는 촉각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청향'의 후각적 이미지와 '낙홍'의 시각적 이미지도 함께 나타난다.
- ⑤ [E]에서는 첫 행과 둘째 행이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나열될 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병렬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 위에 떠오는 도화를 보고 느끼는 것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딘가에 무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장생'은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외부의 힘에 의해 굽을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장자'는 「홍범」을 인용하면서 나무는 속성상 구부러질 수도 있고 곧을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구부러진 나무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장생'의 관점이고, 나무는 구부러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장자'의 관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자'는 '장생'과 달리 속성상 나무가 구부러질 수 있다고 본다.
- ②, ④, ⑤ '장생'은 성품이 혼탁하고 분별력이 흐린 사람에 대해 천성이 왜곡된 결과라 했으므로 사람은 본성상 위선적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장자' 또한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다고 했으므로 사람은 본성상 위선적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0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서 '장자'는 쓸모가 있어 보이는 것의 가치가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까닭이 겉으로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곡목설」에서 굽은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보는 글쓴이에 대해 굽은 나무가 존재해야 곧은 나무가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곡목설」의 장생이나 장자가 곧은 나무가 항상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용도로만 쓰인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비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장자'가 무엇인가의 쓸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누구 혹은 무엇의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비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의 장자가 사람이 서 있는 땅을 그 주위의 땅이 대체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굽은 나무가 곧은 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의 장자가 나무의 굽고 곧음을 자연의 섭리로 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장자가 쓸모가 있는 것과 쓸모가 없는 것의 가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다)의 글쓴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주변 풍경을 완상하면서 느끼는 즐

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산일이 적적한’ 가운데 ‘한중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라고 한 것은 산을 비추는 햇빛을 포함한 자연을 혼자서 즐기는 데 대한 만족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자아와 자연 간의 조화가 불완전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치인의 영역에 있다가 잠시 수기의 영역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역군은이샷다’를 언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인의 영역으로 복귀할 때를 기다리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강조는 이를 예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작가가 임금을 직접 모시지 않는 ‘사’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역군은이샷다’를 언급하는 것은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③ ‘조화신공’이 ‘헌사롭다’라고 한 것은 신령스럽고 신비로운 초월적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므로 초월적 섭리에 따른 자연의 조화에 대한 찬사를 할 수 있다.
- ⑤ 구부러진 재목이 없는 큰 건물과 비교하여 바른 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조정의 모습을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갈래 복합 09

본문 274~277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⑤

#### ㉠ 작자 미상, 「산은 적적 월황혼에 ~」

**해제** 이 작품은 헤어져 있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화자의 한탄을 읊은 사설시조이다. 잠을 깨어 보니 등불만 있다는 표현에서 어쩌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 것으로 추측된다. 종장의 마지막 구절과 종장에는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주제** 입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입에 대한 원망(怨望)

#### 구성

- 초장: 밤에 느끼는 입에 대한 그리움
- 중장: 꿈에 잠깐 만난 임으로 인한 고통
- 종장: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

#### ㉡ 안도환, 「만언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정조 무렵에 대전별감이라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횡령 사건을 일으켜 추자도로 유배를 간 작가의 실제 경

험을 담았던 장편의 가사이다. 유배지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배되어 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까지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소회를 다양한 수사를 섞어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유배지에서 동남을 해서 귀가는 대목과 새해를 맞이하여 느끼는 소회를 읊은 대목이다.

**주제** 유배지에서 겪는 고난과 사향(思鄉)

#### 구성

- 서사: 유배지로 떠나는 데 대한 소회
- 본사 1: 한양에서 유배지에 이르는 여정
- 본사 2: 유배지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 본사 3: 해배되어 한양으로 귀환하는 여정
- 결사: 유배와 해배에 대한 소회

#### ㉢ 성현 엮음, 「세 선비의 꿈」

**해제** 이 글은 성현이 편찬한 『용재총화』에 실린 이야기로서, 제목은 출제진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세 선비가 꿈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전을 보여 준다. 꿈 이야기의 표면에 드러난 관습적인 의미를 뒤집어서 정반대 방향의 의미로 풀어냄으로써 꿈의 예언적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꿈의 표면적인 의미를 뒤집는 해몽

#### 구성

- 전반부: 해몽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 선비의 꿈을 관습적인 의미로 풀이함.
- 후반부: 해몽하는 사람이 세 선비들이 꾸 꿈으로 미래를 예언함.

##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는 주인집의 밖과 안이라는 공간의 구별은 있지만, 공간의 차이와 무관하게 심리적 고통이 연속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남을 해서 귀가하는 장면에서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설날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제시되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서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월황혼’, ‘야삼경’, ‘계명축시’ 등의 시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두견과 접동의 울음을 통해 청각적 심상을, (나)에서는 청초, 오작, 기러기의 움직임을 통해 시각적 심상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천리일별’, ‘바닷길 일천 리’와 같이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단절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설’이라는 세시풍속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눈물도 한이 있고 한숨도 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만은 눈물도 한숨도 끝을 모르고 계속된다는 한탄을 표현한 말이다. 눈물과 한숨이 조만간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밤에 잠을 깬데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음을 알려 준다.
- ② 믿을 곳이 없다는 탄식은 입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 ③ 보리를 운반하기 위해 등짐을 졌는데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화자가 등짐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려 준다.
- ⑤ 설날을 배경으로 해가 저물도록 오래도록 고향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바다를 보니 사공은 보이지 않고 빈 배만 보인다는 것은, 그 배를 타고 고향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해몽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꾸짖은 것은 해몽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꿈의 내용을 관습적인 통념에 기대어 불길한 징조로 읽어 낸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는 어떤 대상을 볼 때는 통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주제, 나아가 그 대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포함하여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몽하는 사람은 아들이 이를 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몽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 선비의 외모나 지위 등을 보고 어떤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해몽을 한 것은 아니다.
- ③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세 선비를 괴롭혔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이 해몽하는 사람의 아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 선비를 괴롭히는 말이 아들을 괴롭히는 말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④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은 세 선비에 대한 과소평가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 선비를 자극하여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낸 것도 아니다.
- ⑤ 해몽하는 사람의 아들은 세 선비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 할 수 있는 과거 급제를 폄하하지는 않았다.

를 폄하하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겪은 일을 계기로 오히려 입을 더 원망하지만 이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는 않는다. (다)에서 세 선비들이 꿈속에서 겪은 일은 소망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의 역할을 하므로 현재의 소망을 부정한다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전기가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꿈은 입을 만나는 계기라는 점에서 소망 충족의 효과를 보여 주지만, 실제적인 만남이 아니므로 허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더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 ② (나)의 [A]에서 꿈은 현실 부정의 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B]에서 꿈은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면, 이때 꿈은 가상적인 상황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자는 동안 겪는 정신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서사적인 흐름상 꿈은 표면적인 의미에서 세 선비의 소망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 흉몽이지만, 의미의 반전을 통해 소망의 실현을 예언하는 길몽으로 바뀌고 있다.

갈래 복합 10

본문 278~282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④

㉠ 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적 경험

**해제** 이 글은 문학 작품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문학은 삶과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혹은 그것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다룸으로써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설 「고가」와 시 「산은 알고 있다」를 예로 들어 그러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고가」는 전쟁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어 오던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은 알고 있다」는 자연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역사적 경험과 분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경험의 특징

**구성**

- 1문단: 문학 작품이 역사적 경험을 형상화하는 방식
- 2문단: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에 관심을 갖는 소설
- 3문단: 자연물을 통해서도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

**㉔ 정한숙, 「고가」**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변화의 계기를 6·25 전쟁 이전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인공인 필재는 종가의 자손이지만 6·25 전쟁 이전부터 가치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종가의 권위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변화를 열망한다.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역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주제**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킨 '종가'의 존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재'는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전통을 이으려는 할아버지와 신문물을 따르려는 숙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해방 후 필재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재의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좌익 운동을 한다. 태식이 종가의 나무를 베어 팔아 버리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재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이 이루어지자 태식은 필재가 흠모하던 길녀와 함께 떠난다. 마을이 수복되자 김씨 종가의 사람들은 다시 종가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필재에게 서울에서 내려올 것과 함께 지역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하지만, 필재는 종가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종가를 팔아 버릴 다짐을 한다.

**㉕ 신석정, 「산은 알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목가적 서정시를 써 온 시인으로 알려진 신석정의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며 역사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을 염원함과 동시에 그 흐름에 모두가 동참하여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제** 역사에 대한 기록과 증인 의식에 대한 동참

**구성**

- 1연: 역사의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는 산
- 2연: 장구한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산
- 3연: 민중의 희생을 통해 이룩할 미래에 대한 산의 인식
- 4연: 단절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산의 인식
- 5연: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산
- 6연: 산의 바람에 응답하는 화자

**0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의 종가 노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종가를 재건하

고자 하나,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이루어 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필재는 '종가'가 상징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충돌을 겪는데, 그 충돌 속에서 생겨난 피해는 '임진, 동학 양란'부터 있어 왔던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 필재와 주변 인물들이 겪은 피해는 전쟁을 통해 부각되었으나, 전쟁 이전부터 있어 온 '종파'와 '문중'의 봉건적 성향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4연에서 자연물들의 모습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산이 알고 있는 대상들은 '피 묻은 역사', '이슬 젖은 하얀 측루'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다)에서 산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 때부터 시작된다. 이는 유한한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속성으로, 화자가 기억하고자 하는 역사의 흐름이 개인의 삶이라는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자연물의 영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넓은 범위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에 드러난 노인들의 의견은 가산을 정리하려고 내려온 필재의 목적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설에서 마을은 수복되었지만, 필재는 좌익 활동을 하던 태식으로 인해 붙잡혀 가서 일주일 후에 풀려 나오게 된다. 이념의 대립이 마을 수복 이후에도 필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② 종가로 인한 피해가 필재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까지 미쳤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므로, 필재가 희생자로 생각하는 인물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종친들은 전쟁 이전부터 이어져 온 봉건적 가치 체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필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친들을 만나야만 했다는 것에서 전쟁 이후에도 전쟁 이전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필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선조들이 이루어 온 개척은 종가의 보존이라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전쟁 전부터 유지되어 온 사회적 질서이며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내몬 원인이기도 하다.

**03 사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5연에서는 '머언 하늘'을 바라보는 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함께 미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와 산은 함께 역사를 이룩해 나가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연에서 산은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산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기나긴 세월에 묻어 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3연에서는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까지 언급하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하얀 측루’와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대상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를 통해 과거에 겪은 아픔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끝맺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생명의 힘으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이어 나가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6연에서 화자는 산이 아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은 산이 지향하는 곳으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5연에서 산이 부르는 ‘우리들’에 자신도 포함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필재는 길너나 태식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가의 피해자로 보고 종가를 정리함으로써 종가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여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에서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이므로 태식이와 길너도 산이 기억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에서 ‘아득한 하늘’은 현실로부터 분리된 이상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재의 가문이 가진 역사는 현실의 문제이기에 ‘아득한 하늘’보다는 산이 알고 있는 역사의 일부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필재는 ‘종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오히려 ‘종가’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랫소리’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것이자 ‘하얀 측루’의 아픔을 간직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노랫소리’는 역사 속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민중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재에게 주어진 중손의 책무와 ‘노랫소리’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필재가 종가를 팔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종가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는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은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바람을 느끼기 어렵겠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필재의 입장에서 ‘입후보’는 종가의 역사 속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입후보를 권하는 친구는 (다)의 화자와 성격이 다르다.

**05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산’은 인간에 비해 영속성을 가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㉓는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이상향을, ㉔는 그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현재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작품 속에서 시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의 시구 가운데 시제를 고려하여 ㉓와 ㉔의 의미를 포함하는 시구를 찾아본다.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의 ‘이룩할’에서 미래형 시제를,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의 ‘흘러가는’에서 현재형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는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향으로, 후자는 그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현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래오래 겪어 온 피 묻은 역사’는 과거의 기억을,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은 철마다 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나타낸다.
- ②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은 철마다 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스며들던 더운 피’는 산에 각인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픈 역사의 흔적을 나타낸다.
- ③ ‘스며들던 더운 피’는 산에 각인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픈 역사의 흔적을,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는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이상향을 나타낸다.
- ⑤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은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현재의 노력을,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 현상을 나타낸다.

**갈래 복합**

11

본문 283~285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㉔ ‘낮설게 하기’와 시의 표현**

**해제** 이 글은 ‘낮설게 하기’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을 설명한 후 그것이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

를 포함한 예술 작품은 단순하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바라본 결과를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독자들 또한 시를 읽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감춰진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 시에서 나타나는 '낯설게 하기'의 특징과 관점

**구성**

- 1문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시의 '낯설게 하기'
- 2문단: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는 '낯설게 하기'와 시 읽기

#### ㉠ 황인숙, 「조깅」

**해제** 이 작품은 조깅을 하는 화자가 정신적인 고양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구두점과 행의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호흡의 미묘한 변화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깅을 하는 실제의 급박한 호흡에서부터 한 문장이 온전하게 한 행을 구성하는 마지막 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호흡과 정신적 호흡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교차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이 작품의 흐름을 절묘하게 제어하고 있다.

**주제** 조깅을 통해 느끼는 몸의 변화와 정신적 고양

**구성**

- 1연: 조깅을 하는 동안 가빠지는 호흡
- 2연: 조깅을 하며 인식하는 주변 상황
- 3연: 조깅을 하며 바라본 하늘의 모습
- 4연: 조깅을 하는 급박한 호흡 속에서 얻는 의미
- 5연: 조깅을 통한 정신적 고양

#### ㉡ 이재무, 「종소리」

**해제**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경건함을 상징하는 '성당의 종소리'가 사실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갈라놓는 견고한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달동네'나 '산동네'라는 표현들은 주로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변화가나 번듯한 지역에 살지 못한 채 도시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쫓겨나듯 밀려나 이루어진 동네를 의미한다. 성당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랫마을의 것일 뿐, '달동네'나 '산동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도달하려는 절대자를 발견하지만, 절대자도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소외된 자들과 평화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구성**

- 1연: 아랫마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의 의미
- 2연: 소외된 자들을 차단하는 종소리들의 실제

## 0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시의 형식적인 측면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의 5연은 이전의 다른 연과 달리 한 행으로만 연을 구성함으로써 현재 화자의 상태에 주목하게 한다. 그러나 내용상 화자의 움직임이 멈춘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작품은 조깅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보다 이미 뛰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뛰고 있는 화자의 실제 호흡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유를 진행하는 호흡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5연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들은 달리는 행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사유의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시의 새로운 표현들이 색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2연의 대상들은 화자가 조깅을 하면서 얻게 된 새로운 관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나)의 1연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선표는 3연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4연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는 (가)에서 제시한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낯설게 하기'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조깅을 하는 화자가 신체적인 현상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그 이면의 현상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다)는 절대자조차 '몰래' 골목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소리'가 절대자를 위해 경건해야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긋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아랫마을의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 ⑤ 화자가 파악한 진실은 종소리가 울타리가 되는 현실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울타리가 잘 감추어져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가)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일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자는 '후, 하' 등의 호흡을 통해 자신이 현재 뛰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주목하고 그것이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화자는 조깅을 하며 주변의 대상들과 합일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절대자조차 고난을 겪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는 외부의 사물들이 ‘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화자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기보다 화자가 조깅을 함으로써 인식하게 된 부수적인 현상이다. (다)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이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나)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를 통해 ‘역동성’에 주목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에서는 ‘견고한’ ‘올타리’로 보아, 화자가 성공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라 인식되는 세계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신이 처한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에는 사회적 한계가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탐색하고 있지는 않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5연에서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운동을 통해 도달한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화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적 배경에 나타나는 변화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는 현재 조깅을 하고 있는 화자의 신체적 상황과 정신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을 뿐, 화자 주변의 상황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연에서 ‘후’와 ‘하’는 일정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다가 ‘후, 하’로 바뀌고 ‘후하’로 다시 바뀌면서 실제 호흡이 가빠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다른 대상들도 ‘핀다’고 함으로써 동일한 행위를 통해 다른 대상들과 화자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지상에서 쪽 달리고 있는 화자는 대체로 수평적 움직임을 보이던 중 3연에서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된다. 이에 수평적 움직임과 수직적인 시선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4연에서는 화자가 조깅을 하는 시간적 배경이 ‘아침’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 반죽된’ 속성이 포함되어 화자에게는 ‘드문’ 아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04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D]가 [A]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종소리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에 여기에서의 반복은 먼저 제시된 ‘종소리들’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화자는 그 올타리를 벗어나 소외된 자들에게로 향하나 실패하는 절대자에 주목한다. 성당의 ‘종소리’는 멀리 퍼져야 하는 것이고 절대자는 이를 실천하고 있으나 이조차 가로막는 ‘올타리’를 발견한 화자가 ‘아랫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작품은 아랫마을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빠져나온 종소리는 ‘아랫마을’과 다른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향하고 있어 다른 공간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소리들’이 도달해야 하는 공간이 ‘아랫마을’만은 아니라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 ③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은 ‘빙판길’ 위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으로 불리는 절대자도 쉽게 오르기 어려운 공간이다. 절대자가 빙판길을 올라야 하는 이유는 ‘종소리들’이 아랫마을에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종소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올타리’로 비유함으로써 장애물로서의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갈래 복합 12**

본문 286~291쪽

-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②

**㉠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해제** 이 글은 현대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에서의 형상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고향은 인간이 나고 자란 곳으로, 현대 소설은 빈곤, 경제적 파산 등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수탈,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 정착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며 고향의 의미를 탐색해 왔다. 이호철의 「탈향」과 이청준의 「눈길」은 우리의 현대 소설사에서 이러한 고향의 의미를 수준 높게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들이다.

**주제**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사의 대표 작품

**구성**

- 1문단: 고향의 의미와 현대 소설에서의 형상화 양상
- 2문단: 이호철의 「탈향」에 형상화된 고향의 모습
- 3문단: 이청준의 「눈길」에 형상화된 고향의 모습

#### ㉠ 이호철, 「탈향」

**해제** 1965년에 발표된 작가의 출세작으로, '어둠 속에서', '암아' 등의 제목으로 네 번을 고쳐 쓰다가 현재의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6·25 전쟁의 와중에 단신으로 월남하여 부산에서 노동하며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작가의 체험이 담긴 사실주의적 소설이다. '나', 두찬, 광석, 하원은 이북이 고향이지만 전쟁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부산에 도착한다. 가족처럼 어울리던 이들이 타향에서 살 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 서로를 멀리하고 떠나는 과정은 전쟁의 고통과 실항의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주제** 월남 실항민의 애환과 비애

**전체 줄거리** 6·25 전쟁의 와중에 중공군의 남하를 피해 배 위에 올라탄 '나'는 고향 사람인 두찬, 광석, 하원을 만난다. 부산에 도착한 빛은 서로를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타향에서의 어려운 삶을 견디어 나간다. 하지만 피란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점차 서먹해지며 각자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어느 날 광석이 출발하는 화차에서 뛰어내리다 왼팔이 잘려 나가고, 두찬은 그런 광석을 내버려 두고 가 버린다. '나'와 하원은 광석을 데려왔으나 광석은 이튿날 죽고 만다. 두찬은 '나'와 하원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이들의 관계는 더욱 서먹하고 광석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던 두찬은 술을 먹고 한탄을 하다가 끝내 떠나 버린다. 하원은 돌만 남은 상황에서 '나'에게 함께 열심히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아이와 같은 하원이 부담스러운 '나'는 슬픔을 느끼며 하원에게서 떠날 것을 결심한다.

#### ㉡ 이청준, 「눈길」

**해제** 197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고등학교 시절 집이 팔리는 작가의 실제 체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다. '나'에게 고향과 집은 아픈 상처이다. 과거 집안의 가장인 형이 가산을 탕진하면서 크고 넓었던 집은 팔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도시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팔린 집에서 어머니와 하룻밤을 보낸 후 눈길을 밟으며 고향을 떠난다. 그 시절의 일들을 잊고자 하면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고 그녀에게 빛이 없음을 애써 강조하는 '나'의 내면이 한결같이 이들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대비되면서 가난의 고통과 갚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된다.

**주제** 갚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

**전체 줄거리**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나'에게 마을의 개량 사업을 통해 지분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완곡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빛이 없다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한다. 이러한 '나'가 못마땅한 아내를 지분을 개량하려는 어머니의 속내를 집요하게 묻게 되고 둘의 대화는 눈길에 얽힌 과거의 사연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집안이 망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집에서 '나'가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날 새벽, 눈길을 걸으며 '나'를 배웅한다. 그리고 홀로 다시 눈길을 걸으며 돌아와야 했던 심정을 담담하게 아내에게 들려준다. 잠이 든 척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던 '나'는 자신이 애써 외면해 왔던 이야기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 따르면,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다)에서 아내가 '옷궤'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옷궤'는 '나'와 '노인'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따르면, 고향은 안식의 장소로, (나)에서 '눈'은 그러한 친밀한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② [A]에 따르면, 고향은 다른 장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나)에서 하원도 '눈'을 기준으로 타향의 삶을 고향의 삶과 비교한다.

③ [A]에 따르면, 고향은 친밀한 장소로, (다)에서 '노인'도 옷궤를 통해 팔린 집이 '나'에게 고향의 친숙한 장소로 느끼게 하고자 한다.

④ [A]에 따르면, 고향의 집을 잃으면서 인간의 내면에 상처를 남기는데, (다)에서 '나'는 고향에서 집안이 망하고 집이 팔리며 어머니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를 얻게 되며, 이러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옷궤'에 거부함을 느낀다.

###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 따르면, 「눈길」에서 고향은 가난한 공간이다. 하지만 집에 대한 '노인'의 회상이 가난의 아픔을 크고 넓은 집의 소유로 달래려는 태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노인'은 회상을 통해 과거에 소유한 집의 특징을 설명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 따르면, 「탈향」은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의 어려운 삶을 그린 소설이다. 주로 사람이 아닌 물건 등과 호응하여 사용하는 '부리어졌다'라는 ㉠의 표현은 피난민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② (가)에 따르면, 「탈향」의 인물은 타향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관계가 변화한다. ㉡은 생존의 문제가 부각하기 전 서로에게 고향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 의지하려는 인물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③ (가)에 따르면, 「탈향」의 인물은 타향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관계가 변화한다. ㉢에 요약된 인물의 행동은 타향에서 생존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약화되고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가)에 따르면, 「눈길」에서 ‘나’는 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은 형의 잘못으로 인해 고향의 집을 잃게 되는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 설정되는 일인칭 소설로, 각각의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고향과 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이야기 속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다)는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서술자가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하며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한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인물들이 번갈아 서술자로 설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와 (다) 모두 이야기의 한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나)와 (다) 모두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로 설정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하원이는 고향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원이를 버리는 행위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고향을 떠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을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타향에서 힘껏 생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타향을 떠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타향에서 힘껏 생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을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는 타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원이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을 친구와의 우정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가 거듭 언급하는 ‘묵은 빛 문서’는 실재하는 문서가 아닌 심리적인 부채 의식이라는 점에서 ‘나’와 ‘노인’이 실제로 작성한 빛 문서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인’이 새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보내게 한 것은 아들을 향한 애정과 배려의 행위이다.
- ③ ‘아내’는 ‘노인’이 살았던 과거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면서 ‘노인’의 어려운 형편을 부각한다.
- ④ ‘나’는 어머니를 거듭 ‘노인’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어휘 사용을 통해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려는 ‘나’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나’는 집이 팔려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어 일단 고향으로 돌아온다.

실전 학습

1 회

본문 294~308쪽

- |      |      |      |      |      |
|------|------|------|------|------|
| 01 ③ | 02 ③ | 03 ⑤ | 04 ① | 05 ② |
| 06 ③ | 07 ④ | 08 ① | 09 ② | 10 ⑤ |
| 11 ③ | 12 ② | 13 ③ | 14 ④ | 15 ④ |

01~04 고전 시가

㉠ 허전, 「고공가」

**해제** 이 작품은 농가의 어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머슴들을 꾸짖는 형식을 통해 나랏일을 게을리하는 신하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가사이다. 화자는 근면했던 예전의 머슴들처럼 현재의 머슴들도 근검 정신으로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랏일을 잘하기 위해 신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해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상기시키면서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진 상황에서도 누우칠 줄 모르고 사리사욕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무너져 버린 유교적 이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나랏일에 게으른 신하들에 대한 비판과 각성 촉구

**구성**

- 기: 영화로웠던 과거의 내력을 떠올림.
- 승: 머슴들의 다툼으로 인해 황폐해진 현실을 언급함.
- 전: 머슴들이 각성하기를 촉구함.
- 결: 사려 깊은 새 머슴이 나타나기를 바람.

㉡ 최현, 「용사음」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의 상황을 담은 전쟁 가사이다. 갑작스럽게 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화자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게 된 기쁨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벼슬아치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작가의 구체적 체험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주제** 임진왜란의 참상과 이기적인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구성**

- 기: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란으로 인해 당황해함.
- 승: 전란을 방지하지 못한 벼슬아치들을 비판함.
- 전: 왜적을 물리친 의병들의 공적을 칭송함.
- 결: 권력자들이 각성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를 바람.

01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치르려뇨’에서 의문형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고공아’에서 청자를 호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집의 옷 밥을 두고 들먹은’에서 ‘고공’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대대로 내려온’ ‘논밭도 좋거니와’에서 현재와 달랐던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고공도 근검터라’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덕목으로 ‘근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싸리, 피가 말뚝처럼 자랄까 두려워라’라는 의미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악화될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말으스라’에서 청유형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너희 재주 헤아려 서로서로 말으스라’에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빈 성’이 되게 한 ‘김수’를 어리석다고 하고, ‘배수진’을 친 ‘신림’을 우습다고 했다는 점에서 화자는 두 인물을 모두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수의 행동이 신림의 행동보다 어리석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후와 신백’처럼 훌륭한 인물의 출생에는 하늘이 인색한데, ‘섬나라 오랑캐’를 낳은 존재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오랑캐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도적이 엿보’는데도 ‘개’가 짓지 않고 있으므로, 도적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 된 사람들과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신의를 저버린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옛 모습 그대로인 ‘산천’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대비하고 있으므로, 변함없는 산천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일월’이 ‘무광하’여 ‘갈 길’을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일월’이 있다면 ‘갈 길’을 알 수 있는데, ‘일월’이 빛을 내지 못하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월’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지만, ‘일월’이 무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월’의 결핍은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일월이 ‘무광하’여 ‘갈 길’을 모르겠다는 것에서 ‘일월’을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지만, 일월이 희망적인 태도를 끌어낸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임을 드러내는 시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월’이 이별의 괴로움과 슬픔을 상기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화자는 ‘일월’이 ‘무광하’여 ‘갈 길’을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으므로, ‘일월’이 이상향 실현에 대한 만족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자연물이 생산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은 시적 상황과 관련이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나)가 영화로웠던 과거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한 것은 ‘의관문물’이 잘 갖추어진 과거와 ‘예약과 현송’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준풍 쉬이 간다’는 ‘수령들’과 ‘변방 장수’가 ‘재화로 성을’ 만 길 높이로 쌓고, ‘고혈로 해자’를 천 자 넓이로 파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며 자기들끼리 즐기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에서 밥사발과 옷을 닦는 고공들과, (나)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령들, 변방 장수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명석에 벼를 년둘 좋은 해 구름 끼어 별뉘를 언제 보랴’에서 나라의 일을 농사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고을 도처에 시인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에서 당시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에서 도적이 멀리 가지 않았는데 옷과 밥만 닦는 상황과, (나)에서 바다에 왜적의 배가 가득한데 벼슬아치들이 산으로 숨는 상황은 외부의 위협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에서 고공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발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고, (나)의 ‘언제야 은하수 헤쳐 이 병진을 씻으려노’에서 전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유발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05~08 현대시 복합

㉠ 비유 읽기 방법과 비유의 기능

**해제** 이 글은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 표현이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에서 머물기보다는 독자의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읽을 때에는 보조 개념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 표현은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작품 전체의 사상 전개와 맞물리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시에 대한 풍부한 감상을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주제** 비유 표현의 속성과 기능

**구성**

- 1문단: 비유의 인식적 기능과 독자의 역할
- 2문단: 비유적 착상을 통한 사상의 유기적 전개

㉡ 박목월, 「시」

**해제** 이 작품은 본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시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시를 성취하는 순간과 생활로 인해 그 성취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절대 균형을 이루려는 시의 세계와 늘 흔들리는 일상 세계 사이의 긴장

**구성**

- 1~4행: ‘나’와 ‘시’의 상반된 성격
- 5~8행: 시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
- 9~12행: 생활 속에서 다시 무너지는 균형

㉢ 이병률, 「살림」

**해제** 이 작품은 별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별을 ‘이상’과 연결하던 기존의 발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별을 압정에 비유하여 별의 뒤통수가 뽀족하면서도 가려진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별들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임을 보여 주고 있어 천체로서의 별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별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3연에서는 다양한 별의 특성을 열거하면서도 그것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4연에서

는 별의 생성과 소멸까지 다룬다. 5연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달의 빛으로부터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화자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고, 달을 돌보는 것까지도 화자의 살림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살림에는 뚜렷한 외연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소쇄해 보이는 살림의 중요성

**구성**

- 1연: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
- 2연: 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언급
- 3연: 별을 돌보는 활동
- 4연: 별의 생성과 소멸
- 5연: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활동 (혹은 달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되는 살림의 범위)

## 05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첫째 부분은 화자와 시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나〉는~’추’까지이다. 둘째 부분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이고 그것은 시를 통해 균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겨우’~‘운울’까지가 된다. 셋째 부분은 이상적인 모습이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므로 ‘이내’~‘그것’까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가 가지는 성격이 첫째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시는’은 둘째 부분의 첫 어절이 될 수 없으며, 균형을 이룬 모습은 ‘운울’까지를 포함하므로 ‘미소’는 둘째 부분의 끝 어절이 될 수 없다.
- ③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겨우’부터 실현되기 시작된다.
- ④ ‘이내’는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 ⑤ ‘하늘’~‘진폭’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다.

## 0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한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 표현들 사이의 긴밀한 유기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화자가 자신을 ‘저울대’에 비유한 것은 ‘저울대가 가지는 ‘흔들리는’ 속성이 결국 ‘생활’의 ‘진폭’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를 추에 비유한 것은 저울대의 흔들리는 속성을 보완하는 시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울대가 추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추를 통해 얻는 위안이 한 줌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시를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일렁이는 해와 달은 생활이 가지고 있는 진폭으로 화자가 겨우 맞춘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화자에게 해와 달의 무게를 가능하겠다는 사명이 있다는 점은 작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④ 화자가 시를 추에 비유한 것은 생활을 진폭에 비유한 것과 맞물려 시와 생활이 대립되는 구도를 형성하게 한다. 추는 흔들리는 저울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진폭을 사라지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⑤ 생활이 진폭에 비유된 것은 곡선의 부드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균형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 07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헐렁해진 실들’은 화자가 살림을 통해 수선하고 보완해야 할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늘도’에서 보조사 ‘도’는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
- ② 이 작품에서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전에 말했는데요’는 화자가 자신의 살림에 대해 다른 누군가와 이전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왔음을 보여 준다.
- ③ 화자는 별들을 둘러볼 수 있지만, 그것은 새벽에게 업어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화자의 살림에는 새벽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오늘도’는 반복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오늘은’에서 보조사 ‘은’은 ‘오늘’의 살림에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한 경험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 0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화자는 별들을 묻기도 하지만 반대로 캐내기도 한다. 묻는 별이나 캐는 별 모두 압정처럼 뾰족한 부분에 찢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화자가 별을 묻는 것이 누군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가 돌보는 것은 ‘별들’이지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벽에 박힌 압정의 고정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화자가 그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둘러보러 다녀야 하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압정들은 다른 것을 고정하는 데 쓰이지 스스로 서로를 연결하기 어렵다. 실을 매 주는 것이 고립된 별들을 돌보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④ 압정의 ‘뿔죽한 뒤통수’는 겉으로 보이는 빛나는 별의 모습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가려진 채 남게 된다. 화자가 별들의 ‘생각’, ‘가슴팍’까지 살펴 별들의 가려진 내면까지 돌보려는 것은 이와 같이 가려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일반적으로 압정의 머리 부분에는 실을 매기 어렵다. ‘뿔죽한 뒤통수’를 발견하는 것은 화자가 별을 돌보는 방법으로 실을 단단히 매어 주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09~1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소대성전」

**해제**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이다. 영웅 소설의 보편적인 구조로 전개되면서도 주인공 소대성이 밥을 많이 먹고 잠만 자는 평범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웅 소설과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용왕의 아들이 인간계에 하강하면서 태어난 소대성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칠성검, 보신갑 등으로 무장하고 용왕의 도움을 받아 지상계에서의 위기를 극복한다. 또한 천자와 호국 왕의 싸움도 자미성과 익성의 싸움으로 그려지면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명나라 시절 소량의 늦은 자식으로 태어난 소대성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 승상은 소대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딸 채봉과 약혼시키지만, 이 승상의 부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 승상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 승상의 부인과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고 한다. 자객을 물리친 소대성은 이 승상의 집을 나와 방황하던 중 노승을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히게 된다. 호국이 침입하여 황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소대성은 황제를 구하고 공을 세운다. 황제에 의해 노국왕에 봉해진 소대성은 이 승상의 딸 채봉과 혼인하고 행복하게 산다.

0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소생은 그 이후로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폐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았다.’, ‘승상의 장례 치를 날이 되자 마지못해 의관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이 승상의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극진히 모셨다. 그러고는 또 서당에 누워 일어나지를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생은 양친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설움에 여러 번 혼절하니, 비복들이 그를 어렵사리 보살피고 돌보았다.’라고 했고, ‘소생은 조금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맡기고, 백금 오십 냥을 가지고 서쪽으로 향했다.’라고 했으므로 비복들이 대성을 꺾박하고 전답을 팔아 모두 가로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승상의 아들들이 승상의 부고를 듣고서 밤낮으로 달려와 승상의 영전에 통곡했다. 소생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니, 이들은 소생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냐고 왕 부인에게 물었다.’라고 했으므로 승상의 아들들이 승상의 장례식에서 처음 본 대성이 누구인지 채봉에게 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올해 육십이옵는데, 금년 봄에 구십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 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밧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골을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통곡한 이유를 말했다 뿐이고 대성에게 재물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없으므로 노인이 대성에게 노모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재물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대성이 점점 자라 열 살이 되자,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가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상서는 대성이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기뻐만 생각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상서가 대성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에 대해 마냥 기뻐하며 흠족해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B]의 ‘딸아이의 인륜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 주오. 황천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한이 없게 해 주오.’라며 승상이 부인에게 부탁했지만, ‘왕 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에서 승상이 자신의 부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A]에는 상서가 자신의 부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다만 이 아버지는 네가 장성한 후 봉황의 짝을 찾아 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슴에 맺힌 한스럽구나.’와 [B]의 ‘딸아이의 인륜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 주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와 [B]의 ‘내 병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 같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B]의 ‘딸아이의 일생은 자네에게 달렸으니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내치지 말며, 세 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에서 자신의

자식이 상대에게 폐를 끼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A]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의 '대성을 잘 길러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 주오.'에서 자신의 자식이 가문을 빛낼 인물이 되길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B]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1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대성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며 은혜를 갚기 위해 거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노인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떠나고 이후 '굶주린 거지꼴이 되었'으므로 은혜를 갚기 위해 '거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대성이 유리결식의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성이 어린 나이에 문필과 시서백가에 능한 모습은, <보기>의 내용 중 탁월한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의 모습에 대응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대성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상황은, <보기>의 내용 중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난에 대응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대성이 노인에게 전 재산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은, <보기>의 내용 중 영웅으로서의 인품을 부각하는 자발적 행위라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승상의 아들들이 대성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칠 방도를 찾은 상황은, 범인들에 의해 대성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하므로 <보기>에 비추어 적절한 설명이다.

## 12~15 현대 소설

### ■ 염상섭, 「삼대」

**해제** 이 작품은 3대로 이루어진 조씨 일가의 삶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인물 설정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당대 시대 현실의 총체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유지되고 물려 내려오던 관습과 윤리가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갈등을 통해 본 당시의 사회상

**전체 줄거리** 유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 등과 만난다. 덕기는 조부(조 의관)와 그의 후처인 수원집을 비롯한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한다. 수원집과 그녀를 조 의관에게 소개해 준 최 참봉 등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모략을 꾸민다. 조 의관이 독살되자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집안의 갈등

이 심화되지만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원집 일행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된다.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망연해한다.

## 1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을 보면 수원집은 오히려 덕기가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부가 중하나? 집안일이 중하나? ~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쯤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 덕기에 대한 조부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원집의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끄찍이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라는 질문에 '덕기도 아닌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라는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인요 사회에서 꺾떡대려는 위인이니만치 밍게 보던 차에'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 외척이 날까 보아서 좀 뻥뻥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1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 서술된 수원집의 모습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그려진 것 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암상이 발끈 난 것을 참느라고'라는 표현을 보면 인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조부와 덕기는 인지하지 못하는 밖의 수원집의 행동을 서술자가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다.

②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피고 굵똥 탓이었던지?'는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은 부장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서술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⑤ ㉢은 수갑을 차고 포승을 두른 채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상훈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14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바로 앞부분에서 '정미소를 상훈에게 준다'의 진술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 하는 짐작이 들었다.’라는 덕기의 생각과 상훈의 죄목에 ‘인장 도용, 문서 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유서에 모두 조부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물론 필적도 같다.’라는 구절을 통해 ㉗과 ㉙에 쓰인 필적이 모두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수원집에게 태평동 집문서를 내어 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대어야 하겠다 생각하고’를 보면, ㉗가 ㉙보다 더 먼저 작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㉗를 보고 덕기가 부친이 잡힌 것을 짐작하고 있고, ㉙는 상훈이 ㉗를 바탕으로 위조한 것이므로, ㉗와 ㉙ 모두 상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압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덕기가 자칫 위증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상훈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덕기는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라는 구절과 조부의 도장을 상훈에게 준 시기를 부장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구절을 보면 덕기가 상훈에게 조부의 도장을 순순히 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당’은 ‘집안’, ‘가문’과 같은 전통적이고 구시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열쇠’는 금고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자본주의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수원집은 ‘조부’를 ‘영감’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부의 부인(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 열쇠를 가로챤 궁리를 하고, 병든 남편에게 죽기 전에 자기 몫을 챙겨 달라는 의미의 말을 던지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태도로 이해할 만하다.
- ③ 상훈이가 정미소 명의를 고치려고 조부의 유서를 조작한 사건과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꺼떡대려는 위인이니만치 밍게 보던 차에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차반이로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⑤ ‘그 창피는 자기 개인과 맞상대자까지를 포함한 일문일족의 씨족적 불명예를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전 학습 2 회**

본문 309~322쪽

- |      |      |      |      |      |
|------|------|------|------|------|
| 01 ⑤ | 02 ② | 03 ⑤ | 04 ③ | 05 ② |
| 06 ⑤ | 07 ④ | 08 ② | 09 ④ | 10 ⑤ |
| 11 ② | 12 ④ | 13 ② | 14 ⑤ | 15 ① |

**01~03 고전 시가**

■ **이황, 「도산십이곡」**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만년에 은퇴하여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저리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 있고, 후 6곡 언저리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자연 귀의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유교적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관념적 성향이 짙다. 작가는 「도산십이곡」 발문을 통해 우리말 가곡에 상스러운 것이 많은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도록 함으로써 나쁜 마음을 씻어 버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서 「도산십이곡」은 문학의 교술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창작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학문 수양의 길

**구성**

- 제1수: 자연 속에서 살기를 원함.
- 제2수: 자연 속에서 살면서 허물이 없기를 바램.
- 제4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임금을 그리워함.
- 제5수: 자연을 멀리하는 것을 안타까워함.
- 제7수: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함.
- 제9수: 옛 성현들의 길을 따르고자 함.
- 제10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학문 수양을 다짐함.
- 제11수: 학문 수양에 대해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함.
- 제12수: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냄.

**01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도 ‘성인’도 다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학문의 길이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다. ‘우부’를 화자가 겸허한 태도로 자신의 학문이 부족함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연에 살고 싶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여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완락제'에서 '낙사 무궁'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완락제'는 화자가 머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왕래풍류'는 자연에서 소호하는 즐거움을 나타낸 표현이므로, 화자가 유희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는 '고인'이 '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라고 했으므로 '너던 길'은 화자가 따라가고자 하는 지향이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교교백구'를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멀리'를 현실 정치의 장이라고 본다면,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가 현실 정치의 장에 마음을 두는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태도로 볼 때,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화자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교교백구'를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멀리'를 현실 정치의 장이라고 본다면,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가 현실 정치의 장에 마음을 두는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 은거해 있는 인재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교교백구'를 은거를 선택한 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멀리'를 현실 정치의 장이라고 본다면,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는 은거를 선택한 타인이 현실 정치의 장에 마음을 두는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거를 선택한 타인들이 현실 정치의 장에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교교백구'를 은거를 선택한 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멀리'를 속세라고 본다면,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는 은거를 선택한 타인이 속세에 마음 두는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거를 선택한 타인들이 속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교교백구'를 은거를 선택한 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멀리'를 현실 정치의 장이라고 본다면,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고'는 은거를 선택한 타인이 현실 정치의 장에 마음을 두는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거를 선택한 타인들이 현실 정치의 장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삶을 택한 것에 대해 화자가 뉘우치고 한탄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제11수>의 '만고에 푸르'른 '청산'과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유수'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자연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청산'과 '유수'의 변함없는 모습을 예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청산'과 '유수'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학문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산'과 '유수'를 화자가 학문 수양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동원된 자연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의 '천석고황'은 자연에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에 살고 싶은 고질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시구와 호응하면서 그 뜻을 지켜 나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연하'와 '풍월'로 표상된 자연은 친화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에 은거하면서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실현하고자 선택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③ <제4수>의 '유란이 재곡하니'와 '백운이 재산하니'는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한 것인데, 이 아름다운 자연은 화자가 임금으로 추정되는 '피미일인'을 떠올리면서 연군의 정을 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제10수>의 '당시에 녀던 길'은 화자가 벼슬살이에 나서기 전에 학문에 정진하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 수양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탄 데 마음 마로리'는 학문에 정진하지 못했던 삶을 성찰하고 학문 수양의 자세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4~08 갈래 복합

### ④ 신경준, 「이름 없는 꽃」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고향 집 정원의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고전 수필로, 사물의 이름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신경준은 고향 집의 정원을 가꾸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순원화취잡설(淳園花卉雜說)」, 즉 '순원의 꽃과 나무에 대한 글'로 묶었는데, 이 작품은 그중 한 편이다. 글쓴이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

는데, 이러한 생각은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실학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름 없는 꽃을 통한 사물의 이름과 본질에 대한 사색

**구성**

- 기: 이름 없는 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 승: 이름은 단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전: 이름이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으며, 이름이 없어도 됨.
- 결: 모르는 것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음.

④ **작자 미상, 「옹고집전」**

**해제** 이 작품은 불교적 설화가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놀부형 인간인 옹고집의 개과천선 과정을 통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옹고집은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패륜적 인물에 해당하는데,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남에게 몫쓸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전체 줄거리** 옹진골에 살고 있는 옹고집은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며, 팔십 노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이자 승려와 거지를 무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어느 날 월출봉 비치암의 학 대사가 옹고집을 찾아가지만, 옹고집은 학 대사를 문전박대한다. 이에 도승은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 진짜 옹고집(헛옹가)을 만든다. 이후 헛옹가는 진짜 옹고집(참옹가)의 집에 찾아가고, 헛옹가와 참옹가는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게 된다. 둘은 원님을 찾아가 진위를 가려 달라는 송사를 하고, 원님은 세간살이와 집안 족보를 잘 안다는 이유로 헛옹가를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한다. 집에서 쫓겨난 참옹가는 도승을 찾아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도승이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참옹가가 부적을 던지자 헛옹가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이에 참옹가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기로 한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에서 ‘어떤 이’는 이름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름을 모른다면 이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이’의 말은 이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서 글쓴이는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꽃이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② ㉔에서 글쓴이는 ‘~가지고 본다면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이름은 사물들을 구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말들이 모두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㉔에서는 ‘연기 마신 고양이’에 비유하며 세간살이를 말하라는 원님의 분부에 당황해하는 참옹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㉔에서는 ‘~슬프고 가련하다.’, ‘~이런 환을 면하느니라.’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남에게 몫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글쓴이는 ‘어부’의 이름이 ‘굴원’과 함께 백 대의 후세까지 전해지는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름은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말은 사물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고사는 사물의 이름보다는 사물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름 있는 사물과 이름 없는 사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A]에서 글쓴이는 이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④ [A]에서 글쓴이는 ‘어부’라는 천한 명칭이 백 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진다는 점을 말하며 이름이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사물의 이름을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⑤ [A]에서 글쓴이는 이름이 천하더라도 먼 후세까지 그 이름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 아름다운 이름에 어울리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해 과거의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로 추정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에서는 헛옹가가 허수아비로 변했다는 것만 나타날 뿐, 또 다른 헛옹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헛옹가가 허수아비로 변했다고 해서 참옹가가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해 과거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원님은 참옹가와 헛옹가가 동일하게 생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 이론에 근거한 동일성 문제 판단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참옹가의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 했다는 말이 참옹가의 기억에 관한 말이라면, 이는 참옹가가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짜 옹가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 이론과 관련 있는 동일성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원님이 집 세간이나 사조를 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짜 옹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 이론에 근거한 동일성 문제 판단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복제 불가 조건'은 신체와 심리 상태가 동일한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헛옹가가 참옹가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복제한 사람이라면 '복제 불가 조건'에 따라 참옹가와 헛옹가의 개인 동일성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07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B]에서 참옹가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의 세간을 탈취해 간 사정을 자세히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원님에게 부탁하고 있다. [C]에서 헛옹가는 자신이 맹랑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분한 일을 풀어 줄 것을 원님에게 부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와 [C] 모두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을 뿐, 원님이 송사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② [B]는 '두터운 덕으로'에서, [C]는 '아래로는 명관이 있으니'에서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B]와 [C] 모두 자신인 척 행세하는 인물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과 자신과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된 사연을 밝히고 있는 것은 [B]이다.
- ⑤ [B]는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로 인해 세간을 탈취당했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언급하고 있으나, [C]는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글쓴이는 사람들이 맞난 회와 구이, 가벼운 가죽옷을 좋아하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쓰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인 '명분'보다는

그 사물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인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글쓴이는 음식과 옷을 예로 들어 사람들이 사물을 대할 때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너머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이름'이 의미하는 관념적인 명분보다는 '이름 너머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사물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글쓴이는 '무명' 역시 이름이라는 점에서 무명에 굳이 이름을 붙여 아름답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름'이 의미하는 명분을 지키는 삶보다는 사물의 실질을 지키는 삶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 원님은 참옹가가 사조를 말하지 못하자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상놈이로다.'라며 참옹가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원님의 말을 통해 자신의 조상과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도승은 참옹가가 벌을 받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불측한 뜻을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도승의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9~11 현대시****㉠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해제** 이 작품은 아마존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중반부까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삭막한 모습을 묘사하며, 그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열대어들의 근원적 욕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황폐한 분위기는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행위로 인해 반전을 이룬다. 후반부에서 화자가 보여 주는 아마존의 원시적 이미지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한 내면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도시 문명 속의 황폐한 삶과 시적 상상력을 통한 치유

**구성**

- 1연: 도시 공간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함.
- 2연: 생명력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이 나타남.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해제** 자연에 존재하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텔레비전'은 화자

의 감각을 가득 채우는 문명의 힘을 보여 주며, 이를 끄자 화자는 비로소 그동안 지나쳐 왔던 자연의 소리를 지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낸 작은 생명체들에 대해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상상의 과정에서 자신의 무감각하고 메마른 내면을 자각하고, 아주 작은 벌레 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에 담긴 생명의 힘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고자 한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지는 상황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겪은 화자의 내면 상태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문명적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과의 교감

**구성**

- 1~5행: 텔레비전을 끄고 벌레 소리에 귀 기울임.
- 6~12행: 울음소리를 만들어 낸 벌레들의 작은 귀와 어린 마음에 대해 생각함.
- 13~20행: 벌레 소리가 화자 자신의 귀에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것이라 짐작함.
- 21~23행: 밤공기를 들이쉬며 벌레 소리로 인해 내면이 환해짐을 느낌.

### 09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시적 공간인 ‘세검정 길’을 ‘덩굴’, ‘밀림’, ‘열대’ 등과 같은 보조 관념을 통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형적으로 아마존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정작 아마존이 지닌 생명력은 부재하는 ‘세검정 길’의 황폐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름밤’과 같이 계절적 상황을 보여 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② ‘열대어’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제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등과 같은 부분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부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노란 달’과 같은 표현에 색채어가 사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색채어로 형상화된 이미지들은 찾을 수 없다.

### 10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벌레 울음소리를 하루살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맞지만, 울음소리를 내던 벌레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은 벌레의 울음소리가 화자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며, 벌레 울음소리가 화자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는 벌레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화자의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시적 대상인 ‘열대어들’이 살아가는 ‘아마존 수족관 집’ 수조의 유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끼어 헤엄치는’,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등과 같은 표현을 고려할 때 시적 대상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은 ‘열난 기계’, 즉 자동차가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것으로 인해 느껴지는 후각적 자극을 나타낸 표현이다. 시의 후반부에 나타난 ‘아마존’의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와 대립되는, 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③ ㉢은 청각적 이미지인 ‘벌레 소리’를 시각화한 표현으로, 텔레비전을 끈 화자가 어둠 속에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 ④ ㉣은 ‘폴벌레들의 작은 귀’를 표현한 것이다. 화자가 가진 귀의 상태가 ‘현란한 빛’이 ‘두껍게 채워진 것으로 묘사된 것과 대비를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다.

### 1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열대어가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족관 속에서 목’ 말라 가는 열대어의 모습을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갈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에서 귀뚜라미나 여치들의 ‘큰 울음’은 화자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이를 현대인들의 공허한 내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종이꽃’은 ‘덩굴져 자라나’는 것으로 묘사된 ‘상품들’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기>를 참고하면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함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 ‘텔레비전’은 화자가 폴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게끔 하는 사물로, <보기>를 참고할 때 현대인들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를 함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소음’은 ‘번기 같은 꺾바퀴에’ ‘부엉거리는’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열대어’로 형상화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도시 문명의 부정적인 속성을 나타낸 표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황폐함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 ‘여린 마음들’은 화자가 상상한 ‘폴벌레들’의 마음으로, <보기>를 참고할 때 화자가 교감함으로써 생명의 힘을 떠올리게끔 해 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가)의 2연에 형상화된 시적 상황과 <보기>를 참고할 때, 화자

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일깨워 위로를 얻게끔 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 ‘허파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오는 상황과 <보기>를 참고할 때, 화자가 ‘크게 밤공기 들이쉬’는 것은 무더진 감각과 사고를 회복하고 자연과 교감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는 모습과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지는 모습은, 각각 ‘시’를 통한 상상과 ‘풀벌레들’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력 회복을 지향하는 내면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12~15 현대 소설

### ■ 김정환, 「산거족」

**해제** 이 작품은 판자촌인 ‘마삿등’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을 위해 식수원을 개발하여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준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이들의 저항

**전체 줄거리** 마삿등 판자촌에 사는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물을 쓰는 산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의 산이므로 수도를 철거할 것을 통보한다. 황거칠 씨가 이에 불복하자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지게 된 황거칠 씨는 결국 물과 수도를 빼앗긴다. 이에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황거칠 씨는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수도를 연결하지만 또다시 국유지를 불허받았다는 산 임자가 나타나면서 마삿등 사람들은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하 취소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 1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호동팔이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우물을 복구하는 사업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㉔은 황거칠 씨가 다른 산에서 새로운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㉔을, ㉔의 상황을 미리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집달리 일행이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㉑은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려는 집달리

일행과의 싸움을 나타낸 것이므로, ㉑을 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② ㉑은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려는 집달리 일행과의 싸움을 나타낸 것이다. ㉔은 황거칠 씨가 ㉑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다음, 석방되는 조건으로써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나타낸 것이므로, ㉑을 ㉔이 발생하게 된 빌미로 볼 수 있다.

③ ㉔은 황거칠 씨가 감옥에 갇힌 다음, 석방되는 조건으로써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㉔은 수도 시설이 강제로 완전히 철거되고 호동팔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우물을 복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㉔에 표현된 바대로, 황거칠 씨는 강제 집행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㉔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㉔은 결과적으로 ㉔을 원활하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⑤ ㉑은 호동팔 측의 법적 권리에 따라 집달리 일행이 마삿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로 인해 마삿등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을 쓸 수가 없게 된다. ㉔은, 황거칠 씨가 호동팔 측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새로운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㉔은 ㉑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으로 볼 수 있다.

##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물풀’은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 자라나는 뗏목들을 이르는 말이다. ‘물풀’은 또한 황거칠 씨가 물과 수도 시설을 모두 빼앗긴 후에 다시 새로운 수원을 찾으러 다니던 중 발견한 것으로, 그가 ‘물풀’을 본 이후 반색하는 것을 통해 인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풀’은 앞으로 새 수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황거칠 씨가 마삿등이라는 현재의 삶의 터전을 떠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황거칠 씨는 새 수원을 찾기로 결심하고 산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가 찾은 ‘물풀’은 앞으로 새 수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풀’이 황거칠 씨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물풀’은 앞으로 새 수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황거칠 씨는 현재 상황에서 도피하려 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므로, ‘물풀’이 현재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정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황거칠 씨가 ‘물풀’을 본 후 과거의 일과 앞으로의 수고로운 일

들을 생각하며 입맛이 쓰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곧 이를 꺾어야 할 시련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물풀'을 부담감을 결국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보기 어렵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생계 때문에 마삿등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을 쓰게 된 것은 호동팔의 법적 권리 실현 이후이다. 이는 마삿등에 깃들여 살던 사람들, 즉 약자들이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던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땅으로부터 소외된 결과이다. 이를 현실로서의 토지를 지키려 투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물과 산 수도는 마삿등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마삿등 사람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호동팔이 우물과 산 수도를 철거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절차에 맞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마삿등 사람들이 인부들과 싸움을 벌인 것은, 법을 근거로 삼아서 마삿등 사람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강자의 무자비함에 대해 집단 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마삿등의 물을 사유화하려는 호동팔의 계획은 실제 살고 있는 이들의 희생과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황거칠 씨가 집달리의 판단을 격정하며 법을 권 사람의 자유를 떠올린 것은, 그들의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황거칠 씨는 다시 새로운 수원을 찾으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순응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기성세대와 거리가 먼 것의 근거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황거칠 씨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조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에게만 독차지 되는 현실에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황거칠 씨가 현실의 모순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소년을 떠올리거나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을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황거칠 씨가 따뜻한 인간애

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자신이 꺾을 수고로움을 조국과 함께 꺾어야 할 시련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시각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실전 학습

3 회

본문 323~336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7 ①	08 ①	0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②	14 ⑤	15 ④

01~04 현대시

㉠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해제** 이 작품은 배추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배추가 원래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란다고 생각하다가, 배추가 나비와 벌레에게 자신의 몸을 주며 속이 차오르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인간의 삶에서도 나눔과 희생이 있어야 삶이 완성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물을 동일시하여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 나눔과 희생으로부터 얻는 생명력

**구성**

- 1~2행: 배추의 성장에 대해 품었던 이전의 생각
- 3~9행: 배추에서 결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
- 10~13행: 배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
- 14~17행: 배추를 통해 깨달은 나눔과 희생의 중요성

㉡ 문태준, 「맨발」

**해제** 이 작품은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부르짖는 맨발을 지니고 살아가는 개조개의 모습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맨발로 살아온 개조개를 사랑을 잃고 슬픔을 견디는 사람, 가난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 등과 동일시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하며 인간의 힘겨운 삶도 이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

**구성**

- 1~3행: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내민 맨발을 응시함.
- 4, 5행: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에 포착함.
- 6~15행: 개조개의 삶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알뜰을 달듯’을 통해 배추의 속이 차 오는 모습을 빗대고 있다. (나)에서는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를 통해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모습을 빗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에서는 ‘가난의 냄새가 별별별별 풍기는 움막 같은 집’에서 후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는 거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수미상관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배추 모종’을 심기 전과 후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를 볼 수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모습과 그 후 ‘발을 거두어’ 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개조개’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연민을 느끼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으)ㄴ 것이다’, ‘-리라’에서 추측의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는 개조개의 삶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보여 주는 것일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처음 자리에 길은 없’다는 것은 희생과 나눔이 있어야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깨달음과 관련되므로 ㉠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은 ‘개조개’가 ‘천천히’ 지나는 시간과 관련되므로, 개조개의 삶의 속도를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배추’를 통해 ‘자기 몸을 빌려주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개조개’를 통해 ‘개조개’의 삶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과 ㉡이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현재 ‘배추’를 보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개조개’의 현재 처지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 화자가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에서 ‘배추가 본디 속부터 /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던 화자는 ‘배추’가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며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배추’의 성장에 대한 화자의 관념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개조개’의 삶은 사회에 순응하며 얻은 것이 아닌, 고통과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ㄱ. ‘아-’는 ‘가난’으로 인해 배고픔을 느끼며 울던 것들의 울음소리로, 개조개에게는 ‘슬픔’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ㄴ. 울던 것들을 위해 개조개는 길거리로 나서서 탁발을 하게 된다.

ㄷ. 울던 것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개조개’의 모습에서, ‘아-’ 소리가 개조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음을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개조개와 울던 것들이 외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ㄴ. 탁발을 통해 울던 것들의 배를 채우게 되었으므로 탁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어 한탄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자신이 이전에 품었던 ‘배추가 본디 속부터 /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란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배추는 ‘스스로 길있 되어’ 자기 몸을 희생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내적인 성숙을 이룬 후에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배추의 모습은 자신이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며 생명력을 얻는 것으로,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지닌 것을 나누며 공생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몸을 빌려주는 사이 / 절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배추’의 모습을 통해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해 희생의 미덕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④ (나)에서는 ‘조문하듯’ 개조개의 ‘부르튼 맨발’을 건드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겪은 존재에게 연민을 느끼는 화자

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화자가 '개조개'에 대해 '늘 맨발'로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살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며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08 현대 소설 복합

### ㉠ 손창섭, 「잉여 인간」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각박해진 세대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주인공 만기의 치과 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만기와 그의 친구들인 익준, 봉우 등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에 무능력한 '잉여적' 인물형들을 그려 내는 동시에, 도덕성이나 선량함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우선시되는 전후의 부조리한 세태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휴머니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전후 사회의 인간 소외와 휴머니즘적 극복

**전체 줄거리** 치과 의사인 서만기의 병원에는 그의 친구들인 채익준과 천봉우가 매일 찾아온다. 익준은 사회의 부조리를 담은 신문 기사를 보며 분노하고,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봉우는 매사에 무기력한 채 간호원인 홍인숙을 짝사랑하여 그녀를 쳐다보거나 앉아서 낮잠을 잔다. 봉우의 아내는 병원 건물의 소유주로, 가난한 치과 의사인 만기를 돈으로 유혹하려 한다. 봉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만기는 일주일 이내에 병원과 시설 일체를 내어달라는 봉우 아내의 편지를 받는다. 익준이 없는 사이, 익준의 아이가 병원으로 찾아와 익준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한다. 만기는 봉우의 아내에게 장례 비용을 융통하여 익준의 아내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익준을 만난다.

### ㉡ 박경리, 「불신 시대」

**해제** 이 작품은 박경리의 전쟁 체험이 담겨 있는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전후의 사회 현실이 초래한 궁핍과 정신적 황폐화는 인간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사나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타락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불신'이 만연한 시대 현실과 그 시대가 인간성을 어떻게 훼손시키는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혼란기의 부정적 사회상에 대한 분노와 고발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외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진영은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죽어 간 아이의

울음소리를 잇기 위해 종교에 매달려 본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시주 받은 쌀을 착복하는 종과 도적맞을까 봐 신발을 싸 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뿐이었다. 진영은 그들로 인해 아이의 영혼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진영은 그 부당함에 항거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며, 죽은 아이의 사진을 불사르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 05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통해 만기가 익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어디 밀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 주고 싶었다.' 등의 표현을 보면 진영은 아주머니에게 반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런 악(惡)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등의 표현을 보면 아주머니에게 연민의 감정 역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아주머니가 진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의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꾸어 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라는 구절을 보면 익준이 만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만기는 치과 의사로 직업이 있지만, (나)의 진영은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라는 구절을 보면 직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이라는 구절을 보면, (가)의 익준이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진영이, 돈을 떼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주머니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영이 부정이나 불의한 상황에 무감각한 성격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피를 짜내듯 해서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보면, (가)의 만기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버거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라는 구절을 보면, (나)의 아주머니는 부양할 가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주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6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익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소년의 말을 통해 짐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년을 통해 익준의 가정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익준을 특별히 오해했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익준이 하려던 사업이 무엇인지는 이미 익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익준이 사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만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익준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 가족들에게 소홀한 채 밖으로 돌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진영은 아주머니가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쓴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켓돈을 유용하여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주머니가 떤 돈이 '밑천 든 장사'가 아니라는 말은 곧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는 곧 진영이, 아주머니가 켓돈을 유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해당 문장의 내용을 보면,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이 김 씨임을 알 수 있다.
- ④ 진영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상배가 영세를 받은 신자라는 점만 믿고 맹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비꼰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어음을 김 씨가 아닌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김 씨가 어음을 노리고 일을 봐준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만기가 현실에 극도로 시달리고는 있으나 치과 의사로서 가족을 부양하고는 있으므로, 만기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속여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외국인들이 한국 상인을 신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상인들이

이 외국인들에게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부조리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자신을 도와주려는 김 씨를 불신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돈이 제일인 세상이라는 것은 곧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09~12 갈래 복합****㉠ 정서, 「정과정」**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지은 향가계 고려 가요이다. 역모에 가담했다는 참소 때문에 동래로 귀양을 가게 된 정서는 자신을 곧 다시 부르겠다는 임금(의종)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예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정서의 호가 과정(瓜亭)이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의 제목을 '정과정'이라 했다. 유배 문학의 효시로 꼽히며, 국문으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진 작품이기도 하다.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자신의 결백 주장

**구성**

- 기(1~4행):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결백함
- 서(5~10행):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해명
- 결(11행): 임에 대한 애원

**㉡ 작자 미상, 「개야미 불개야미 ~」**

**해제** 이 작품은 등이 부러진 불개미에 관한 과장된 헛소문을 소재로 삼아, 결백을 호소하는 화자가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즉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근거하여 타인의 말을 수용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남을 헐뜯는 거짓말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주장

**구성**

- 초장: 등이 부러진 불개미에 대해 언급함.
- 중장: 불개미에 대한 과장된 헛소문의 존재를 임에게 알림.
- 종장: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고 잘 판단해 달라고 임에게 당부함.

**㉢ 이달충, 「애오잠병서」**

**해제** 이 작품은 고려 말의 유학자 이달충이 지은 글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

는데, 각 평가의 내용이 귀담아들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평가를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작가는 ‘아니다’, ‘없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유비자(有非者)’와 ‘무시옹(無是翁)’이라는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사람다움에 관한 평가를 대하는 올바른 관점

**구성**

- 처음: 무시옹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관해 유비자가 질문을 던짐.
- 중간: 무시옹이 타인을 평가하는 이가 먼저 갖추어야 할 사람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함.
- 끝: 무시옹이 자신을 깨우치는 글을 지음.

### 0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진실과 다른 소문이 유포된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니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에 속지 말라는 당부 를 임에게 하고 있다.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라는 구절은 임이 자신을 잊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청자가 화자에 대한 소문을 공동체 내에 퍼뜨렸다는 지적과도 무관하고, 청자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는 새벽녘의 달과 별이 화자의 결백함을 아실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구절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에 대한 평판이 진실과 다름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할 때, (나)에서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화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무성하게 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쁜 평판이 형성되어 그것이 어느새 객관적 사실처럼 취급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④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할 때, (나)의 ‘임이 짐작하소서’에는 화자에 대해 ‘온 놈이 온 말을 하’더라도 그 소문을 믿지 말고 청자인 임께서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청자가 어딘가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유비자는 무시옹에게 왜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는 무시옹에 대한 상반된 평판, 즉 인격을 칭찬하는 평판과 인격을 비난하는 평판이 공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0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청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다. 또한 임의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태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는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시여’와 ‘-소서’처럼 상대인 임을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에서는 개미 중에서도 불개미, 또 그중에서도 등이 부러진 불개미라는, 대상의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가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리듬감도 형성되고 있다.

④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신이 기뻐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⑤ ㉤은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다.

### 1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입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는 화자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하지만 ㉡는 내용상 거짓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응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 ㉡도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② ㉠도 ㉡도 청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에 대해 비판의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도 ㉡도 절대적 권력과는 무관하다.

### 12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무시옹은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이라고 하였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 아닌’ 사람을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면,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그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다. 따라서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탓하는 것과, 그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이 모두

기빠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무시용은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는 진술은 무시용의 생각에 부합한다.
- ② 무시용은 누군가가 나를 사람이라고 하거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 먼저라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인격에 대해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그 평가자의 인격이라는 말은 무시용의 생각에 부합한다.
- ③ 무시용이 지은 잡에서는 ‘자도의 어여쁨이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 역아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라고 하였다. 이는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운, 즉 사람이라는 평가와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경우와 달리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무시용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무시용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을 ‘인격이 훌륭한 이’라고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을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라고 한다면, 인격이 훌륭한 이가 나의 인격을 타하는 것과, 인격이 보잘것없는 이가 나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두려운 일이라는 진술은 무시용의 생각에 부합한다.

## 13~15 고전 산문

### ■ 작가 미상, 「옥단춘전」

**해제** 이 작품은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다. 이혈룡과 김진희는 양반으로서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안 감사가 된 김진희는 이혈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혈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다. 옥단춘은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혈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를 대별하여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남주인공의 출현 장면 등과 같이 내용 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 감사가 되지만, 이혈룡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에 이혈룡은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는다.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걸인 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간다. 김진희는 옥단춘의 도움으로 이혈룡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둘을 죽이려 한다. 이에 이혈룡은 암행어사로 출도하고, 김진희를 치죄한다. 이후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르고 옥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부귀를 누린다.

## 1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혈룡은 옥단춘이 복소리가 울릴 때마다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것을 보며 언젠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알리며 옥단춘을 위로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사도임을 밝히지는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옥단춘이 김진희에게 돈을 구걸하다 곤경에 처한 이혈룡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만, 이혈룡을 곤경에 빠뜨린 김진희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김진희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혈룡이 다시 찾아오자 그를 죽이려 하는데, 그가 어사도가 된 것은 알지 못했다.
- ④ 이혈룡은 김진희가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김진희를 꾸짖었다.
- ⑤ 옥단춘은 이혈룡을 살려 준 것이 발각되어 관아에 끌려갔을 때 장차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사공들이 옥단춘의 부탁을 받고 이혈룡을 구해 준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으로, 이들은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옥단춘과 이혈룡을 죽이라는 사도의 명을 따르려고 한다. 이들이 돈과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인물인 것은 맞지만, 신분에 따라 신의를 지키지 말지를 판단하는 인물로 볼 수는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단춘은 이혈룡이 남루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혈룡은 어사도가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옥단춘은 인물됨을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김진희는 양반으로서 이혈룡과 결의형제를 맺었지만 이혈룡이 몰락하자 그를 죽이려 한다. 따라서 김진희는 작가가 풍자하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옥단춘은 기생 신분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이혈룡을 구하였고, 그를 낭군으로 삼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옥단춘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④ 옥단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낭군인 이혈룡을 먼저 걱정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옥단춘은 신의를 중시하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15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이혈룡은 대동강 물에 원망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김진희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 이혈룡은 의문문을 사용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김진희에 대한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㉑에서 옥단춘은 과거에 이혈룡과 백년해로를 약속했는데, 지금은 죽을 위기에 처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③ ㉔에서 이혈룡은 형식은 유사하나 내용은 반대인 문장을 반복하여 옥단춘에게 누가 살더라도 김진희에게 꼭 복수하자고 말하고 있다.
- ⑤ ㉔에서 마패는 일월로, 출포 호령은 우레로 과장되게 비유하여 이혈룡이 어사또로 출포하는 장면을 생동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01 ④ 02 ③ 03 그 길(에), 천연히
2강	01 ④ 02 ④ 03 ㉔: 답답 ㉕: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3강	01 ④ 02 ③ 03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를 통해 푸른색을, 메밀밭을 통해 흰색을, 대궁을 통해 붉은색을 드러내고 있다.
4강	01 ④ 02 ㄴ → ㄱ → ㄹ → ㄷ 03 우의정 집 후원
5강	01 ④ 02 ② 03 순진무구하고 정직한 청년이 가족 사기단으로 인해 사기한(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모순되게 표현한 것이다.
6강	01 ㉔: 세 02 ㉔: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 ㉕: 등잔 아래서 03 ③
7강	01 ② 02 ㉔ 외로운 ㉕ 황홀한 03 이승에 없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기능이 있으며, 이승과 저승이 가로막혀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단절의 기능도 있다.
8강	01 ③ 02 ㉔ -을까나, ㉕ 춘향의 마음 (또는 감정) 03 ②
9강	01 ③ 02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무의미)의 해방 상태(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 등도 가능) 03 ④

•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④ 02 ③ 03 ④
	02	01 ② 02 ④ 03 ⑤
	03	01 ⑤ 02 ④ 03 ④
	04	01 ② 02 ⑤ 03 ②
	05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6	01 ⑤ 02 ③ 03 ②
	07	01 ④ 02 ⑤ 03 ①
	08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9	01 ④ 02 ③ 03 ⑤
	10	01 ④ 02 ① 03 ③ 04 ⑤
	11	01 ⑤ 02 ④ 03 ⑤
	12	01 ⑤ 02 ③ 03 ②

현대시	01	01 ① 02 ⑤ 03 ③
	02	01 ① 02 ⑤ 03 ② 04 ③
	03	01 ④ 02 ⑤ 03 ⑤
	04	01 ⑤ 02 ④ 03 ⑤
	05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6	01 ⑤ 02 ⑤ 03 ④
	07	01 ① 02 ③ 03 ①
	08	01 ② 02 ② 03 ④
	09	01 ④ 02 ⑤ 03 ⑤
	10	01 ④ 02 ⑤ 03 ⑤
	11	01 ③ 02 ② 03 ④ 04 ④
	12	01 ② 02 ④ 03 ④

고전 산문	01	01 ② 02 ⑤ 03 ③
	02	01 ④ 02 ② 03 ②
	03	01 ⑤ 02 ② 03 ⑤
	04	01 ④ 02 ① 03 ⑤
	05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6	01 ② 02 ④ 03 ②
	07	01 ② 02 ⑤ 03 ③
	08	01 ④ 02 ③ 03 ⑤
	09	01 ② 02 ③ 03 ⑤ 04 ⑤
	10	01 ③ 02 ② 03 ③
	11	01 ⑤ 02 ⑤ 03 ④
	12	01 ② 02 ④ 03 ⑤ 04 ④

현대 소설	01	01 ⑤ 02 ② 03 ④
	02	01 ① 02 ② 03 ④
	03	01 ⑤ 02 ④ 03 ⑤
	04	01 ④ 02 ② 03 ④
	05	01 ⑤ 02 ③ 03 ② 04 ⑤
	06	01 ④ 02 ④ 03 ④ 04 ②
	07	01 ② 02 ⑤ 03 ①
	08	01 ④ 02 ② 03 ⑤
	09	01 ⑤ 02 ① 03 ②
	10	01 ③ 02 ④ 03 ⑤ 04 ②
	11	01 ② 02 ② 03 ④
	12	01 ① 02 ② 03 ④

극·수필	01	01 ① 02 ⑤ 03 ④
	02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3	01 ② 02 ③ 03 ③
	04	01 ② 02 ⑤ 03 ⑤
	05	01 ② 02 ② 03 ④
	06	01 ④ 02 ④ 03 ⑤
	07	01 ③ 02 ③ 03 ③
	08	01 ⑤ 02 ⑤ 03 ⑤
	09	01 ⑤ 02 ② 03 ①
	10	01 ④ 02 ④ 03 ②

갈래 복합	01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2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3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4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④
	05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⑤
	06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7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8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9	01 ② 02 ④ 03 ② 04 ⑤
	10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④
	11	01 ③ 02 ⑤ 03 ⑤ 04 ④
	12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②

•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④
2회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⑤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② 14 ⑤ 15 ①
3회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7 ① 08 ① 0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② 14 ⑤ 15 ④